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전기중세 한국어 '(-)ㅎ-' 연구

-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이 강 혁

<국문초록>

전기중세 한국어 '(-)ㅎ-' 연구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이 강 혁

전기중세 한국어의 'ㅇ(ㅎ)'는 많은 문법 현상을 포착할 수 있는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기중세 한국어의 'ㅇ'의 문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그 양상을 검토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이에 대해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ㅇ$_1$'과 문장 형성에 참여하는 'ㅇ$_2$'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고 중심적으로 다루는 자토석독구결 자료가 제한적인만큼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어근 결합 여부를 확인하여 어근에 결합하는 'ㅇ'는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ㅇ$_1$'으로 분류하고 어근에 결합하지 않고 다른 요소에 의존하여 쓰이지 않는 'ㅇ'를 문장 형성에 참여하는 'ㅇ$_2$'로 분류하였다. 'ㅇ$_1$'에 대해서는 파생접미사로 분석하는 구조문법적 관점뿐만 아니라 생성문법적 관점에서 임시어 형성소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ㅇ$_1$'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 논의를 다뤘다. 또한 'ㅇ$_2$'에 대해서는 '아우름 동사', '대동사', '보조 동사'로 나누어 각각의 설정 기준을 논의하였다. 제2장에서 설정한 기준들과 기본적 논의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ㅇ$_1$'을, 제4장에서는 'ㅇ$_2$'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우선 생성문법적인 관점에서 임시어 형성소로서의 문법적 지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당시 형성된 임시어가 공인화를 거쳐 어휘부에 등재된 후 실제어까지 도달하는 단어 형성 과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어휘적 강도를 등재의 기준으로 삼았다. 다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어휘적 강도를 보이는 부류를 '등재'류로 분류하였으며, '등재'류에 비해 현저히 어휘적 강도가 낮은 부류를 '미등재'류로 분류하였고 그리고 '등재'류와 '미등재'류 비교군 사이에 놓인 부류에 대해서 '공인화'류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는 구조문법적인 관점에서 결합하는 어근을 한자어 어근과 고유어 어근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자어

어근과의 결합 양상을 어근의 음절수 별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에는 ‘ㅅ$_1$’과 음독구결의 ‘ㅅ’, 더 나아가 한글구결의 ‘ᄒᆞ’까지의 통시적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서 설정한 기준들에 따라 ‘아우름 동사’, ‘대동사’, ‘보조 동사’ 순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아우름 동사’는 연결어미 ‘-ᄀᆞᆯ’나 ‘-ᄀᆞ’를 통해 나열되는 절 혹은 조사 ‘-ㅡ/ㅣ’나 ‘-ㅅ’를 통해 나열되는 명사구의 마지막에 등장하여 선행하는 요소들을 아우르는 기능을 가진 동사이다. 다음으로 ‘대동사’는 기존의 연구사적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되 자료의 특성에 맞게 해당 구문을 분류하여 ‘인용 구문’, ‘의도·목적 구문’, ‘자·타동사 구문’으로 나누어 구문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특히 구문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동사에 대응하는 ‘자·타동사 구문’에 방점을 찍어 살펴보았다. 또한 더 나아가 연결어미 ‘-ㄱㅏㅁ’와 대동사 구문 간에 모종의 문법적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조 동사’의 경우 해당 구문이 갖고 있는 의미 기능에 ‘시도’ 혹은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고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주요어 : ‘ᄒᆞ-’, 석독구결, 접미사, 형성소, 임시어, 아우름 동사, 대동사, 보조 동사

학 번 : 2017-25074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 대상과 시대 구분 ····· 1
1.3. 연구 방법 및 논의의 구성 ····· 5

2. ‘ㅺ’ 분류 ····· 7
2.1. 단어 형성과 문장 형성에서의 양상 ····· 7
2.2. 단어 형성 관련 문제 ····· 7
2.2.1. 어근 결합 여부 ····· 8
2.2.2. 임시어 형성 ····· 12
2.2.3. 접사와 형성소 ····· 19
2.3. 문장 형성 관련 문제 ····· 21
2.2.1. 아우름 동사 설정 기준 ····· 21
2.2.1. 대동사 설정 기준 ····· 23
2.2.1. 보조동사 설정 기준 ····· 27

3.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ㅺ’ ····· 29
3.1. 임시어 형성소 ····· 29
3.2. 문법적 양상 ····· 35
3.2.1. 한자어 어근 ····· 35
3.2.2. 고유어 어근 ····· 45

4. 문장 형성에 참여하는 ‘ㅺ’ ····· 53
4.1. 아우름 동사 ····· 53
4.2. 대동사 ····· 58

4.2.1. 인용 구문 ····· 58
4.2.2. 의도·목적 구문 ····· 62
4.2.3. 자·타동사 구문 ····· 69
4.3. 보조 동사 ····· 85

5. 결론 ····· 89

참고문헌 ····· 91
<ABSTRACT> ····· 98

1. 서론

1.1. 연구 목적

1975년 9월 학계에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인『舊譯仁王經』卷上의 낙장 5매가 공개된 이래 지난 40여년 간 이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현재까지는 20여 종의 자토 및 점토석독구결 자료가 발견 및 공개되었고 이로 인하여 한글 창제 이전의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말에 관한 많은 현상들에 대하여 밝혀졌다. 그러나 자료의 수가 한글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자토 및 점토로 표기된 차자표기인 만큼 접근성이 떨어져 아직 연구사적으로 적지 않은 공백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본 연구에서 다룰 'ㅇ(ㅎ)'이다.

후기 중세 한국어 'ㅎ'에 대한 연구(안병희 1962, 이광호 1985, 이현희 1985, 이현희 1986, 장경준 1998)나 현대 한국어 '하'에 대한 연구(서정수 1975, 김영희 1984, 양명희 1990, 김창섭 1997, 고재설 1999, 정연주 2017) 혹은 중세 한국어부터 현대 한국어까지의 통시적인 연구(윤예진 2016)는 이루어졌으나 유독 자토석독구결의 'ㅇ'에 대한 연구는 지금 '爲'에 현토된 구결자 중 하나(김성주 2005, 이전경 2012), 아우름 표현 기능 요소(박진호 1997) 혹은 당시의 용언파생접미사(장윤희 2006)로 검토하는 정도의 부분적인 연구에 머물러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사적인 공백을 채움과 동시에 문법적으로도 많은 현상을 담아내는 요소로서의 'ㅇ'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전기중세 한국어의 'ㅇ'에 대하여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ㅇ'와 문장 형성에 참여하는 'ㅇ'로 나누어 공시적·통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ㅇ'의 문법적 지위를 확인할 것이다.

1.2. 연구 대상과 시대구분

현재까지 공개된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는 자토석독구결 6종과 점토석독구결 14종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자토석독구결 6종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

다. 각 자료에 대한 약호와 시기는 아래 [표1]과 같다.[1)]

[표 1]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 자료 목록

문헌명	약호	시기[2)]	비고
대방광불화엄경소 권35	화소	11세기 말 내지 12세기 초	
대방광불화엄경 권14	화엄	12세기 중엽	
구역인왕경 권상	구인	13세기 중엽	5장 낙장본
합부금광명경 권3	금광	13세기 초엽	점토 기입
유가사지론 권20	유가	13세기 후반	
자비도량참법 권14	자비	13세기 중엽	5장 낙장본

또한 통시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각 장의 필요에 따라 보조적으로 15세기 이후 한글 자료를 참고할 것이며 해당 자료 목록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2] 15세기 이후 한글 자료 목록

문헌명	간행연도	약호
석보상절	1447	석보

1) 물론 본고에서 주요 대상으로 삼은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 6종 이외에도 안병희(1992)에서 소개된 10세기 중엽 균여의 『釋華嚴敎分記圓通鈔』(줄여서 『釋華嚴敎分記』라고도 함)가 존재하며 아래와 같다.

> 或有如 佛性隱 闡提人隱 有豆亦 善根人隱 无如好尸丁
> (혹 잇다 佛性은 闡提人은 잇두여 善根人은 업다홇뎌)
> 或有如 佛性隱 善提人隱 有豆亦 闡根人隱 无如好尸丁
> (혹 잇다 佛性은 善提人은 잇두여 闡根人은 업다홇뎌)
>
> <釋敎分記 3 : 29> (독법 필자)

그러나 위와 같이 2문장이 전부이기에 따로 문헌에 대한 정보를 싣지 않으며 본 연구의 주요 자료인 자토석독구결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2) 시기는 구결자를 기입한 시기를 말하며 『자비도량참법』 권14를 제외한 나머지 5종의 시기는 남풍현(1998)을 따르며 『자비도량참법』 권14의 시기는 남권희·남경란(2016: 200-201)을 따른다.

월인석보	1459	월석
능엄경언해	1461	능엄
법화경언해	1463	법화
원각경언해	1465	원각
관음경언해	1485	관음
두시언해, 초간본	1481	두초
구급간이방	1489	구간
신선태을자금단	1497	신선
장수경언해	15--	장수
박통사언해	1677	박언
박통사신석언해	1765	박신

본 연구는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통상적으로 국어사 분야에서는 언어 자체를 기준으로 시대를 나누므로 '고려시대'와 같은 일반 역사학계 용어를 쓰지 않는다(최성규 2016: 7-8). 이에 따라 '고대 한국어'나 '전기중세 한국어'와 같이 언어 사실을 바탕으로 시대를 구분하려 하였으나 자토석독구결이 시기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중성으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남풍현(1993) 이후로 최근 국어사 연구에서는 13세기 중후반까지의 자료인 자토석독구결과 그 이후의 여말 선초 음독구결 사이에 모종의 언어적 경계를 두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이는 자토석독구결의 언어 사실과 13·14세기 음독구결의 언어 사실이 시기적으로 불과 몇 십 년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확연히 다른데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 자료는 더 이전 시기인 삼국시대 차자표기 자료인 이두나 향찰에 더 가까우며 13·14세기 음독구결의 언어 사실은 15세기 한글 자료와 가깝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토석독구결 당시의 언어 사실을 고대국어 혹은 근고대한국어로 칭하는 견해가 존재한다(남풍현 1993, 장윤희 2006, 문현수·허인영 2018).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따라 본 연구의 제목에 '고대한국어'를 포함하면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다루는 자료적 한계가 있기에 부담이 있으며 일반적이지 않은 명칭인 '근고대한국어' 역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적 한계점에 기인하여 학계의 통설인 이기문(1998/2001)의 시대 구분을 참

조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언어를 명명하였다.

국어사의 시대를 구분하는 통설인 이기문(1998/2001)에 따르면 고대국어(삼국~남북국시대), 중세국어(고려시대~16세기), 근대국어(17~19세기), 현대국어(20세기~현재)까지 넷으로 나뉜다. 그리고 중세국어 시기를 14세기에 일어난 현저한 모음 체계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전기 중세국어(여말 선초)와 후기 중세국어(한글창제 이후)로 나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의 시기를 고려한다면 위 시대구분 상 '전기 중세국어'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언어에 대해 '전기중세 한국어'라 명명하겠다.

1.3. 연구 방법 및 논의의 구성

연구 대상이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 자료인 만큼 자료의 수가 제한적이기에 ‘ㅇ’에 해당하는 용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연구 대상인 자토석독구결 6종에 대해서는 『석독구결사전』(황선엽 외 2009)에 부록으로 실린 ‘석독구결사전_자료원문’과 고려대학교 장경준 교수의 자토석독구결 전산자료인 ‘sktot_2015_07’과 ‘sktot_2019_01’을 이용하여 해당 용례를 추출하였다. 이때 구결자 ‘ㅇ(ㅎ)’와 이를 포함하고 있는 구결자 ‘ㅇ(호)[3]’ ‘ㅎ(히)’를 검색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ㅇ’에 대한 표본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본 연구에서 모든 ‘ㅇ’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또한 모든 자토석독구결 예문에 현대어역을 붙였다. 석독구결 자료는 국어사 전공자에게도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이다. 한편 15세기 이후 한글 자료의 예문에는 현대어역을 붙이지 않았다. 자토석독구결 예문은 문헌별로 『화엄경소』 권35는 안대현(2013)을, 『화엄경』 권14는 김성주(2013)을, 『구역인왕경』 권상은 황선엽(2013)을, 『합부금광명경』 권3은 이용(2013)을, 『유가사지론』 권20은 장경준·오민석·문현수·허인영(2015)를 따랐으며 『자비도량참법』 권4의 현대어역은 ‘sktot_2019_01’에서 제공하는 번역본을 참고하였다.[4]

본 연구는 ‘ㅇ’에 대하여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ㅇ’와 문장 형성에 참여하는 ‘ㅇ’로 분류하여 논지를 전개한다. 이와 관련한 기본적 논의는 2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우선 각각 해당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를 기반으로 ‘ㅇ’를 검토하기 이전에 확립해야할 기준과 개념을 설정한다.

단어 형성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전기중세 한국어 시기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ㅇ’에 어근이 결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파생접미사의 문법적 기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다. 아울러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ㅇ’에 대하여 단순하게 파생접미사로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 한다. 당시 자토석독구결에서 단어 형성에

---

3) ‘오’로 분석되는 용례는 제외하였다.

4) ‘sktot_2019_01_textD(번역본)’의 안내에 『자비도량참법』 권4 낙장본의 전반부(17-18장)는 문현수 작성, 후반부(19-21장)은 허인영 작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반부의 용례만을 다뤘기에 해당 현대어역에 대해 허인영(2019)로 인용하였다.

참여하는 ‘ㅺ’가 600여 개에 달하는 어근에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한다. 이처럼 제한적으로 어근에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없이 매우 다양한 어근에 생산적으로 결합하는 모습이 마치 현대 한국어의 외래어를 임시적으로 수용하는 단계에서 ‘-하-’를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전기중세 한국어의 ‘ㅺ’에 대하여 임시어 형성소[5]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문장 형성과 관련하여서는 문장 형성에 참여하는 ‘ㅺ’에 대해 ‘아우름 동사’, ‘대동사’, ‘보조 동사’로 파악하여 각 분류의 틀을 기반으로 문장 형성에 참여하는 ‘ㅺ’를 검토해야 하기에 각각의 설정 기준을 확립하였다.

2장에서의 기본적 논의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ㅺ’에 대하여 임시어 형성소로서의 문법적 위상을 확인한 뒤 결합하는 어근을 한자어 어근과 고유어 어근으로 나누어 문법적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동사의 설정 기준에 따라 문장 형성에 참여하는 ‘ㅺ’를 검토하고 또한 각 유형에서 구문별 특이점을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 5장에서는 전체 논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5) 2.2.2.에서 상술하겠다.

2. ‘ㅇ(ㅎ)’ 분류

2.1. 단어 형성과 문장 형성에서의 양상

전기중세 한국어 ‘ㅇ’를 사용한 단어 형성 문제에 관해서는 장윤희(2006)가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장윤희(2006)에서는 고대국어에서의 파생 접미사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 동안 자료적 한계로 인해 남아있던 큰 연구사적 공백을 메웠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이들이 반영하고 있는 고대국어의 파생 접미사 형태 및 체계, 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천착하였는데 주로 부사 파생접미사와 사동접미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고 ‘ㅇ’에 대해서는 동사 파생접미사와 형용사 파생접미사로 분류하였지만 명확한 설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어근 뒤에 결합하는 모든 ‘ㅇ’를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ㅇ’의 표본으로 삼는다. 이때 어근은 음독하는 한자어 어근과 훈독하는 고유어 어근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그리고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ㅇ’와는 달리 다른 요소에 의존해서 쓰이지 않는 ‘ㅇ’에 대해서 문장 형성에 참여하는 ‘ㅇ’의 표본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경우는 ‘ㅇ$_1$’로, 문장 형성에 참여하는 경우는 ‘ㅇ$_2$’로 칭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아울러 ‘ㅇ$_2$’는 ‘동사’로 처리하고 그 문법적 기능에 따라 ‘아우름 동사’, ‘대동사’, ‘보조동사’로 나누어 살펴본다.

2.2. 단어 형성 관련 문제

본 장에서 설정한 기본적 논의를 토대로 3장의 용례들을 검토해야 하므로 우선 2.2.1에서는 ‘ㅇ1’이 어근에 결합하여 파생접미사로서 기능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ㅇ$_1$’에 대해 단순하게 파생접미사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임시어를 형성하는 요소로까지 파악하고자 하며 이는 2.2.2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2.2.3.에서는 ‘ㅇ1’을 파생접미사와 임시어 형성소로 설정한 문제와 관련하여 상술하도록 하겠다.

2.2.1. 어근 결합 여부

본 항에서는 ‘ㅅ$_1$’이 실제로 어근에 결합하여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어근’의 개념은 이익섭(1975)를 따른다. 이익섭(1975)에서는 어근을 굴절접사와 직접 결합될 수 없으며 동시에 자립형식도 아닌 단어의 중심부로 정의하고 있다.[6)]

자토석독구결에서 ‘ㅅ’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출현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1) 가. 云何ㅅㄱㄹ 十種ㅌ 瑜伽ㄹ 修習ㅅㅎ 對治ㅇㅠ 所ㅌ 法ㅐㅣㅇㅎㅁ <유가 08:04-05>

(추정 독법: 엇ᄒᆞᆫ을 十種ㅅ 瑜伽을 修習ᄒᆞ아 對治홇 밧 法이다호리고)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어떤 것을 열 가지의 ‘유가를 닦아 익혀 대치해야 할 바의 법’이라 하는가?)

나. 일후미 大涅槃이니 ᄒᆞ다가 比丘ㅣ ᄌᆞ조 定과 慧와 捨왓 相을 修習ᄒᆞ면 곧 三相이라 <원각하2-1:59>

다. 현정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공부했다.

먼저 (1)에서 ‘ㅅ$_1$’는 ‘修習’에 결합하였는데 이때 추정독법과 현대어역을 참고하면 ‘修習ᄒᆞ-’ 전체가 ‘닦아 익혀’로 옮겨지며 ‘十種ㅅ 瑜伽을’를 논항으로 취하는 동사로 기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마찬가지로 15세기 용례인 (1나)에서 ‘修習ᄒᆞ-’가 ‘定과 慧와 捨왓 相을’을 목적어로 취하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때 (1나)에서 ‘修習’에 결합한 ‘ᄒᆞ’는 파생접미사로서 한자 어근에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한다. 또한 더 나아가 현대 한국어의 용례인 (1다)에서 ‘공부’에 결합한 ‘-하-’와도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1가)에서 ‘ㅅ’에 결합한 ‘修習’ 역시 어근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때 ‘ㅅ’는 파생어를 형성하고 (1나, 다)의 그것과 동일하게 논항을 취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마

6) 어간의 경우 이익섭(1975)에서는 굴절접사와 직접 결합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중심부로 정의하였다.

찬가지로 파생접미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가)의 'ㅅ'는 본 연구에서 분류한 어근에 결합하여 단어형성에 참여하는 'ㅅ$_1$'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가. 其 生起ㅅㄱ 僧所作事ㄹ 隨ㅣ 善品ㄹ 棄捨ㅅㅁ 數ㅢ 衆會ㄹ 與ㅌㅅㅎ <유가26:06-07>

(추정 독법: 其 生起ᄒᆞᆫ 僧所作事을 좇오 善品을 棄捨ᄒᆞ고 數이 衆會을 다ᄆᆞᆺᄒᆞ며)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그 생겨난 승소작사를 좇아 선품을 버리고 자주 대중과의 모임을 함께하며)

나. 곧 이제 즈믄가짓 슬푸미 오직 믈와 다ᄆᆞᆺᄒᆞ야 東ᄋᆞ로 흘러 가ᄂᆞ다 <두초 8:34>

(1가)의 '修習'과 같이 한자어 어근에 결합하면 어근을 음독한다. 하지만 (2가)의 경우는 'ㅅ'가 '與ㅌ'에 결합하였는데 '與ㅌ'은 한자의 의미와 말음 첨기인 'ㅌ'의 음가를 고려하였을 때 훈독하여 (2나)와 같이 15세기 한국어에서 문증되는 '다ᄆᆞᆺ'으로 독법을 추정할 수 있다. (2나)가 바로 '다ᄆᆞᆺᄒᆞ-'에 해당하는 예인데 이처럼 'ㅅ$_1$'는 (1가)와 같이 음독하는 어근에 결합할 수도 있지만 (2가)의 '與ㅌ'처럼 훈독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2가)의 'ㅅ'는 고유어 어근에 결합하는 'ㅅ$_1$'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ㅅ'는 다양한 요소와 결합하는데 아래와 같다.

(3) 가. 一ㅏㄱ 未調ㅅㄹ 未順ㅅㄹㅅㅈ 而ㅟ 死ㅣㅁㅌ 雜染 相應ㅅㅎ <유가21:01-02>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첫째는 미처 조절하지 못하고 미처 따르지 못하고 하여 죽는 잡염과 상응하며)

나. 그제ㅅㅏ 舍利弗이 虛空애 올아 거르며 셔며 안ᄌᆞ며 누ᄇᆞ며 ᄒᆞ고 <석상6:33b>

(4) 가. 大小便ㄹㅅㅊㄱ 時ㅏㄱ 當 願 衆生 貪瞋癡ㄹ 棄ㅅㅁㅅ 罪ㅌ 法ㄹ 蠲除ㅅㅌㅗㅂ <화엄04:12>

(김성주(2013) 현대어역: 大小便을 할 때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중생은 貪瞋癡를 버리고서 죄를 제거하소서)

나. 그 머근 後에ᅀᅡ 물보기를 ᄒᆞ니 남진 겨지비 나니라 <월석 1:43>

(5) 가. 又 无嫉ㅣㄱㅏㅂㅅ 依ᄒᆞㅣㄱㅏㅂㅅ {於}自ㅣ 身ᄒᆞㅣㅅㅣㄱㅏㅂㅅㅇㅡㄱ 如ᄒᆞ {於}他ㅣㅅㅣㄱㅏ 亦 尒ㅎㅡㅇᄋᆞ <유가28:15-16>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또 질투가 없는 것을 의지하여 하되 자기의 몸에 대해 하는 것을 함과 같이 남에게 하는 것도 또한 그렇게 하며)

나. 이ᄂᆞᆫ 비밀ᄒᆞᆫ 방문이라 ᄂᆞ물 알외디 몯ᄒᆞ리니 내 샹녜 ᄡᅥ ᄒᆞ니 ᄀᆞ장 됴타 (此秘方不傳余常用大效) <구간 1:27>

(3가)의 'ㅇ'는 '未順ㅇㅡㄹ'에 결합하였고 (4가)는 '大小便ㄹ', (5가)는 '依ᄒᆞ'에 결합하였다. 이들은 (3나), (4나), (5나)를 참고하면 각각 연결어미와 목적격조사에 결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어근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때 'ㅇ'는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ㅇ$_1$'으로 보기 어려우며 문장을 형성하는 'ㅇ$_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2.3에서 상술하겠다.

정리하자면 자토석독구결에서 'ㅇ$_1$'은 (1가)와 같이 한자어 어근과 결합할 수도 있으며 (1나)와 같이 고유어 어근과도 결합할 수 있다.[7] 아울러 (1)과 (2)에서 후기중세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와의 문법적 양상을 비교함으로서 전기중세 한국어의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ㅇ'에 대해 파생접미사로서의 문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며 이는 어근과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한다는 사실까지는 크게 이견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이 중에서 (1가)와 같이 음독하는 어근, 다시 말해 한자어 어근에 결합하여 형성된 모든 어형을 일반적으로 어휘부에 등재된 단어라든지[8], 어휘화[9] 혹은 단일어화[10]를 거친 단어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자어근에 결합한 경우가 고유어 어근에 결합한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어근에 제약 없이 생산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7) 'ㅇ$_1$'이 한자어 어근과 고유어 어근에 결합하는 양상은 3.1에서 상술하겠다.
8) 이광호(2009), 정한데로(2013, 2015)
9) 송철의(1992)
10) 이현희(1991)

(6) 가. 형준이의 가게는 매일 오전 8시에 오픈한다.
나. 스마트한 최사원은 언제나 업무능력이 뛰어나다.

이는 마치 현대 한국어에서 외래어가 한국어 체계에 유입될 때 파생접미사 '-하-'와 결합하여 (6가)의 '스마트하다', (6나)의 '오픈하다'와 같이 단어를 형성하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제약 없이 한국어의 체계로 유입시키고자 하는 외래어를 명사 어근으로 인식하여 파생접미사 '-하-'를 매우 생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전기중세 한국어의 'ㅇ$_1$'의 특징에 주목하여 그 결과물인 파생어의 단어적 위상을 고려해본다면 이는 '임시어[11]'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항에서는 임시어 형성과 관련된 'ㅇ'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이광호(2009), 정한데로(2011, 2013, 2015), 구본관(1998).

2.2.2. 임시어 형성

앞서 단어형성에 참여하는 ‘ㅇ$_1$’에 대하여 어근이 결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 과정의 결과물인 파생어가 현대 한국어에서 외래어가 한국어에 유입될 때의 양상과 유사함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임시어’에 가까움을 언급하였다. 본 항에서는 이처럼 제약 없이 한자 어근에 결합하는 ‘ㅇ’의 모습이 현대 한국어의 외래어 어근에 ‘-하-’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것과 유사한 현상임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임시어 형성 관련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미 많은 선행 연구에서 현대 한국어의 외래어 및 한자어가 한국어 체계로 유입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하-’에 대한 특성을 언급하였다. 원대성(1985: 22)는 한자어는 대부분 ‘하다’에 의존하여 국어의 질서 속으로 수용된다고 할 수 있으며 어근의 기원은 다양하지만 국어 안으로 수용될 때 ‘하다’를 붙이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곧바로 국어에서 명사로 적응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다’가 결합되어 동사나 형용사로 존재한다. 또한 한자어뿐만 아니라 외래어의 수용에 있어서도 ‘하다’는 원래 동사나 형용사로 상적 특성을 지닌 외래어들을 국어의 질서 속에 쉽게 동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노명희(1990: 51)에서는 ‘하다’는 고립어인 한자어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던 단어를 고유어 문장 내에서 서술기능을 갖게 하는 고유어화 기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중국어에서 원래 동사나 형용사로 기능하던 것을 국어 문장 내에서 활용시키기 위해 ‘하다’가 연결되었음을 언급하였다. 마찬가지로 이광호(1997: 524, 538)에서도 외래어 요소가 포함된 단어 형성에 대하여 영어와 국어의 언어 체계상의 이질성으로 인해서 국어의 어휘 체계 안에서는 비자립적인 어근 자격밖에 갖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한자어 어근의 경우에서도 중국어에서는 어간의 자격을 갖지만 국어의 일원으로는 어근의 자격밖에 갖지 못하고 이에 고유어 접사 ‘-하-’가 결합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때 ‘-하-’에 대해서 외래어 요소를 고유어화 해주는 기제로 파악한 것이다. 이를 종합한다면 단어형성에 참여하는 ‘ㅇ’는 현대 한국어에서 외래어 요소와 결합하여 한국어에 유입시키는 ‘-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고유어

화 기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ㅅ’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는 단어로서 어떠한 지위를 갖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어의 체계에 유입시키는 ‘고유어화 기제’로 단순하게 파악하기에는 대부분의 한자 어근에 결합하여 지나치게 생산적으로 형성되는 현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12)]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토석독구결과 불교 교육 간의 관련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불가에서는 독특한 경문 교육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한문 불경에 직접 吐를 다는 것이다. 특히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불경에 한자의 생획자인 자토를 달아 한문의 문장 구조를 우리말 문장 구조로 바꾸어 문장의 의미를 풀이하였고 경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교육하였다. 다시 말해 불경의 한문 문장을 완전한 우리말 문장으로 치환하여 경문의 의미를 교육하고 학습한 것이다(이승재 2005: 26, 37, 41-42, 47).

이러한 불가의 경문 교육의 산물 중 하나가 본 연구에서 중심으로 다루는 자토석독구결 자료인 것이며 현토된 구결자는 한문으로 된 불경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도입하는 과정의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그렇기에 수많은 한자 어근에 제약 없이 ‘ㅅ’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가 모두 당시 사람들의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Bauer(1983)의 ‘단어의 역사 3단계’와 이광호(2009)의 ‘임시어’에 주목하여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의 윤곽을 그려보고자 한다.

(1) Bauer(1983:45-50) 단어의 역사 3단계

임시어 형성 (nonce formation)		공인화 (institutionalization)		어휘화 (lexicalization)
화자의 즉각적인 필요에 의해 순간적으로 새로운 복합어가 만들어지는 첫 단계	→	임시어가 발화 공동체 내에서 수용되는 단계	→	언어체계상의 변화로 특정 단어가 생산적인 규칙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단계

12) 정은균(2009: 165)에서는 현대국어에서 그 쓰임이나 생산성이 제한적인 ‘어근+하’ 구성이 석독구결 시기에는 비교적 널리 쓰이는 생산적인 형식으로 활용됨을 지적하였다.

(2) 이광호(2009: 19)의 임시어

①생산성 있는 접사가 만들어낸 단어로서 ②이후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서 어휘부에 등재되어 실제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용되지 않아 발화 후 곧바로 사라질 수도 있는 단어 (밑줄 필자)

위의 (1)에서 제시한 Bauer(1983)의 단어 형성 단계를 적극 수용하되 본 자료의 특성에 맞게 '임시어'의 정의와 '어휘화'의 정의를 부분적으로 조정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1)의 Bauer(1983)의 단계에서는 '임시어 형성'의 단계는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정확한 '임시어'의 정의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의 이광호(2009)의 '임시어'를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안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임시어의 정의는 필자가 표시한 번호대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들을 검토해야 온전히 해당 개념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생산성이 있는 접사가 만들어낸 단어'라는 정의에서 본 연구의 'ㅇ$_1$'이 다양한 어근과 제한 없이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양상을 고려할 때 (2)의 '생산성이 있는 접사'는 'ㅇ$_1$'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후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서 어휘부에 등재되어 실제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용되지 않아 발화 후 곧바로 사라질 수도 있는 단어'라는 정의에서 어휘부 등재 여부에 따른 실제어로서의 존재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은균(2009: 165)에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토석독구결에서 주로 '1음절 한자어 + ㅇ'의 형식에 대해서 이러한 어휘 사용 방식이 전체 텍스트에 걸쳐 매우 생산적으로 쓰이며 해당 시기를 지나면서 15세기 한글문헌에 동일하게 문증되고 일부는 원래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현대 국어 시기에 사용되는 점을 언급하였다.

(3)

①전기중세 한국어	→	②후기중세/근대 한국어	→	③현대 한국어
願ㅅ-		願ㅎ-/원ㅎ-		원하-

정리하자면 (3)과 같이 '1음절 한자어 + ㅅ'의 임시어가 현대 한국어에까지 원래의 형식을 유지하며 사용되는 경우에는 우리말 어휘 체계에 편입된 것이라는 주장이다.[13]

그러나 본고에서는 우리말 체계 내에 편입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기중세 한국어 시기 당시에 임시어가 형성되고 이것이 해당 어휘부에 등재되어 실제어로서 존재하는지를 확인함으로서 임시어를 형성하는 'ㅅ$_1$'의 문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에 우리말 체계 편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임시어의 등재 여부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확인해야 할 문제가 존재하는데, '어휘부'의 설정과 '등재 기준'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먼저 어휘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한데 '개인적·미시적 차원'과 '사회적·거시적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기중세 한국어의 자료인 자토석독구결은 전기중세 한국어의 모습을 가장 근접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당시 개인의 언어 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에 맞는 어휘부 모형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단어 형성의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1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어형성에 관하여 오로지 'ㅅ$_1$'에만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기에 단어형성의 여러 복합적인 양상을 고찰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어느 정도 개인 화자의 직관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당시 전기중세 한국어 화자의 직관을 알 수 없는 현실로서는 개인적·미시적 차원의 어휘부를 설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는 다르게 정한데로(2013: 225-22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임시어가 발

13) 이는 물론 '1음절 한자어' 어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다음절 한자어 어근'에도 해당될 수도 있겠다.

14) 어휘부 모형은 어휘 부분으로서의 어휘부 모형(채현식 1994, 구본관 1998, 시정곤 2001, 황화상 2001)과 저장 장소로서의 어휘부 모형(박진호 1994, 송원용 1998, 채현식 2003, 송원용 2005, 채현식 2007)이 존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최형용(2013)을 참고할 수 있다.

화 공동체 내에서 '공인화'되는 것을 사회적·거시적 차원의 등재 과정으로 파악한다면 해당 과정도 '개인적·미시적 차원'의 등재와 마찬가지로 '등재'의 틀 안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며 발화 공동체 구성원 다수가 공인하는 어휘의 목록, 즉 '사회 어휘부'의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휘부에 대해 위의 '사회 어휘부'를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등재 기준에 대해서도 어휘부를 '사회 어휘부'로 설정한 것에 맞추어 논의해야 할 것이다. 먼저 'ㅇ$_1$'이 형성하는 단어에 국한하여 등재 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해당 단어 내적으로 같은 어근에 다른 어근에 'ㅇ' 이외에 다른 어떤 파생접미사가 생산적으로 결합하는지 또는 저지현상이 일어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채현식 2003). 혹은 등재된 단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인 자토석독구결에서는 현대 한국어에서 다양한 용언파생접미사가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오로지 'ㅇ$_1$'만 용언파생접미사로 존재하며 전기중세 한국어에 연구자의 직관을 개입할 수도 없기에 이러한 단어 내적인 형성 과정을 통해서는 그 기준을 확립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거시적·사회적 차원의 사회 어휘부보다는 미시적·개인적 차원의 개인 어휘부에 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사회 어휘부'에 등재되는 기준을 설정하는 만큼 언어 외적 등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자토석독구결을 고려할 때 사회 어휘부 등재에 대해서 언어 외적 기준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어휘적 강도'(lexical strength)[15]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어휘적 강도는 형성 이후의 사용 과정에서 획득되는 사회적 공인 수준이나 출현 빈도 증가에 의해 강화된다(정한데로 2009: 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회 어휘부 등재의 기준으로 '어휘적 강도'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문증되는 빈도수를 측정하여 등재 여부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3)에서 ①에 해당하는 전기중세 한국어 시기의 자료에 한정하여 단어가 문증되는 빈도수를 측정하고 상대적인 척도를 통해 어휘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16] 추가적으로 전기중세 한국어 이후시기에 해당하는 자료인

15) Bybee(1985: 117-118), 채현식(1994: 12-13)
16) 상대적인 척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사회 어휘부 등재의 기준이 '어휘적 강도',

②단계와 ③단계의 자료는 전기중세 한국어 당시의 어휘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기에 어디까지나 참고 사안으로 다루고자 한다.[17] 지금까지 확인한 (2)와 관련된 사안들을 참고한다면 해당 임시어의 정의를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는 (1)의 '공인화(institutionalization)' 단계를 살펴보겠다. 공인화는 '임시어가 발화 공동체 내에서 수용되는 단계'로서 위에서 살펴본 불교 교육과 자토석독구결 간의 상관성을 고려한다면 임시어로서 형성된 단어가 어휘부에 등재되기 이전에 거쳐야하는 단계로서 설정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18]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인 '어휘화(lexicalization)'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한데로(2015: 22)에서는 국내 문법 연구에서 어휘화를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정리하였는데 첫째는 복합어 내부의 경계가 불투명해지는 현상으로 파악하는 입장(Bauer 1983, 김성규 1987, 송철의 1992), 둘째는 '문법화'와 반대 방향에서 문법 형태가 어휘 형태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안주호 1997), 셋째는 어휘부 밖의 요소가 어휘부에 등재되는 현상으로 보는 입장(박진호 1994, 송원용 1998)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용한 임시어의 정의를 고려한다면 해당 어휘화의 단계에 대하여 셋째 개념의 '어휘화'를

즉 빈도수에 있기 때문이다. 'ㅇ$_1$'이 형성하는 파생어는 총 556개인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단어는 70여 회 가까이 문증되나 그 수가 매우 적고 또한 10(±1)회 이상 문증되는 단어로 기준을 잡아도 오로지 44개의 단어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만약 이때 등재 기준을 '10회 이상 문증'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상정하고 이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머지 512개의 단어는 임시어에서 실제어로 등재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단어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8회 문증된 경우는 단 1-2회의 차이로 등재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기술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절대적인 기준을 통해 등재여부를 설정한다면 많은 용례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우며 자칫 지나치게 획일화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인 기준을 통해 50회 문증이 되면 단 1회 문증되는 경우보다 어휘적 강도가 높으며 사회 어휘부에 등재될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3.1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단 1회 문증되는 '往趣ㅇ-<유가 16:22>'는 50회 가까이 문증되는 '作ㅇ-'보다 등재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임시어 혹은 공인화 단계에 머물다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문증되는 빈도수의 상대적인 차이를 통해 사회 어휘부에 등재되는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ㅇ$_1$'이 임시어를 형성한다는 문법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7) 이와 관련된 내용은 3.1.에서 상술할 예정이다.

18) 다시 말해 공인화는 불교 교육의 일환으로 형성된 임시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휘화를 겪는지에 대한 중간 단계로서 설정한 것이다. 또한 어디까지나 어휘부 등재여부를 상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만큼 공인화와 같은 중간 단계를 설정한다면 보다 정밀한 기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19]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토석독구결에서의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ㅇ$_1$'는 임시어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ㅇ$_1$'에 대하여 이를 단순하게 어근에 결합하는 파생접미사로 설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임시어를 생산적으로 형성하는 문법 요소'인 것에 착안하여 이를 '임시어 형성소[20]'로 파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적극 수용하여 본 연구의 대상에 적합한 단어 형성 단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 단어 형성 단계

임시어	→	공인화		어휘화	→	실제어
한자 어근과 **임시어 형성소**가 결합하여 **임시어**를 형성한 후 불교 경전 교육 목적으로 인한 **공인화**를 거침			⇨	공인화를 거친 임시어가 전기중세 한국어 시기에 문증 되는 빈도가 높은 경우 **어휘부에 등재**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실제어**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3.1.에서는 임시어 형성소인 'ㅇ$_1$'를 통해 만들어진 임시어가 어느 정도 실제어로 등재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등재 여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유형들의 특징 또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당시 임시어 형성소로서의 'ㅇ$_1$'의 문법적 지위를 확인할 것이다.

19) 이광호(2009)의 임시어 정의를 수용하는 만큼 어휘화의 정의 또한 이광호(2009)의 그것과 동일하다.

20) '단어 형성에 생산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소'라는 고영근(1992)의 이론을 수용한 것이다. 자토석독구결에서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ㅇ'는 단순히 파생어를 형성하는 파생접미사로 볼 수도 있겠지마는 해당 파생어는 자료의 특성상 확인되는 임시어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토석독구결의 임시어 형성에 참여하는 'ㅇ'에 대한 특수성을 지시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다.

2.2.3. 접사와 형성소

앞서 2.2.1에서는 ‘ㅇ$_1$’이 어근에 결합하여 ‘파생접미사’로서 단어를 형성하는 양상을 확인하였고 2.2.2.에서는 ‘ㅇ$_1$’이 어근에 결합할 때 제약 없이 대부분의 어근에 생산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에 주목하여 ‘임시어 형성소’를 설정하였다. 본 항에서는 이처럼 ‘ㅇ$_1$’에 대해 ‘파생접미사’와 ‘임시어 형성소’, 이 두 가지로 설정한 이유를 논증과 관련하여 밝히고자 한다.

먼저 ‘ㅇ$_1$’을 ‘파생접미사’로 설정한 것은 다분히 후기중세 한국어의 문법을 고려한 기술이다. 안병희(1959)에서 구조문법적 형태론에 입각하여 본격적으로 중세 한국어를 연구한 성과가 나타났으며 기존에 굴절과 파생의 구별 없이 ‘보조어간’으로 다루어 졌던 최현배(1937)와 달리 사·피동 접미사들을 파생접미사로 새롭게 해석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

다시 말해 ‘ㅇ$_1$’을 ‘파생접미사’로 설정하는 것은 구조문법적 형태론에 기반을 둔 이론인 동시에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입장이다. 물론 ‘ㅇ$_1$’을 파생접미사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파생접미사로만 ‘ㅇ$_1$’를 파악하는 것은 단편적인 기술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며 ‘ㅇ$_1$’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의 확장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시각에서 조금 고개를 돌려 ‘ㅇ$_1$’가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약 600여 개의 어근에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모습과 현대 한국어에서 외래어를 수용할 때 해당 외래어를 명사 어근으로 인식하여 ‘-하-’를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모습 간에 강한 유사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ㅇ$_1$’이 형성한 무수히 많은 단어들이 모두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바라보기는 어려우며 다수는 임시어로 존재하다 소멸하는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다소 구조문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생성문법적인 시각으로 ‘ㅇ$_1$’을 검토하여 ‘임시어 형성소’라는 설정을 하였다.

이때 ‘형성소’는 고영근(1992, 1993: 28-42)에서 도입한 이론으로 ‘단어 형성에 적극적·규칙적·생산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소’로서 어휘부 등재를 논하는 생성문법적 시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적극 수용한 개념이다. 이 이론에서 ‘단어 형성소’ 역시 ‘ㅇ$_1$’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개념이나 임시어의 형성과 소멸, 그리고 어휘부 등재 등의 논의에 보다 적합하도록 필자가 ‘임시어 형성

소'로 설정한 것이다.[21]

구조문법적인 시각만으로 단편적이게 'ㅅ$_1$'을 천착하는 것보다는 생성문법적인 시각을 더해 보다 다각적으로 'ㅅ$_1$'을 바라보는 것이 더 깊고 본질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결국 'ㅅ$_1$'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파생접미사이고 어떤 경우에는 임시어 형성소라는 양분적인 시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이 두 개념은 같은 대상인 'ㅅ$_1$'을 지칭하는 것이며 단순히 시각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표3] 'ㅅ$_1$'에 대한 다각적 분석

대상	관점	개념
ㅅ$_1$	구조문법	파생접미사
	생성문법	임시어 형성소

정리하자면 [표1]과 같다. 사실 논증하는 과정의 순서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 먼저 일반적인 시각인 파생접미사로의 용례 검토 후에 임시어 형성소로서의 'ㅅ$_1$'의 문법적 위상을 확인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선 '임시어 형성소'라는 개념을 실제로 'ㅅ$_1$'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3.1에서 논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ㅅ$_1$'의 임시어 형성소로서의 문법적 위상을 확인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3.2에서 파생접미사의 용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ㅅ$_1$'이 '임시어 형성소'라는 문법적 특징을 기반으로 파생접미사로서의 용례들을 검토하여 'ㅅ$_1$'의 본질적인 특성과 더 나아가 음독구결의 'ㅅ'와 한글구결의 'ᄒᆞ'까지의 연관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22]

---

21) 이미 '형성소'라는 개념은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진호(1994)에서는 '통사 원자'가 '문장 형성소'와 가깝다고 하였으며, 노명희(1996/2005: 25, 각주17)에서는 한자 접미사에 대해 구성소와 형성소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고 김정남(2007)에서는 'X-대(臺)'형 합성어를 중심으로 한자어의 합성법을 논하며 형성소의 개념을 적극 활용하였다. 최근 고영근(2015)에서는 고유어는 물론 한자어 형성에까지 구성소와 형성소 이론을 적용시켰다.

22) 3.2.1에서 상술할 것이다.

2.3. 문장 형성 관련 문제

본 연구에서 분포적으로 분류한 ‘ㅅ$_2$’는 통사적으로 다른 요소에 의존하지 않는 요소로서 동사이다.[23] 이에 대하여 본장에서는 ‘아우름 동사’, ‘대동사’, ‘보조동사’에 대한 설정 기준을 확립하고자 한다.

2.3.1. 아우름 동사 설정 기준

아우름 동사는 명사구 또는 동사구 접속이 나열된 뒤에 맨 나중에 아우름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동사 ‘ㅅ-’를 지칭한다. 이는 이현희(1994: 29-54)에서 명사구 접속과 관련된 아우름 표현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박진호(1997: 124-125)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의 명사구와 동사구 접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표현의 동사, 뒤 아우름 동사의 ‘ㅅ-’를 설명하였다.
되

(1) 十号ㅣ ᄀᆞᆯ 三明ㅣ ᄀᆞᆯ 大滅諦ㅣ ᄀᆞᆯ <u>金剛智ㅣ ᄀᆞᆯㅅㅡㄱ</u> 釋迦牟尼佛ㄱ <구인 02:10>

(황선엽(2013) 현대어역 : 十號이며 三明이며 大滅諦이며 金剛智이신 釋迦牟尼佛은)

(1)과 같이 연결어미 ‘-ᄀᆞᆯ’로 나열되는 동사구가 나타나며 마지막의 ‘ㅅ’가 선행 동사구들을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표현으로서 동사로 사용된다. 이는 현대국어의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했다’와 비슷한 구조라 할 수 있다. 아우름 동사는 동사구뿐만 아니라 명사구에서도 나타난다. 다시 말해 이러한 구문적 특징에 기인하여 박진호(1997: 124-125)에서는 이현희(1994:29-54)의 ‘아우름 명사’의 아우름 표현을 바탕으로[24] ‘뒤 아우름 동사’를 명명한 것이다. 그 이전 연구인

---

23) 통사적으로 다른 요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ㅅ$_1$’이 어근에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한 후에 문장에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실과 대조적인 ‘ㅅ$_2$’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다.

24) 아래의 예문에서는 각각 ‘四相’, ‘二大’, ‘두 큰 龍王’, ‘이 네 하늘’이 선행하는 나열된 명사구를 아울러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아우름 명사구’라고 할 수 있다.

이은규(1997: 197)에서 (1)과 같은 동일 구문에 대해 선행 동사구들을 포함하여 다음 문장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논리스런 이음'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지적한 바를 토대로 그 이전에는 '아우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박진호(1998)에서 해당 논의는 재정립되었으며 황국정(2001ㄴ: 53)에서 '아우름 동사'로 언급되었다. 이어 비교적 최근 연구인 장윤희(2006), 이은규(2013), 최성규(2016) 등에서 (1)과 같은 구문에서 'ㅺ'를 '아우름 동사'로 재인용하며 일반적으로 '아우름 동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현희(1994) 이래 사용되는 '아우름' 표현을 수용하여 명사구와 동사구의 접속이 나열된 뒤 맨 나중에 이들을 아우르는 표현의 동사 'ㅺ-'에 대해서 '아우름 동사'라고 칭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가. 生 老 病 死 四相이 한 受苦ㅅ 根源이라 <월석 12:23>
나. 이럴씨 體 相 二大 다 일후미 本覺이니 <월석 11:69>
다. 그제 阿難 跋難陀 두 큰 龍王이 <월석 11:29-30>
라. 이 우희 또 四空處에 空處 識處 無所有處 非想非非想處 이 네 하ᄂᆞ를 無色界 四川이라 ᄒᆞᄂᆞ니라 <월석 1:35-37>

이현희(1994: 34)의 예문

2.3.2. 대동사 설정 기준

대동사와 관련된 논의는 대표적으로 '하다'에 대해 형식동사와 대동사의 기능을 설정한 서정수(19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형식동사는 선행 요소가 서술적 의미를 지닐 때 선행요소로 하여금 문법적 형식을 갖추는 것으로 정의하여 본 연구의 'ν_1'과 다소 그 기능이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동사는 선행 요소가 실질적인 서술 의미를 갖지 않을 때 특정한 의미의 추상적 서술어를 대신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본 연구의 'ν_2'의 대동사가 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서정수(1991)에서는 서정수(1975)를 재정비하여 '하다'의 기능을 문법 형식 대행 기능, 추상 동사 대행 기능, 선행 용언 대행 기능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형식동사를 문법 형식 대행 기능에 대응 시켰으며 대동사를 나머지 두 가지 기능에 대응시킨 것이다.

반면 이창덕(1984)에서는 모든 '하다'를 대동사로 처리하였으며 서정수(1975)의 형식동사에 해당하는 경우도 선행 요소로부터 직접적으로 서술 의미를 복사받는다고 하였다. 양명희(1990)에서는 선행어로 어떤 요소가 오는지에 따라 '하다'의 기능을 ①서술성 완결(Ⅰ) ②서술성 완결(Ⅱ) ③서술성 대행 ④서술성 이행으로 파악하였다. 그 중 대동사는 ②에 해당하며 Halliday-Hasan(1976: 89)의 '협의의 조응'과 '상황조응' 개념을 인용하여 서정수(1975)의 대동사는 '협의의 조응'과 '상황조응'을 모두 포함한 정의인 데 반해 이 중 '협의의 조응' 다시 말해 지시 표현이 문장 속에 있는 경우만을 대동사로 한정하여 정의하였다. 이 밖에도 송병학(1974)에서는 동작성 명사나 비동작성 명사를 동사화시키는 것을 대동사로 정의하였으며 심재기(1982)에서는 '하-'를 동사화소의 한가지로 보고 서술기능에 대한 대행소/완결소/이행소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연주(2017)은 '하다'와 관련된 가장 최신 연구이며 기존 서정수(1975, 1991)의 형식동사와 대동사 이론과 양명희(1990)의 서술성 완결/대행 이론을 바탕으로 대동사에 해당하는 일부를 대용어로 파악하여 현장지시사와 문맥지시사로 분류하였고 형식동사에 대해서는 서정수(1975)의 대동사 구문 중 특정 구문론적 구조 속에서 의미가 예견되는 '하다'의 경우까지 합쳐서 박진호(2008)에서 소개된 '자리채우미'로 분류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하다'가 쓰이는 자리의 어

휘적 성격, 즉 실질적인 어휘의 역할 유무에 주목하였다면 '하다'가 쓰이는 동기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김영희(1984)의 '포괄동사(generic verb)'를 설정하여 대동사설을 비판하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하다'에 대한 본 연구의 입장인 '문법적 기능'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어휘적 기능'에 바탕을 둔 이론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대동사에 대한 연구는 이와 같이 문법적 기능을 바탕으로 분류한 서정수(1975)의 견해를 일부 반영하거나 검토 및 수정하여 이어져 왔다. 본 연구의 대동사에 대한 입장도 이러한 연구사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새로이 대동사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연구 대상이 차자표기인 자토석독구결 자료인 만큼 해당 자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분석과 검토를 위해 세밀하게 조정할 따름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대동사 구문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서정수(1975)에서 '대동사'로 파악한 구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4 서정수(1975)에서 제시한 현대 한국어 대동사 구문 유형][25)]

분류	구문	용례
유형1	S -기{는/도/야…} 하다	철수가 착하기는 하다
	S -(고) 한다	철수가 착하다고 한다
	S -나 하다	철수가 일찍 오나 하다
	S -ㄴ가 하다	철수가 일찍 오는가 하다
	S -ㄹ까 하다	철수가 일찍 올까 하다
	S -으면 하다	철수가 일찍 왔으면 하다
유형2	S -기로 하다	철수가 일찍 오기로 하다
	S -고자 하다	철수가 일찍 오고자 하다
	S -려고 하다	철수가 일찍 오려고 하다
	S -게 하다	철수가 일찍 오게 하다
	S -도록 하다	철수가 일찍 오도록 하다
	S -어야 하다	철수가 일찍 와야 한다
유형3	실체 명사+하다	철수가 밥(을) 하다
유형4	척하다	철수가 잘난 척하다
	체하다	철수가 잘난 체하다

25) 정연주(2017: 36-37)에 제시된 구문을 재구성하여 본 연구의 논의에 맞춰 유형을 분류하였다.

	양하다	철수가 잘난 양하다
유형5	-어 하다	철수가 슬퍼하다

유형1은 크게 인용구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구문들이다. 이현희(1986)에 따른다면 '직접인용구문, 간접인용구문, 화자의 의심·의념을 나타내는 간접 의문' 정도에 해당하는 유형이다.[26][27] 유형2는 의도·목적 구문과 장형 사동구문이고 그 형식은 유형1의 인용구문과 유사하나 대동사 '하다'가 유형1은 발화 상황 또는 문맥에 따라 결정되어 그에 따라 구문의 유형이 결정되는 반면 유형2는 발화 상황 또는 문맥과 같은 요인이 아니라 '-고자, -려고, -게, 도록' 따위의 어미에 따라 구문의 유형이 정해지는 차이가 있기에 유사한 통사적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분류하였다.

유형3은 대동사 '하다'의 논항으로 실체명사가 선행하는 형식이다. 유형4는 서정수(1975)에서는 대동사로 파악하였으나 '하다'에 선행하는 명사 '척, 체, 양'이 모두 서술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동사라고 파악하기보다는 형식동사로 볼 가능성이 있다.[28] 유형5는 이른바 보조 용언 구성이나 중세한국어 시기부터 이미 '-어 ᄒᆞ-'가 하나의 구조체로 굳어져 사용되었고 이와 결합하는 어간의 성격에 따라 해당 구문의 의미가 다양하게 파악되기에 쉽게 대동사로만 규정하기는 어렵다.

위의 표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있는 유형4과 유형5를 제외하고 유형1 '인용 구문', 유형2 '의도·목적 구문', 유형3 논항을 취하는 '자·타동사 구문'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에서 검토할 대동사 구문의 유형으로 한정한

26) 이현희(1986)에서는 화자의 의심·의념을 나타내는 간접의문, 의도·목적구문이 간접인용구문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때 화법'을 '인용구문'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파악하였으며 막연히 '간접인용구문=간접화법'이라고 해서 인용구문과 화법을 등가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보다 '간접인용구문<내적 화법'으로 해서 내적 화법의 하위에 간접의문과 의도·목적구문을 포괄시켜 아래와 같이 한국어의 화법을 분류하였다.

한국어의 화법	내적 화법	화자의 의심·의념을 나타내는 간접 의문
		의도·목적구문
		간접인용구문
	외적 화법	직접인용구문

27) 이에 해당하는 구문에 대하여 고영근(1989 : 9)에서도 이미 대동사임을 시사하였다.

28) 해당 구문에 대해서 서정수(1991)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 유형4은 자토석독구결에서 거의 문증되지 않는 구문이고[29] 유형5는 그 용례가 많지 않으며 선어말어미 '-ㅋ-'로 분석할 가능성이 있는 문장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조동사'로 처리하여 4.3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ㅅ$_2$' 중 ①구문이 '인용 구문', '의도·목적 구문', '자·타동사 구문'에 해당하고 ②어근에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실현되며 ③기능적으로는 선행절에 등장하는 동사 또는 문맥적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동사를 대용하여 논항을 취하는 'ㅅ'를 대동사로 정의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9)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척하다', '체하다', '양하다'와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는 '듯하다'에 해당하는 유일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때의 'ㅅ'는 정확이 어떤 동사에 대응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동사라기보다는 형식동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幻師リ 幻法乙 見ア矣セソ ㅋ 諦實ㅠソロ ㄱ 卽ㄱ 皆セ 無ソ ㄱリ ㅋセ丨ソア入乙 名ㅋ {爲}諸佛セ 觀ㅎノ彳リ ㄱ 菩薩セ 觀カ 亦ソ ㄱ 然セソナ丨 <구인15:09-10>

2.3.3. 보조동사 설정 기준

일반적으로 보조 용언이라 하면 본용언에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 '-고' 등이 결합하고 그 뒤에 나타나는 용언으로서 화자의 발화에 양태 혹의 상적 의미를 더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이관규 1992, 손세모돌 1994, 이선웅 1995). 보조용언 연구는 주로 현대 한국어 화자의 직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에 현대 한국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중세한국어에서는 주로 '-어 ᄒᆞ-'에 의해 심리동사나 색채 형용사가 언제 형성되는지(안병희 1967, 이기문 1972, 김완진 1973) 혹은 간략하게나마 의미 기능을 밝힌 연구(이현희 1985, 1994)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장경준 (1998)에서는 중세 한국어 당시에 '-어 ᄒᆞ-' 통합 현상이 어간의 유형별로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처럼 동작성이 약한 용언에 결합하여 '동작성의 강화'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천착하였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중세한국어는 현대 한국어와 달리 직관에 의존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대부분의 결합 어간이 동사인 점에서 '-어 ᄒᆞ-'의 의미 기능을 확인하는 것은 심리형용사에 그쳤다. 그러나 이후 장경준(2002)에서 이전에 해결할 수 없었던 현상의 문제점을 재조명하며 그 범위를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 자료까지 확대하였는데 본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힘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적으로 보조동사의 구성은 현대에서는 '-어/아/야 하-', 후기 중세에서는 '어/아/야 ᄒᆞ-'이며 전기중세 한국어에서는 '-ㅈ ㅇ-' 의 구성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장경준 2002: 251). 장경준(1998)에서는 중세 한국어에서 '-어 ᄒᆞ-'에 결합하는 선행 용언을 심리용언과 비심리용언으로 구분하여 의미기능을 고찰하였는데 심리용언에 통합된 '-어 ᄒᆞ-'는 '동작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추정하였고 비심리용언에 통합된 '-어 ᄒᆞ-'의 일부는 '지속'이나 '시도'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본장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후자의 경우인데 이는 아래와 같다.

(1) 장경준(1998: 51-52)

가. 이ᄂᆞᆫ 비밀ᄒᆞᆫ 방문이라 ᄂᆞᄆᆞᆯ 알외디 몯ᄒᆞ리니 내 샹녜 ᄡᅥ ᄒᆞ니 ᄀᆞ장 됴타(此秘方不傳余常用大效) <구간 1:27>

가′. ᄇᆡ 안해셔 주근 아기 나디 아니호매 친히 ᄡᅥ ᄒᆞ니 ᄀᆞ장 됴터라(死胎不下者親試有效) <구간 7:26>

나. 이제 내 조초 <u>ᄡᅥ 보니</u> 여러가ᄌᆡᆺ 심이 아니 됴ᄒᆞ리 업거니와(今試諸瘧無不愈者) <신선 12>

장경준(1998)에서는 (1)의 용례를 살펴보았을 때 'ᄡᅥ ᄒᆞ다'나 'ᄡᅥ 보다'가 원문 '試'에 대응함에 따라 '시도'의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어 보-'가 그 의미를 담당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ᄡᅥ ᄒᆞ니'의 '-어 ᄒᆞ-'에도 '시도'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경우의 'ᄒᆞ-'는 현대 한국어의 보조용언 '보다'와 같은 의미기능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 주장에 주목한 이유는 전기중세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ㅭㅸ'에 대해서 중세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선행 어간이 모두 동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중세 한국어나 현대 한국어 심리형용사에 결합하여 '동작성을 강화'하였다는 설명은 전기중세 한국어에 적용시킬 수 없으며 같은 조건인 동사어간에 결합한 경우에 주목한 것이다.[30]

이러한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4.3에서 전기중세 한국어의 보조동사를 검토할 것이고 선행어간이 동사이며 해당 구성에서 '시도'와 같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31]

---

30) 물론 모든 'ㅭㅸ'가 보조동사의 구성인 '-어 ᄒᆞ-'는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따로 4.3에서 상술도록 하겠다.

31) 어떻게 보면 서정수(1975)의 견해대로 보조동사 구성 역시 대동사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4.2에서 확인하겠지만 대동사는 다양한 구문의 유형과 문맥에서 여러 동사를 대신한다. 그러나 보조동사 구성의 경우 반드시 'ㅭㅸ'라는 구조체로 인해 '시도'와 같은 양태적인 의미를 나타내기에 별개의 문법 범주로 처리하는 바이다. 이에 대해서는 4.3에서 상술을 통해 보충하도록 하겠다.

3.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ㅅ’

본 장에서는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ㅅ$_1$’에 대하여 우선 3.1에서 임시어 형성소로서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그 후 3.2에서는 ‘ㅅ$_1$’에 결합하는 어근을 크게 한자어 어근과 고유어 어근으로 나누어 각각의 문법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임시어 형성소

본 절에서는 임시어를 생산적으로 형성하는 문법 요소인 ‘ㅅ’에 대해서 ‘임시어 형성소’라 칭하고 2.2.2에서 설정한 단어 형성 단계를 바탕으로 실제로 임시어를 형성하고 이것이 어휘부에 등재되는 실제어로까지 도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임시어 형성소’의 문법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어휘적 강도가 가장 높은 부류부터 살펴보겠다.

(1) ‘不ㅅ－’(63회)

亦ㅅㄱ {於}衆生ㄱㅜ 而ㅠ 厭賤ㅇㅏㅅㄴㄷ 生ㅂㅏ 不ㅅㅜㅏㅅㄴㄷ {是}ㅂㄷ 名ㅜ 一切施ㅣㅇㅐㅜㅣ <화소12:18-19>

(안대현(2013) 현대어역: 또한 衆生에게 싫증을 내지 않는 것을 이를 일컬어 一切施라고 하는 것이다.)

(2) ‘入ㅅ－’(49회)

云何ㅅㄱㄷ 聖諦現觀ㅇㅜ 入ㅅㅏㅊㅣㅇㅗㅁ <유가20:09>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어떤 것을 성제현관에 드는 것이라 하는가?)

(3) ‘作ㅅ－’(42회)

爾ㅌㅅㄱ 時ㅜ 波斯匿王ㄱ 卽ㅇ 神力ㄷ {以}ㅇㅇ 八萬種ㅌ 音樂ㄷ 作ㅅㅡㅎ <구인03:04>

(황선엽(2013) 현대어역: 그때에 波斯匿王은 즉시 神力으로써 八萬 種의 音樂을 지으시며)

(4) ‘住ㅅㅡ’(40회)

{此}ㅣ 藏ㅇㅓ 住ㅅㅗㅁㅌㅓ 者ㅎㄱ 無盡智慧ㄹ 得ㅇㅗㅍ 普ㅣ 能ㅊ 一切 衆生ㄹ 開悟ㅅㅣㅁㅎㅓㅣ <화소20:04-05>

(안대현(2013) 현대어역: 이 藏에 머무른 이는 다함 없는 지혜를 얻어서 널리 일체 중생을 능히 깨치게 한다

위는 가장 많이 문증되는 4개의 단어들이다. 모두 ‘ㅅ$_1$’과 결합하는 어근이 1음절이며 40회 이상의 빈도수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5) ‘成就ㅅㅡ’(37회)

菩薩ㄱ {是}ㅣ 如ㅊㅅㅇ {等}ㅣㅅㄱ 量ㅣ 無ㅌㄱ 慧藏ㄹ 成就ㅅㅁㅇ <화소19:09-10>

(안대현(2013) 현대어역: 菩薩은 이 같은 등의 한량없는 慧藏을 成就하여)

(6) ‘相應ㅅㅡ’(26회)

彼 與ㅌ 俱行ㅅㅇ 彼 相應ㅅㄱ 想ㄹ 知ㅇㅎㅓㅣ 名ㅜ 光明想ㅡㅇㅐㅣㄱㄱ <유가11:06-07>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그것과 함께 더불어 작용하여[俱行] 그 상응하는 상을, 알아야 한다, 일컬어 광명상이라 하는 것이다)

(7) ‘修習ㅅㅡ’(26회)

又 復 佛隨念 等ㅅㄱㄹ 修習ㅅㅇㅗㅍ 心ㄹ 淸淨ㅅ{令}ㅣㅇ <유가25:01-02>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또 다시 불수념[32] 등을 닦아 익혀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며)

(8) ‘供養ㅅㅡ’(23회)

常ㅣ 諸ㄱ 衆生ㄹ 利樂ㅅㅇ 國土ㄹ 莊嚴ㅅㅇ 佛ㄹ 供養ㅅㅂㅇ <화엄09:14>

(김성주(2013) 현대어역: 항상 모든 衆生을 利樂을 누리게 하며 國土를 莊嚴하며 부

32) 불수념(佛隨念)은 부처님을 수념하는 것, 즉 염불하는 것을 말한다(장경준 외 2015: 335 각주 48).

처님을 供養하며)

위는 그 다음으로 문증 빈도가 높은 부류이며 'ㅅ$_1$'과 결합하는 어간은 대부분 2음절이다. 반면 아래의 용례들은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단 한 번씩만 문증되는 경우이며 어휘적 강도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9) '穢ㅅ-' (1회)

形ㅌ 穢ㅅㄱㅅㄴ 洗滌ㅅㅊㄱㅣㅓㄱ 當 願 衆生 淸淨調柔ㅅㅎㅅ 畢竟 垢 無ㅌㅍ <화엄04:14>

(김성주(2013) 현대어역: 몸의 더러움을 씻을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깨끗하고 부드러워서 畢竟 때가 없으소서)

(10) '闇昧ㅅ-' (1회)

眞實ㅋ 能ㅎ 心ㄷ 闇昧ㅅ{令}ㅂㄹㅅㄱ{者} 謂ㄱ 方便ㅁ 止觀品ㄷ 修ㅅㅎㅌ 時ㅓㅌ {於}諸 法 中ㅎㅓ 有ㅌㄱ 所ㅌ 忘念ㅂㅎ <유가11:08-09>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진실로 능히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방편으로 지관품을 닦을 때에 여러 가지 법 가운데 있는 바 망념이며)

(11) '六大動ㅅ-' (1회)

百億萬土ㄱ 六大動ㅅㅁㅌㄷㅎ 生ㄷ 含ㅅㄱㅌㅌ{之} 生ㄱ 妙報ㄷ 受ㅁㅌㄱㅈ <구인11:12>

(황선엽(2013) 현대어역: 百億萬土는 六大動하며 生을 含하는 生은 妙報를 받는 것이다)

(12) '生老病死ㅅ-' (1회)

但ㅅ 自ㅋㅁ 身ㅋ 初ㅌㅋ 入胎ㅅㄱㄷ 從ㅌ 不淨ㅅㅌㅌ 微形ㅂㅁ 胞段ㅌ 諸ㄱ 根ㅂ 生老病死ㅅㅏㅋㄱㅅㄴㄷ 觀ㅅㅏㅎ <화소16:04-05>

(안대현(2013) 현대어역: 다만 스스로 몸이 비로소 入胎했을 때부터 不淨한 微形이라서 胞段의 모든 根이 生老病死하는 것을 觀하며)

이처럼 어휘적 강도가 매우 낮은 단어들은 결합 어근이 1음절부터 4음절까지

매우 다양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용례 중에 (1-8)에 해당하는 부류를 'A'라 칭하고 (9-12)를 'B'라 칭하겠다. 확인하였듯이 A는 B에 비해 훨씬 높은 빈도로 문증되며 이는 어휘적 강도가 높음을 말한다. 이처럼 어휘적 강도의 차이를 통해 A는 B보다 어휘부에 등재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자연히 B는 오직 한 번만 문증되어 A에 비해 어휘적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으며 등재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임시어의 상태로 소멸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는 '등재'류로, 'B'는 '미등재'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등재'류와 '미등재'류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양극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류들이 있는 반면에 많게는 10여 회, 적게는 2회 문증되는 부류 또한 존재한다.

(13) '依ㅅ-' (15회)

云何ㅅㄱㄹ 生圓滿 中ㅇㅌ 外ㄹ 依ㅅㄱㅋㅓ 五 有ㅅㄱㅊㅣㅇㅎㅁ <유가 02:16-17>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무엇을 생원만 가운데 밖을 의지한 것에 다섯이 있는 것이라 하는가?)

(14) '示現ㅅ-' (11회)

信ㄱ 能ㅊ 最勝智ㄹ 增益ㅅㅏㅈㅇ 信ㄱ 能ㅊ 一切 佛ㄹ 示現ㅅㅏㅎㅌㅣ <화엄10:07>

(김성주(2013) 현대어역: 信은 能히 最勝의 智慧를 增益할 것이며 信은 能히 一切의 부처님을 보일 것이다)

(15) '分別ㅅ-' (9회)

四者 {於}一切 衆生ㅋ 三聚ㅇㅓ 智力ㅡ 能ㅇ 分別ㅅㅇ 知ㅇ <금광04:23>

(이용(2013) 현대어역: 넷째, 一切 衆生의 三聚에 대해서 智力으로 능히 分別하여 알며)

(16) '般涅槃ㅅ-' (2회)

謂ㄱ 佛世尊ㄱ 般涅槃ㅅㄴㅎㅌㅅ{雖}ㅓ 而ㄱ 俗正法ㅣ 猶ㅣ 住ㅅㅇㅎ <유

가03:11-12>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말하자면 불세존은 반열반하시더라도 세속의 정법이 여전히 머물러서)

이들 역시 해당 부류 안에서 어휘적 강도를 서로 비교할 수도 있겠으나 10여회 미만의 빈도수끼리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를 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오히려 (13-16)에 해당되는 부류를 'C'라 칭해보자. C는 앞서 제시한 '등재'류 보다는 어휘적 강도가 낮지만 '미등재'류 보다는 어휘적 강도가 높은 비교군이라 할 수 있다. 이때 2.1에서 제시한 단어 형성 단계를 생각해 본다면 임시어와 실제어의 중간 단계, 바로 '공인화' 단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해당 단어들은 임시어로 형성된 후 아직 어휘부에 등재될 만큼 발화 공동체에 인식된 것이 아니라 형성된 임시어가 불교 교육의 일환으로 발화 공동체 내에 어느 정도 수용된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C는 '공인화'류로 분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어휘적 강도에 따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등재'류, '미등재'류, '공인화'류로 나누었다. 이를 기준으로 15세기 이후 문헌에서의 문증 빈도를 검토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등재'류일수록 문증 빈도가 높게 나왔다.

(17) '念ㅅ-' (20회)

又 知恩ㅣ ᄀᆞᄆᆞᆯ 依ᄒᆞ ㅣ ᄀᆞᄆᆞᆫ 謂ᄀᆞ 有恩ㅅ ᄠᅳᆮ 者ㅣ ᄉᆞᆫ 大師ㅣ 恩ᄋᆞᆯ 念ㅅᄒᆞ ᄉᆞᆫ <유가28:16-17>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또 은혜를 아는 것을 의지하되(/의지하여 하되), 말하자면 은혜 있는 자에게 대사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18) '念ᄒᆞ-'

가. 그 音聲이 다 부텨 念ᄒᆞ며 法 念ᄒᆞ며 比丘僧 念호ᄆᆞᆯ 讚歎ᄒᆞ시며 <월석 7:5>

나. ᄆᆞᅀᆞ매 그ᄉᆞ기 술와 부텨ᄅᆞᆯ 念ᄒᆞᅀᆞ오면 반ᄃᆞ기 쳔량과 옷 바ᄇᆞᆯ 만히 어드리라 <관음 8a>

다. 만일 사ᄅᆞᆷ이 어려ᅀᆞᆷ이 잇거든 菩薩의 일홈을 念ᄒᆞ면 ᄲᅧᆯ리 그 곳에 나

아가 衆生의 難을 救ᄒᆞ야 <박언중 23>

라. 사ᄅᆞᆷ이 어려옴이 잇거든 입에 菩薩의 일홈을 念ᄒᆞ면 곳 衆主의 難을 救ᄒᆞ니 <박신 2:30>

마. 죄인ᄃᆞ리 져근덛 ᄉᆡ이 이 경을 ᄉᆡᆼ각ᄒᆞ고 념ᄒᆞ야도 내 반ᄃᆞ시 큰 신험ᄒᆞᆫ 힘을 ᄡᅥ <장수 50>

또한 (18마)와 같이 해당 한자 어근의 한자음을 한글로 표기한 어근에 결합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한편 '미등재'류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대부분이 그 이후 시기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당시 전기중세 한국어 시기의 사회 어휘부가 그 이후 시기인 후기중세 한국어 시기의 사회 어휘부와 모종의 상관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등재'류와 '미등재'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후 시기 어휘부와의 상관성을 고려한다면 판단하기 어려운 '공인화'류의 용례에 대해 이후 시기에 문증되는 빈도수를 고려하여 어떤 단어가 '등재'류에 가까운지 혹은 어떤 단어가 '미등재'류에 가까운지를 대략적으로 짐작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기중세 한국어 시기의 공시적인 사회 어휘부에 이후 시기의 어휘부를 등재의 판단 준거로 삼는 것이므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정리하자면 임시어 형성소 'ㅇ'는 1음절부터 4음절 한자 어간까지 제약 없이 결합하여 임시어를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임시어가 공인화를 거쳐 어휘부에 등재된 후 실제어가지 도달하는 단어 형성 과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어휘적 강도를 등재의 기준으로 삼았다. 다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어휘적 강도를 보이는 부류를 '등재'류로 분류하였으며, '등재'류에 비해 현저히 어휘적 강도가 낮은 부류를 '미등재'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등재'류와 '미등재'류 비교군 사이에 놓인 부류에 대해서 '공인화'류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전기중세 한국어 당시 'ㅇ$_1$'이 어근과 결합하여 형성한 단어들은 어휘부에 등재되어 실제어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였으며 반면 임시어로 머무르다 공인화도 거치지 못한 채 소멸될 확률이 매우 높은 부류도 존재하였다. 결과적으로 전기중세 한국어 당시의 단어 형성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ㅇ$_1$'의 임시어 형성소로서의 문법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문법적 양상

앞서 ‘ㅅ$_1$’에 대해 단어 형성 과정을 통해 임시어 형성소로서의 ‘ㅅ$_1$’에 중점을 두어 다루었다. 본 절에서는 임시어 형성소로서의 ‘ㅅ$_1$’가 아닌 파생접미사로서의 ‘ㅅ$_1$’에 초점을 맞추어 결합하는 어근을 한자어 어근과 고유어 어근으로 나누어 그 문법적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3.2.1. 한자어 어근

본 항에서는 ‘ㅅ$_1$’이 음독 어근과 결합하는 경우의 문법적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한자어 어근은 해당 어근에 말음첨기와 같은 훈독 요인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하게 한자로만 구성된 어근을 말한다. 음독 어근은 1음절부터 4음절까지 존재하며 3.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ㅅ$_1$’은 제약 없이 모든 음절수의 한자어 어근에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한다.

(1) 가. 初地ㅋㅓ 有相道ㄹ 行ㅅ{欲}ㅅㅅㅌㄱㅏ 是ㄱ 無明ㅣㅎ <금광07:16>
(이용(2013) 현대어역: 初地에서 有相道를 行하고자 하는 것도 이는 無明이며)
나. 當ㅅ 知ㅎㅣ 有餘依涅槃界ㄹ 依止ㅅㅋ 九法ㅣ 轉ㅇㅏㅁ 涅槃ㄹ 首{爲}ㅎㅌ 有ㅌㅎ <유가04:21-23>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반드시 알아야 한다. 유여의열반계를 의지하여 아홉 법이 전하되 열반을 으뜸으로 삼는 것이 있으며)

(1)은 1음절과 2음절 한자어 어간이 결합한 경우이며 ‘ㅅ$_1$’이 결합하는 대부분의 어근은 이와 같이 1·2음절 한자어 어근이다. 수치상으로는 ‘ㅅ$_1$’가 형성하는 전체 556개의 단어 중에 1·2음절의 한자어 어근이 결합한 경우는 총 524개인만큼 대다수를 차지한다.

(2) 陁羅尼呪 誦持 得ㅋㅎ 一切 怖畏ㅣㄱ 一切 惡獸ㅣㅇ 虎狼師子ㅡ 一切 惡鬼ㅡ 人非人 等ㅅㄱ 怨賊ㅡ 災橫ㅡ 諸ㅋ 有ㅅㄱ 惱害ㅡㅇㅏㅇㄹ 度脫ㅅㅋ 五障

乙 解脫ㅅ分 <금광09:24-10:01>

(이용(2013) 현대어역: 陁羅尼呪를 誦持하면 능히 一切 怖畏인, 一切 惡獸인 범·이리·사자니 一切 惡鬼니 人非人 등의 怨賊이니 災橫이니 여러 존재하는 惱害니 하는 것을 度脫하여 五障을 解脫하며)

(3) 가. 此乙 因ㅎ 廣大ㅅㄱ 歡喜乙 證得ㅅㄹ 又 能ㅎ 出離善根乙 引發ㅅㄹㅅㅏ ㅈㅁ <유가06:01-02>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이로 인하여 광대한 환희를 증득하고 또 능히 출리[33]의 선근[34]을 이끌어내고 하는 것이라서)

나. 若ㅌ 美ㅅㅌㅌ 味乙 得ㅋㅁ 專ㅁ 自ㅋㅠ 受ㅇ 不ㅅㅋㅎ 要ㅎ 衆生ㅋㅓ 與ㅅㄱ 然ㅌㅅㄱ乙ㅠㅌ 後ㅂㅓㅈ 方ㅌ 食ㅅㅏㅎ <화소09:10-11>

(안대현(2013) 현대어역: 만약 맛있는 음식을 얻어도 오로지 스스로 받지 않아 반드시 중생에게 준 연후에야 비로소 먹으며)

'ㅅ$_1$'이 한자어 어근과 결합하여 형성되는 파생어의 다수는 (2)와 같이 동사이나 (3)과 같이 일부 형용사를 파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음으로는 3음절 한자어 어간이 결합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4) 가. 謂ㄱ 佛世尊ㄱ 般涅槃ㅅㄴㅎㅌㅅ{雖}ㅐ 而ㄱ 俗正法ㅂ 猶ㅂ 住ㅅㅋㅎ <유가03:11-12>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말하자면 불세존은 반열반하시더라도 세속의 정법이 여전히 머물러서 멸하지 않고)

나. 若 無餘依涅槃界ㅌ 中ㅋㅓ 般涅槃ㅅㅎㅌ 時乙 名ㅜ {爲}衆苦邊際乙 證得ㅅㅇㅜㅅㅈㅁㅣ <유가06:09-10>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또 무여의열반계의 가운데에서 반열반하는 때를 일컫어 뭇 괴로움이 다함을 증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

33) 출리(出離)는 생사를 반복하는 미혹의 세계를 떠나감으로써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해탈하는 것을 뜻한다(장경준 외 2015: 146 각주 24).

34) 모든 선법(善法)은 선한 과보[善果]를 내는 근본이기 때문에 '선근(善根)'이라 한다. 또는 무탐(無貪)·무진(無瞋)·무치(無癡)의 세 가지 법은 모든 선법을 발생시키는 근본이기 때문에 '선근'이라 하며, 그 셋을 특히 삼선근(三善根)이라 한다(장경준 외 2015: 146 각주 25).

(5) 가. 無相ㄱㅓ 正思惟ㅅㄱ 修得自在ㅊㄱㅅㅡ{故}ㅎ 諸 煩惱行ㄹ 動 令ㅣㄹ 能ㅊ 不ㅎㅅㅇㅓㄴㄱㅅㅡ 故ㅅ <금광07:11-12>

(이용(2013) 현대어역: 無相에 대해 正思惟하여 修行하여 自在함을 얻은 까닭이며, 모든 煩惱行이 능히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것인 까닭으로)

나. 此ㄱ {於}寂靜ㅋ 正思惟ㅅㅎㅌ 時ㅡㅓ 能ㅎ 障导ㅣㄹ{爲}ㅅㄴㅅㄹㅊㅎ <유가12:09-10>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이는 고요히 올바로 사유하는 때에 능히 장애가 되는 것이며)

(4)와 (5)는 'ㅅ$_1$'에 3음절 한자어 어간이 결합한 경우이며 각각 '般涅槃'과 '正思惟'에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하였다. '般涅槃'은 산스크리트어 'parinirvāṇa', 팔리어 'parinibbāna'의 음사로서 멸(滅)·멸도(滅度)라고 번역하며 '육신의 완전한 소멸, 곧 죽음, 석가의 죽음,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한 상태'를 뜻하는 하나의 단어이다.[35] '正思惟' 역시 마찬가지로 산스크리트어 'samyak-saṃkalpa', 팔리어 'sammā-saṅkappa'의 음사로서 팔정도(八正道)의 하나이며 '바른 생각, 곧 번뇌에서 벗어난 생각, 노여움이 없는 생각,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생각 등'을 의미하는 하나의 단어이다.[36] 따라서 위의 3음절 한자어 어근 역시 1·2음절 한자어 어근과 동일하게 하나의 어근으로 인식되어 'ㅅ$_1$'과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4), (5)와는 다르게 첫 번째 음절에 부정사 '不'가 위치해 3음절 전체가 하나의 어근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용례이다.

(6) 十九 此 失ㄱ 无ㅌㅅ{雖}ㅐ 然ㅅㅁ 先下 奢摩他品ㄷ 修行 不ㅎㅅㄱㅅㅡ 故ㅅ {於}內心寂止ㅣㄱ 遠離ㅌ 中ㄱㅓ 不欣樂ㅅㅎㅌ 過失 {有}ㅐㅎ 二十 此失ㄱ 无ㅌㅅ{雖}ㅐ 然ㅅㅁ 先下 毘鉢舍那品ㄷ 修行 不ㅎㅅㄱㅅㅡ 故ㅅ {於}增上慧法 毘鉢舍那ㅣㄱ 如實觀ㅌ 中ㄱㅓ 不欣樂ㅅㅎㅌ 過失 {有}ㅐㅎ ㅅㄹㅊㅣ <유가14:11-16>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열아홉째는 비록 이러한 잘못은 없어도, 그러나 먼저

35)『시공불교사전』
36)『시공불교사전』

사마타품을 수행하지 못한 까닭으로 내심의 고요한 그침인 멀리 떨어짐의 가운데에 흔쾌히 즐거워 하지 않는 잘못을 두며 스무째는 비록 이러한 잘못은 없어도, 그러나 먼저 비발사나품을 수행하지 못한 까닭으로 중상혜법의 비발사나인 여실관의 가운데에서 흔쾌히 즐거워하지 않는 잘못을 두며 하는 것이다)

(7) 가. 又 {於}飲食ㅋㅓ 知量 不ㅅㅅㅣㅅㅠ 故ㅇ 身[37] 不調適ㅇㅏㅅ <유가 10:08>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또 음식에 대해 양을 알지 못한 까닭으로 몸이 조화롭지 못한 것과

나. 又 彼 身ㅐ 不調適ㅅㅣㅅㄷ 由ㅋㅣㅅㅠ 故ㅇ 毘鉢舍那ㄷ 善修 能 不ㅅㅅㅋ 實 如ㅊ 諸 法ㄷ 觀察 能 不ㅅㅇㅏㅅㅐㅣ <유가10:10-12>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또 그 몸이 조화롭지 않은[38] 것에 말미암은 까닭으로 비발사나를 잘 닦기를 능히 못하여 실상과 같이 여러 법을 관찰하기를 능히 못하는 것과이다)

그러나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가사지론 계열에서 부정사를 통해 부정문을 형성할 때에는 (7나)와 같이 '能' 또는 '得'과 不가 공기하며 '不ㅅ'로 나타나 '능력부정', '타의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能' 또는 '得'와 공기하지 않으며 '不'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6)과 (7가)와 같이 '不ㅅ'로 구결자가 현토되어 '능력 부정'을 나타내고 '不ㅭ'로 구결자 현토되면 '의지부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문현수 2011: 31-41). (6)과 (7)에서는 '不調適' 이외의 모든 부정사는 구결자 'ㅅ'를 현토하여 부정문을 형성하였다.[39] 그렇다는 것은 현토자가 의도적으

37) 동일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7나)를 보면 '身ㅐ'와 같이 구결자 'ㅐ'를 현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7가)의 해당 부분에도 주격조사를 나타내는 구결자 'ㅐ'가 생략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38) 해당 부분은 修所成地의 다섯 번째 支인 修瑜伽의 대한 부분에서 修不淨想의 상술에 해당하는 7가지 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 중 5번째와 7번째에 해당하는 용례가 (7)인 것이다(장경준 외 2015: 167-169 참조). 이때 (7가)의 5번째 所對治法인 身不調適은 '몸이 조화롭지 못한 것'이며 그러한 까닭으로 7번째 소대치법인 '能不如實 觀察諸法(실상과 같이 여러 법을 관찰하기를 능히 못하는 것)'라는 내용이 (7나)에 실려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7가)와 (7나)의 '身不調適'은 같은 개념이며 실제 동국대 역경원 현대어역에서도 '몸이 적절하지 못함'으로 일관되게 번역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경준 외(2015)에서 이와 같이 (7가)는 '몸이 조화롭지 못한 것'으로, (7나)는 '몸이 조화롭지 않은 것'으로 서로 다르게 번역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달리 위와 같은 이유로 (7가)와 (7나)의 '身不調適'을 '몸이 조화롭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서로 같은 번역으로 보겠다.

로 '不調適'을 하나의 어근으로 인식하여 'ㅅ$_1$'을 결합시켜 파생어를 형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調適(ㅁ) 不ㅏㅅ-'와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 현토했을 것이다. 따라서 (6)과 (7)도 (4)와 (5)와 마찬가지로 'ㅅ$_1$'이 3음절 한자어 어근에 결합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ㅅ$_1$'에 4음절 한자어 어근이 결합한 경우이다.

(8) 結跏趺坐ㅅㅗㄱㅣㅓㄱ 當 願 衆生 善根 堅固ㅅㅇㅏ 不動地ㄹ 得ㅌㅗ[40] <화엄03:24>

(김성주(2013) 현대어역: 결가부좌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중생은 선근이 견고하여서 부동지를 얻으소서)

(9) 但ㅏ 自ㅋㅡ 身ㅋ 初ㅌㅎ 入胎ㅅㄱㄹ 從ㅌ 不淨ㅅㅌㅌ 微形ㅣㅁ 胞段ㅌ 諸ㄱ 根ㅣ 生老病死ㅅㅏㅎㄱㅅㄹ 觀ㅅㅏㅇ <화소16:04-05>

(안대현(2013) 현대어역: 다만 스스로 몸이 비로소 入胎했을 때부터 不淨한 微形이라서 胞段의 모든 根이 生老病死하는 것을 觀하며)

(10) 二 {於}夜分ㅇㅓ 住ㅅㅇㅗ 嬾惰懈怠ㅅㄱㅅㅡ{故}ㅇ 多ㅣ 睡眠ㄹ 習ㅅㄱㅅㅡ 故ㅣ 時分ㄹ 虛度ㅅㅇ <유가11:17-18>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둘째는 밤에 머물러서는 나태함과 게으름을 피운 까닭에서이며, 많이 수면을 익힌 까닭으로, 시분을 헛되이 보내며)

(8)에서는 '結跏趺坐'에 'ㅅ$_1$'가 결합하였는데, '結跏趺坐'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전체를 하나의 어근으로 인식하여 'ㅅ$_1$'을 현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41]

39) (7가)와 (7나)의 사이 부분인 여섯 번째 소대치법을 설명하는 내용에서도 아래와 같이 '不ㅈ'로 구결자를 현토하여 부정문을 형성하였다.

예 又 尋思ㅡ 擾亂ㅣㅁ 所ㄹ 爲ㅏㄱㅅㅡ 故ㅣ 遠離ㅣㄱ 內心寂靜 奢摩他定ㄹ 樂ㅁ 不ㅈㅣㅁㅅ <유가10:09-10>

40) 반복되는 구문이므로 여러 구결자가 생략되었다. 아래와 같이 반복되는 첫 구절에서 구결자가 현토된 양상을 참고하면 '當, 願, 衆生, 善根,'에 각각 'ㅏ, ㅅㄱ, ㄱ, ㄹ'이 생략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 父母ㄹ 孝事ㅅㅗㄱㅣㅓㄱ 當ㅏ 願ㅅㄱ 衆生ㄱ 善ㅊ {於}佛ㄹ 事ㅏ白ㅇㅗ 一切ㄹ 護ㅅㄹ 養ㅅㄹㅅㅌㅊㅗ <화엄02:20>

마찬가지로 (9)에서는 '生老病死'에 'ㅅ$_1$'가 결합하였는데 하나의 어근으로서 인식하지 않았다면 '生ㅅㅎ 老ㅅㅎ 病ㅅㅎ 死ㅅㅎㅅㅌㅎㄱㅅㄴㄷ'과 같이 한자 하나하나에 'ㅅ$_1$'을 결합시켜 아우름 동사 구문으로 현토했을 것이다.[42] 또한 (10)과 같이 '嬾惰懈怠'의 경우도 4음절을 이루는 각각의 한자가 모두 같은 의미이기에 4음절을 하나의 어근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위에서 확인한 (6)과 (7)처럼 부정사가 포함되어 하나의 어근으로 보기에 어려워 보이는 경우가 존재한다.

(11) 一ㅓㄱ 不善觀察ㅅㄱㅅㅡ{故}ㅎ <u>不善決定ㅅㄱㅅㅡ</u> 故ㅇ {於}思惟ㅇㅏ 所ㅇ ㅓ 疑ㅐ 隨逐ㅇㅏ 有ㅌㅎ <유가11:15-17>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첫째는 <u>잘 관찰하지 않은 까닭에서이며</u>, 잘 결정하지 않는 까닭으로, 사유하는 데에 의심이 뒤따름이 있으며)

(11)의 현대어역을 참고하더라도 '不'과 '美'가 모두 별개의 문장 성분으로 옮겨진다. 이를 고려한다면 해당 부부은 '善ㅈ[43] 決定/觀察ㅅㅏ 不ㅎㅅㄱㅅㄱㅅㅡ[44]'와 같은 형식으로 구결자가 현토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동사구 혹은 하나의 의미 단위에 결합한 경우로 생각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마치 음독구결의 모습과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12) 능엄경(남권희본) 3:25

가. 禮佛合掌得未曾有

나. 禮佛合掌ㅅㅇ 得未曾有ㅅㅎ

(12)는 음독구결의 용례인데 음독구결의 'ㅅ'는 '禮佛合掌'과 '得未曾有'와 같이

---

41) 結跏趺坐: 앉은 자세의 한 가지. 오른발을 왼쪽 허벅다리 위에 얹고, 왼발을 오른쪽 허벅다리 위에 얹는 앉음새, 또는 왼발을 오른쪽 허벅다리 위에 얹고, 오른발을 왼쪽 허벅다리 위에 얹은 앉음새 (『시공불교사전』).

42) 아우름 동사와 관련해서는 4.1에서 상술할 것이다.

43) 本願ㄷ 以ㅇ <u>善ㅈ</u> 迴向ㅅㅏㅅㅡ{故}ㅐㅎ <화소26:13-14>

44) 是 如ㅈ 第四心ㅐ 退轉ㅅㅏ <u>不ㅎㅅㅎㄱㅅㄱㅅㅡ</u> 故ㅇ 是ㄷ (名 毗梨耶波)羅蜜因ㅡㅇㅓㅎ <금광02:05-06>

하나의 의미단락으로 분절할 수 있는 단위마다 ‘ㅅ’를 현토하였다. 이는 마치 (11)에서 ‘不善觀察’와 ‘不善決定’에 결합한 ‘ㅅ$_1$’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음독구결의 ‘ㅅ’와 ‘ㅅ$_1$’의 이러한 특징은 한글 구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3) 능엄경언해 3:108

가. 禮佛合掌ᄒᆞᄉᆞ와 得未曾有ᄒᆞ야

나. 부텻긔 禮數ᄒᆞᅀᆞᆸ고 合掌ᄒᆞᄉᆞ와 아ᄅᆡ 잇디 아니ᄒᆞᆫ 거슬 得호라 ᄒᆞ야

(13)은 (12)의 동일한 부분에 해당하는 한글구결이다. (12)와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에 ‘ᄒᆞ’가 위치해 있으며 음독구결의 ‘ㅅ’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지닌다.[45] 다시 말해 음독구결의 ‘ㅅ’와 한글구결의 ‘ᄒᆞ’는 성격이 유사하며 ‘-ㅈ’와 ‘-아’ 같은 해당 의미단락에 적합한 연결어미, 혹은 선어말어미 ‘-시-’와 연결어미 ‘-아’의 결합인 ‘ᅀᆞ’, 또는 ‘-ᄉᆞ오-’ 같은 선어말어미를 표시하기 위한 형식적인 매개 역할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46]

2.2.1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본래 ‘ㅅ$_1$’은 (13나)의 ‘禮數’, ‘合掌’, ‘得’에 결합한 파생접미사 ‘-ᄒᆞ-’와 같은 문법적 특징을 갖고 있다.

(14) 佛ㅜ[47] 禮ㅅ ㅈ[48] 合掌ㅅ ㅈ[49] 未曾有ㄷ[50] 得ㅅ ㅈ[51]

---

45) 고려시대 간행된 『능엄경』 이본들에 기입된 음독구결들은 약 30-40% 정도가 『능엄경언해』에 기입된 한글 구결과 일치하고 조선 초기 간행 『능엄경』 이본의 경우 대략 60% 정도가 일치한다. 그러나 고려시대 간행된 『능엄경』의 이본인 ‘남권희 본’의 경우는 대략 ‘80%’의 일치를 보이며 『법화경』의 경우는 거의 모든 이본에서 약 70% 정도가 『법화경언해』에 기입된 한글 구결과 일치를 보인다(남경란 2016: 202).

46) 의미단락 혹은 한문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단위에 결합하기에 단어를 형성하는 파생접미사와 같은 문법적 기능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해당 의미단위의 내용에 우리말로 토를 달기 위한 기능을 한다고 판단되기에 ‘어말어미들을 표시하기 위한 형식적인 매개 역할’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윤용선(2003:22)에서 한글 구결에 대해 한문을 분절하고 분절단위(구절) 상호간의 통사적인 관계를 표시하거나 구절의 종결이나 구절 간의 접속 등의 명제적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47) 爾ㅌ ㅅ ㄱ 時ㅜ 大王ㄱ 復ㅅ ㄱ 起ㅅ ㅈ 作禮ㅅ 白ㅁ 佛ㅜ 白ㅈ 言ㄴㅇ <구인03:22>

48) 如來ㅌ 三業ㄱ 德ㅣ 無極ㅅ ㅁ ㅎㄴ ㄱ 我ㅣㅇ 今ㅎ 月光ㄱ 三寶ㄷ 禮ㅅ 白ㅁ ㅌ ㄹ ㄱ ㅣ <구인11:08>

49) 偏ㅈ 右肩ㄷ 袒ㄹ 右膝ㄷ 地ㅈㅜ 著ㅅ ㅈ 合掌恭敬ㅅ 白ㅈ ㅎ 頂ㅡ 佛足ㄷ 禮ㅅ 白ㅁ 而ㅡ 佛白 言 <금광13:18-20>

이러한 ‘ㅅ$_1$’의 특징을 고려하여 (13가)의 용례를 자토석독구결로 가정하여 구결자를 현토한다면 위의 (14)와 같을 것이다. 언해문인 (13나)의 고려하여 현토를 가정한 것인데 ‘부텻긔’에 따라 ‘佛’에 여격조사 ‘ㅋㅓ’를 넣었으며 ‘禮’와 ‘合掌’을 각각 어근으로 판단하여 ‘ㅅ$_1$’을 결합시켰다. 또한 ‘아릐 잇디 아니ᄒᆞᆫ 것’에 대응하는 ‘未曾有’는 ‘得’의 논항이기에 목적격 조사 ‘ㄹ’을 결합시켰으며 마찬가지로 ‘得’을 어근으로 판단하여 ‘ㅅ$_1$’을 결합시켰다. 이처럼 의미단위 혹은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에 결합하는 음독구결과 한글구결의 ‘ㅅ’와 ‘ᄒᆞ’와 달리 자토석독구결의 ‘ㅅ$_1$’은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문법적 단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문법적 기능 역시 (13나)의 ‘-ᄒᆞ-’와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11)과 같이 일부 4음절에 결합한 경우는 어근과 결합한 것이라기보다는 (12)에서 음독구결의 ‘ㅅ’, (13)에서 한글구결의 ‘ᄒᆞ’와 같이 하나의 의미단락에 결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5) 偏ㅋ 右肩ㄹ 袒ㅎ 右膝ㄹ 地ㅋㅓ 著ㅅㅋ <u>合掌恭敬ㅅ白ㅋㅎ</u> 頂ㅡ 佛足ㄹ 禮ㅅ白ㅁ 而ㅡ 佛 白 言 <금광13:18-20>

(이용(2013) 현대어역: 오른쪽 어깨를 치우쳐 벗어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며 <u>合掌恭敬하여서</u> 정수리로 부처의 발에 예수하고, 부처님께 사뢰어 말씀드리시기를)

(15)도 ‘ㅅ$_1$’이 하나의 의미단락이 되는 단위에 결합한 경우이다. (11)과 같이 부정사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合掌恭敬’처럼 ‘合掌’과 ‘恭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의미단락에 ‘ㅅ$_1$’이 결합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4음절 한자어에 결합한 ‘ㅅ$_1$’의 경우에는 (8), (9), (10) 같이 명백히 하나의 어근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에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11)과 (15)와 같이 의미단락으로 볼 수 있는 단위에 결합하여 마치 음독구결의 ‘ㅅ’와 한글구결의 ‘ᄒᆞ’와 같은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음독구결의 ‘ㅅ’와 한글구결의 ‘ᄒᆞ’는 어근이 아니라 대부분이 (12), (13)과

---

50) 修多羅ㄹㅅㅇ 如ᄅᆞ 祇夜ㅣ 授記ㅣ 伽陀ㅣ 尼陀那ㅣ 優陀那ㅣ 本事ㅣ 本生ㅣ 方廣ㅣ <u>未曾有ㅣ</u> 譬喩ㅣ 論議ㅣㅅ今ㄹ 亦ㅁ {是}ㅂ 如ᄅᆞㅅㅎ <화소20:17-20>

51) 復 次 是 如ᄅᆞ 已ㅋ 三摩地ㄹ <u>得ㅅㅌㅌ</u> 者ㄱ <유가15:10>

같은 하나의 의미 단락에 결합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전기중세 한국어의 ‘ㅺ$_1$’은 대부분이 어근에 결합하고 일부 4음절에 결합하는 경우에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두 가지 사안을 고려해본다면 전기중세 한국어 시기의 ‘ㅺ$_1$’이 음독구결의 ‘ㅺ’와 한글구결 ‘ᄒᆞ’가 사용되는 시기로 넘어오면서 점차 단어를 형성하는 본래의 기능이 약화되고 의미 단락에 결합하여 이에 적절한 어미를 표시하기 위한 형식적인 매개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입장은 결론적으로 전기중세 한국어의 ‘ㅺ$_1$’와 음독구결의 ‘ㅺ’ 그리고 한글구결의 ‘ᄒᆞ’를 같은 층위의 동일한 문법 요소로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ㅺ$_1$’이 통시적으로 음독구결의 ‘ㅺ’를 거쳐 한글구결의 ‘ᄒᆞ’에까지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 문법적 기능이 점차 축소되어 음독구결을 거쳐 한글구결의 ‘ᄒᆞ’에서의 쓰임을 보이는 것이다.

본문에서 음독구결의 ‘ㅺ’와 한글구결의 ‘ᄒᆞ’에 대해서 ‘어말어미들을 표시하기 위한 형식적인 매개 역할’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3.1에서 살펴본 ‘임시어 형성소’로서의 ‘ㅺ$_1$’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본다면 또 다른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음독구결의 ‘ㅺ’는 본문에서 표현한대로 ‘의미 단락’ 단위에 결합하여 나타나는데 이때 ‘의미 단락’ 단위로 표현한 이유는 기존의 ‘ㅺ$_1$’이 ‘어근’과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한다는 점과 대조를 하기 위한 기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윤용선(2003: 25 ,각주13)은 구결문에서는 한문 구절을 메타언어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따라 구절 자체의 속성은 동사구이더라도 명사구처럼 취급되는 일이 많음을 언급하였다. 즉, 의미단락은 동사구로 볼 수 있으며 구결문에서 명사구로 인식된다면 이에 음독구결 ‘ㅺ’가 결합한 것을 임시어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정리하자면 의미 단위에 결합한 음독구결의 ‘ㅺ’는 ‘어말어미 등의 문법적 기능을 위한 형식적인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이를 동사구, 더 나아가 메타언어적으로 인식하여 명사구로 파악하고 이에 음독구결의 ‘ㅺ’가 결합한 것은 임시어를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음독구결 ‘ㅺ’에 대해 임시어 형성소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두 가지 견해를 피력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로 음독구결의 ‘ㅺ’와 한글구결의 ‘ᄒᆞ’는 명사구에 결합하여 임시어를 형성하고 이들은 수많은 의미 단락 단위

에 제약 없이 결합하는 형식적인 양상을 보이기에 음독구결의 ‘ㅇ’와 한글구결의 ‘ᄒᆞ’를 통해 형성된 임시어는 어휘부에 등재되어 실제어가 될 확률이 매우 낮다.

둘째로는 전기중세 한국어 ‘ㅇ$_1$’과 한글구결의 ‘ᄒᆞ’를 통시적 변천 속의 동일한 문법 요소로 본다면 결국 전기중세 한국어의 ‘ㅇ$_1$’이 음독구결의 ‘ㅇ’를 거쳐 한글구결의 ‘ᄒᆞ’에 이르기까지 유지하고 있는 기능은 바로 임시어 형성소로서의 문법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어떻게 보면 ‘ㅇ$_1$’에 있어서 임시어 형성소로서의 기능이 매우 본질적인 것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전기중세 한국어의 ‘ㅇ$_1$’뿐만 아니라 음독구결의 ‘ㅇ’와 한글구결 ‘ᄒᆞ’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적인 이해와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와 관련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3.2.2. 고유어 어근

본 항에서는 ‘ㅅ$_1$’이 고유어 어근에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용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한자어 어근이 한자음을 그대로 따르는 것에 반해 고유어 어근은 해당 어근에 말음 첨기를 나타내는 구결자가 현토되어 해당 한자를 음이 아닌 뜻으로 읽는 어근을 말한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ㅅ$_1$’이 결합하는 어근은 대부분이 3.2.1에서 살펴본 한자어 어근이며 본 항에서 다루는 고유어 어근은 그에 비하여 매우 수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용례를 다루도록 하겠다.

먼저 ‘ㅌ’이 말음 첨기 되어있는 용례들부터 살펴보겠다.

(1) 가. 謂ㄱ 聖弟子 如ㅊㅅㄱㅢ 或 衆ㄹ 與ㅌ 同居ㅅㅈ 其 生起ㅅㄱ 僧所作事ㄹ 隨ㅣ 善品ㄹ 棄捨ㅅㅁ 數ㅢ 衆會ㄹ 與ㅌㅅㅎ <유가26:05-07>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말하자면 성제자 같은 이가, 혹 여러 사람과 함께 동거하여 그 생겨난 승소작사를 좇아 선품을 버리고 자주 대중과의 모임을 함께 하며)

(한문 원문: 謂如聖弟子 或與衆同居 隨其生起僧所作事 棄捨善品 數與衆會)

나. 過現未來ㅈㅓ 說法ㅣㅇㅡㅁ 盡ㅇ 無ㅢㅅㅎ {於}一切 世界ㅌ 中ㅈㅓㅅㅈ 衆生ㄹ 與ㅌ 同住ㅅㅋ 曾ㅎㅋㅋ 過咎 無ㅎ <화소23:14-15>

(안대현(2013): 현대어역: 과거·현재·미래에 설법하는 데 다함이 없이 하며, 一切 世界 중에서 중생과 더불어 함께 머무르나 조금도 허물이 없으며,)

(1)은 고유어 어근 ‘與ㅌ’에 ‘ㅅ$_1$’이 결합한 경우이다. 해당 어근은 이미 남풍현(1993) 이래 ‘다ᄆᆞᆺ’으로 훈독하였다.[52] 그러나 ‘與ㅌㅅㅡ’를 하나의 단어로 보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이 따른다. (1가)에서도 한 예문에 ‘與ㅌㅅㅡ’와 ‘與ㅌ’이 함께 쓰였으며 (1나)에서도 ‘與ㅌ’이 독립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與ㅌㅅㅡ’에 대해서 ‘與ㅌ#ㅅㅡ’로 분리하여 볼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단독으로 쓰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논항으로 선행하는 ‘ㄹ’ 구성을 취한다.

최성규(2016: 160-161)에서는 ‘與ㅌ’가 단독으로 쓰였을 경우만 생각한다면 ‘ㄹ 與ㅌ’ 전체를 하나로 굳어진 공동격조사 상당 구성로 볼 수 있다고 하였지

52) 정재영(1995), 장윤희(2006), 이병기(2014), 최성규(2016) 등.

만 ‘ㄹ 與ㅌㅅㅡ’를 공동격조사 상당 구성으로 본다면 그 공동격을 거느리는 서술어를 대동사 ‘ㅅㅡ’로 보아야 하는데 그 경우 대동사의 의미가 모호해짐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한문 원문을 고려했을 때 ‘與’는 개사(介詞)가 아니라 본동사로 쓰였음을 감안하면 구결문에서도 ‘與ㅌㅅㅡ’ 전체를 서술어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ㅅ2’의 대동사 용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유어 어근 ‘與ㅌ’에 ‘ㅅ$_1$’이 결합한 것으로 파악한다.

(2) 가. 東方ㅇㅌ 寶柱菩薩ㄱ 九百萬億 大衆ㅣ 俱ㅌㅅㄱㄹ 共ㅌ 來ㅅㅇㅎ {此}ㅣ 大會ㅇㅓ 入ㅅㄴㅎ <구인03:08-09>

(황선엽(2013) 현대어역: 東方에 있는 寶柱菩薩은 갖추어진 九百萬億 大衆과 함께 와서 이 대회에 들어오시며)

나. 西方ㅇㅌ 善住菩薩ㄱ 十恒河沙ㅌ 大衆ㅣ 俱ㅌㅅㄱㄹ 共ㅌ 來ㅅㅇㅎ {此}ㅣ 大會ㅇㅓ 入ㅅㄴㅎ <구인03:10-11>

(황선엽(2013) 현대어역) 西方에 있는 善住菩薩은 갖추어진 十恒河沙의 大衆과 함께 와서 이 대회에 들어오시며

(2)는 고유어 어근인 ‘俱ㅌ’에 ‘ㅅ$_1$’이 결합한 경우이며 장윤희(2006)과 이병기(2014: 46)에서는 (1)의 ‘與ㅌㅅㅡ’와 동일하게 ‘다ᄆᆞᆫᄒᆞ-’로 독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장윤희(2006: 127)에서는 (2)의 ‘俱ㅌㅅㅡ’의 어간은 (1)과 같은 ‘與ㅌㅅㅡ’와 같이 나타나며 부사 ‘俱ㅌ/與ㅌ’에 파생저미사 ‘-ㅅㅡ’가 결합한 것이라 하였다. 즉, ‘俱ㅌㅅㅡ’과 ‘與ㅌㅅㅡ’는 독법이 ‘다ᄆᆞᆫᄒᆞ-’로 같은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俱ㅌㅅㅡ’와 ‘與ㅌㅅㅡ’는 서로 취하는 논항이 상이하다. ‘俱ㅌ’는 (2)와 같이 주격으로 파악할 수 있는 ‘九百萬億 大衆ㅣ’과 ‘十恒河沙ㅌ 大衆ㅣ’를 논항으로 삼으며 ‘與ㅌㅅㅡ’는 최성규(2016: 16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와 더불어’로 쓰인 경우, 대격조사 이외에 다른 조사가 쓰인 예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근인 ‘與ㅌ’은 ‘俱ㅌ’와 같은 것이 아니라 (2가)의 ‘共ㅌ’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서로 취하는 논항도 대격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2)의 ‘俱ㅌㅅㅡ’는 ‘與ㅌㅅㅡ’와 동일한 단어 혹은 동일한 의미라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황선엽(2013)의 현대어역과 같이 현대어의 ‘갖추다’에 대응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그렇다면 후기중세 한국어의 ‘ᄀᆞᆺ(具)-’을 고려하여 ‘*

ᄀᆞᆺᄒᆞ-'로 독법을 추정할 수 있으나 '*ᄀᆞᆺᄒᆞ- > ᄀᆞᆺ-'의 과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뒤에서 다시 상술하도록 하겠다.

(3) 가. 業報ㄹ 從ㅌᆞᄉᆞᄋᆞ 諸ㄱ 行ㅌ 因緣ㄹᆞᆫ{之} 造作ㅅㄱ 所ㅣᄋᆞ 一切ㅊㅌ 虛假ᄉᆞᄀᆞ 空ᄀᆞᄒᆞ 實 無ㅌᄋᆞ{有} <화소18:11-14>

(안대현(2013) 현대어역: 業報를 따르며 모든 行의 因緣으로 造作하는 바이며 모두 虛假하여 비어서 실상이 없으며)

나. 他ㄹ 從ㅌ 觀ᄀᆞㅌ 順ᄉᆞㄱ 正法ㄹ 聞ㅁ 不ᄉᆞᄉᆞㅁㅅㄹ 是ㄹ 名ㅎ 毘鉢舍那支ᄀᆞㅌ 不隨順ᄉᆞㄱ 性ㅅㅣㅇᄋᆞᄋᆞ <유가26:20-21>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다른 사람을 좇아 관에 수순하는 정법을 듣지 않는 것을 이를 일컬어 비발사나지에 수순하지 않는 성품이라 하며)

(3)은 고유어 어근 '從ㅌ'에 'ᄉᆞ$_1$'이 결합한 경우이나 (3나)에 '從ㅌ'이 부사로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를 본다면 이 역시 '與ㅌᄉᆞ-'와 마찬가지로 '從ㅌ#ᄉᆞ-'의 구성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성규(2016: 144-146)에서 (3가)의 경우는 '좇다, 따르다'를 뜻하므로 동사 본연에 의미에 가까우며 구결토를 보았을 때 부사처럼 보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현희(2009: 150)에서는 (3나)와 같이 '從ㅌ'이 단독으로 부사로 사용되었을 때에도 뒤에 'ᄉᆞᄀᆞ'가 생략된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부사 자체가 처격어나 공동격어등을 지배하는 현상은 존재하지만 주격이나 대격어를 지배하는 것은 부사 자체의 성격에 위배되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3)의 '從ㅌᄉᆞ-'는 훈독 어근 '從ㅌ'에 'ᄉᆞ$_1$'이 결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4) 가. 經ㄹ 諷誦ᄉᆞㅿㄱ 時ㅏㄱ 當 願 衆生 佛ㅊ 說ㅱㅎㄱ 所ᄀᆞㅌ 順ㅌᄉᆞᄀᆞㅂ 摠持ᄉᆞᄀᆞᄒᆞ 忘ㅁ 不ᄉᆞㅌᄉᆞ <화엄08:03>

(김성주(2013) 현대어역: 經을 諷誦할 때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부처님이 이르신 것을 좇아서 모아 잡아서 잊지 마소서

나. 菩薩ㄱ 種種ㅌ 方便門ㄹᆞᆫ 世ㅌ 法ᄀᆞㅌ 隨ㅎ 順ㅌᄉᆞᄀᆞ 衆生ㄹ 度ㅣㅎㅁㅁ <화엄19:04>

(김성주(2013) 현대어역: 菩薩은 갖가지 方便門으로 世間法을 좇아 따라 衆生을

건네되)

(4)는 고유어 어근 '順ㅌ'에 'ㅅ$_1$'이 결합한 경우이다. 오로지 위의 두 개의 용례만 확인되는 단어이며 (4)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 연관지어 독법을 추정할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현희(2009: 150, 각주46)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3)의 '從ㅌㅅ-'와 (4)의 '順ㅌㅅ-'에 대해 '좇#ㅎ-'의 구성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완합성어인 '좇#ㅎ-'가 나중에 긴밀합성동사화하여 '*조ㅊ-'가 된 다음에 다시 '좇-'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때 '앚#ㅎ-'(小), 'ᄀᆞᆮ#ㅎ-'(如), '비#ㅎ-'(雨) 등의 이완합성어적인 구성이 '아ㅊ-', 'ㄱㅌ-', '비ㅎ-' 등의 긴밀합성어적인 단계를 거쳐 중세국어의 '앚-'(微, 小), 현대국어의 '같-'(如), 중세국어의 '빟-'(雨) 등의 단계에까지 간 변화와 평행적일 가능성이 있음을 덧붙였다.

이와 같이 생각해 본다면 (3)과 (4)의 독법은 '좇ㅎ-'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2)에서 확인한 '俱ㅌㅅ-' 또한 동일하게 '*ᄀᆞᆮ#+ㅎ- > *ㄱㅊ->ᄀᆞᆮ-[53]'의 과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54]

(5) 我ㄱ 今ㅅㄱ 衰老ㅅㅇ 身ㄱ 重疾ㅇㅓ 嬰ㅌㅅㅎ <화소10:18>
(안대현(2013) 현대어역: 나는 지금 노쇠하여 몸은 중병에 걸렸으며)

(5)은 고유어 어근 '嬰ㅌ'에 'ㅅ$_1$'이 결합한 유일한 용례이다. 그러나 독법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기에 어떤 서술어에 대응하는지 알기 어렵다.[55] 다만 '嬰'에 말음 첨기가 되어있는 만큼 해당 단어의 의미만을 짐작해볼 수 있다.[56]

---

53) 三界火宅ᄋᆡ 受苦ㅅ 양ᄌᆞ를 ᄀᆞᄎᆞ 드러 니ᄅᆞ샤 <월석 12:38>
54) 이병기(2014: 46)에서는 '順ㅌㅅ-'의 독법을 '좇ㅎ'로 추정하였다.
55) 최성규(2016: 237)에서는 (1)에 대해서 '嬰ㅌㅅ-'에 선행하는 'ㅇㅓ'는 처격의 기본 기능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嬰ㅌㅅ-'의 서술어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말음첨기 'ㅌ'이 보이므로 분명히 고유어로 읽었을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상황·환경] 의미로 쓰인 듯하나 현대국어 '병에 걸리다'를 생각하면 관용구처럼 생각해 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병기(2014: 46)에서도 'ㅌ'은 동사의 말음을 표시하였음을 언급하였다.
56) 한자 '嬰'은 '여자의 목걸이', '갓난 (여자)아이'라는 명사적인 의미도 존재하지만 '에워싸다, 둘러싸다', '만나다, 당하다'의 의미도 존재한다.

(6) 가. 當ハ 知ㄱㅣ 此 障ㅋㅓ 略ㅁㄱ 二種 有ㅌㅅㄱㅐㄱㅜ[57] <유가 26:03-04>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장애에 간략히 말하면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나. 晝夜 三時ㅋㅓ 大ㄱ 銅鑊 有ㅌㅅㄱㅣ <자비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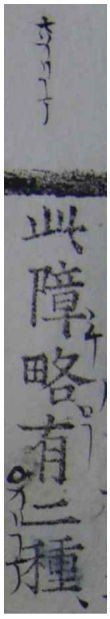
(허인영(2019) 현대어역 : 주야 세 때에 큰 구리 솥이 있으니)

다. (菩)薩力ㄷ (以) 故ㅣ 還ㅣ 得ㅋㅎ 不墮ㅅㅋ 損傷ㅣㅍ 無{有}ㅅㄹ 痛(惱) 無有ㅌㅅㄹㅅㅌㅣㄱㅅㄷ 菩薩 悉 見ㅏㅎㅌㅣ <금광06:14-06:15>

(이용(2013) 현대어역: 菩薩力으로써 도리어 능히 떨어지지 않아 損傷됨 없고 痛惱함 없고 한 것을 菩薩은다 본다)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유어 어근 '有ㅌ'는 그 자체로 '잇-'으로 훈독하는 어간이며 '有ㅌㅎ', '有ㅌㅋ', '有ㅌㅣ'와 같이 바로 어미가 결합하여 활용하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6)과 같이 고유어 어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ㅅ$_1$'으로

57) 본문에는 '有'에 좌측토로 '□ㅣㄱㅐㄱㅜ'를 썼다가 '□'자리를 지우고 그 자리에 교정용 고리점을 친 다음, 난상에 'ㅌㅅㄱㅐㄱㅜ'를 기입하였다. 특이한 것은 난상에 일반적인 'ㅅㄱㅐㄱㅜ'가 아니라 [잇-]과 [ㅎ-]가 혼재된 '(有)ㅌㅅㄱㅐㄱㅜ'로 기록하였다는 점이며 난상에 새로 기입한 교정형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오기로 보기도 어렵다(장경준 외 2015: 350 각주 2).



볼 수 있는 요소가 결합한 것이다.

기존에 『자비도량참법』 권4의 자토석독구결 낙장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6가)의 용례가 유일하였으나 발견에 따라 (6나)에서도 같은 형태가 문증되었다. 장윤희(2006: 127)에서는 '有ㅌㅅ-'에 대해 영파생에 의한 부사 '有ㅌ'과 '-ㅅ(ㅎ)-'의 통합에 의해 형성된 단어로 설명하였으나 구체적으로 '有ㅌ'부터가 부사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설명이 없으며 만약 부사라면 '有ㅌ'가 어떤 부사에 대응하는지 혹은 독법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에 동의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지금으로써는 현대 한국어 '있다'에 대응하는 의미를 가지며 용례가 추가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오기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6다)와 같이 같은 어근은 아니지만 '無有ㅌㅅ-'와의 연관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7) 가. 佛子ㅋ 何ㄱ {等}ㅣㅅㄱㄹ 菩薩摩訶薩ㄱ 念藏ㅣㅅㅇㅁ{爲}ㅅㅏㅈㄱㅅㄱ <화소20:05-06>

(안대현(2013) 현대어역: 불자야, 어떤 것들을 보살마하살의 念藏이라 할 수 있는가 하면)

나. 若ㅌ 水ㅋㅓ 入ㅅㅊㄱ 時ㅓㄱ 當 願 衆生 一切 智ㅋㅓ 入ㅅㅋㅎ 三世ㄱ 等ㅋㅅㄱㅅㄹ 知ㅂㅈ <화엄07:23>

(현대어역[58]: 만약 물에 들어가는 때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중생이 일체 지혜에 들어가서 삼세의 것들을 아소서)

(8) 가. 五色 等ㅅㄱ 法ㅅ 有無ㅌ 一切 等ㅅㄱ 法ㅅ {如}ㅣㅅㄱㅂㅎ <구인14:09-10>

(황선엽(2013) 현대어역: 五色 등의 법과 有無의 모든 것 등의 법과 같은 것이며)

나. 何ㄱ 等ㅅㄱㄹ {爲}五ㅂㅣㅅㅇㅁ <유가05:19>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어떤 것들을 다섯이라고 하는가?)

---

58) 김성주(2013)에 해당 부분의 현대어역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필자가 수정하였다. 이병기(2014: 49 각주 88)에서는 '三世ㄱ'을 주어적 속격으로 보아 '만약 물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중생이 일체 지에 들어 삼세가 같음을 아소서'로 현대어역을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고 '{等}ㅣㅅ-'와의 의미적 통일성을 고려하여 번역하였다.

(7가)는 고유어 어근 '{等}ㅣ'에 'ㅅ$_1$'이 결합한 것이며 (8)의 '等ㅅ-'가 동일한 단어의 한자어 어근과 'ㅅ$_1$'인 것을 고려하여 (7가)의 '等'을 부독자로 처리하고 '{等}ㅣㅅ'에 대한 독법을 '다ᄒᆞ-'로 추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7나)는 독법을 고려하면 '等ㄱ'는 '다'로 읽히는 고유어 어근이며 이에 'ㅅ$_1$'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等}ㅣㅅ-'의 경우 대부분의 용례가 (7가)와 같이 '{等}ㅣㅅㄱ'의 형태로 문증되며 '것 등의, 등의' 정도로 옮길 수 있으나 정확히 어떠한 단어에 대응하는지는 알기 어렵다.[59]

(9) 가. 善男子ㄱ 菩薩 七地ㄱㅜㄱ 是 相 前現ㅣㅇㅁ 左邊ㅡ 右邊ㅡㅣㅇㅜㅅㄱ 地獄ㄱㅜ 墮 應ㅎㅅㅗㅣㅅㅎㅡ <금광06:13-06:15>

(현대어역[60]: 선남자여 菩薩의 七地에서는 이 相이 前現하되, 左邊이니 右邊이니 하는 곳에서 하여 떨어짐이 마땅하다 하지만)

나. 一切 世間ㅋ 好ㅎ 尙ㅎㅇ 所ㅎ 色相ㅣ 顔容ㅣ 及ㅎ 衣服ㅣㅣㅇㅜㄹ 應ㅎㅣㄱ 隨ㅎ 普 現ㅎㄱㅁ 其 心ㄱㅜ 愜ㅎㅅㄱ 色ㄹ 樂ㅎㅅㅇㅜㅎ 者ㅎㄹ 皆ㅎ 道ㄱㅜ 從ㅎ 俾ㅂㅜㅎ <화엄18:04-5>

(장윤희(2001) 현대어역: 모든 世間의 좋고 높은 色相이며 容이며 衣服이며 하는 것을, 마땅함을 좇아, 널리 드러내되 그 마음에 흡족히 하여 色을 즐기는 자를 모두 道에 따르도록 하며

다. 是 如ㅌ 難行ㅣㅇㅜㅎ 苦行ㅎ 法ㄹ 菩薩ㄱ 應ㅎㅣㄱ 隨ㅎ 悉ㄱ 能ㅌ 作ㅅㅜㅎ <화엄19:17>

(장윤희(2001) 현대어역: 이와 같이 행하기 어려운 苦行의 法을, 菩薩은 마땅함을 좇아 모두 잘 지으며)

(9)는 고유어 어근 '應ㅎ'에 'ㅅ$_1$'이 결합한 경우이며 '마땅하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이승재 1995: 241-243, 장윤희 2001: 14). 그러나 이 용례 자체만으로는 말음 첨기 'ㅎ'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독법을 추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위해 'ㅎ應ㅎㅅ-'에 해당하는 용례를 살펴보자.

---

59) 이병기(2014: 49 각주 90)에서는 '{等}ㅣㅅㄱ'에 대해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지만 속격 조사, 목적격 조사, 계사 등이 결합하기도 하여 자체로 명사적인 용법도 갖는다고 하였다.

60) 황선엽 외(2009)를 참고하여 이용(2013)의 현대어역을 필자가 수정하였다.

(10) 가. 我ㄱ 今ㅅㄱ 宜ㄱ 彼ㄹ 求ノㄱ 所ㄹ 隨ㄱ 其 意ㄹ 充滿ㅅㅣㄱㅎ應ㅌㅅㄱㅣㄱㅣㄱㅣㅅㅏㄱ <화소11:13-14>

(안대현(2013) 현대어역: '나는 지금 마땅히 저의 구한 바를 따라 그 意를 充滿하게 해야 하리로다.' 하며)

나. 我ㄱ 當ㅅ 心自在性ㅡ 定自在性ㅡノㅁㄹ 證ノㅎ應ㅌㅅㄱㅣㅣㄱㅌㅣㅅㄱ <유가16:14-15>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나는 반드시 심자재성이니 정자재성이니 하는 것을 증득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여)

다. <유가22:09-10> 彼ㄱ 淸淨ㅣ 此 五相ㄹ 由ㄱ 難ㄱ 成辦ノㅎ可ㅌㅅㄱㅅㄹ 觀ㅅㄱㅎ 心ㄱ�十 厭患ノㅁㅅㄹ 生ㅣㅏㅎㅌㅣ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그는 청정이 이 다섯 상으로 말미암아 어렵게야 이룰 수 있는 것을 觀하여서 마음에서 염환을 낸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9) '應ㅌㅅ-'가 단독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이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용례는 (10)과 같이 '-ㅎ應ㅌㅅ-'이다. 이미 많은 선행 연구에서 해당 구성은 후기중세 한국어 시기의 '-암/엄 직ᄒᆞ-'와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독법을 '-음짓ᄒᆞ-'로 제시하였다.[61]

또한 장윤희(2001)에서는 해당 구성 명사형 전성어미 '-ㅎ'과[62] 보조형용사 '應ㅌㅅ-'의 결합 구성으로 파악하였으며 이 시기에 이미 (9)와 같은 형용사로서의 '應ㅌㅅ-'의 쓰임보다는 (10)과 같이 보조형용사로 사용되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9)의 독법을 추정한다면 '짓ᄒᆞ-'로 볼 수 있다.

61) 남풍현(1993), 이승재(1995), 박진호(1998), 장윤희(2001) 등.
62) 이때 '應ㅌㅅ-'에 선행하는 'ㅎ'에 대한 문법적 검토는 최성규(2017)을 참고할 수 있다.

4. 문장 형성에 참여하는 'ㅅ'

4.1. 아우름 동사

본 연구에서 아우름 동사는 연결어미 '-ㄹ' 혹은 '-ㅁ'를 통해 나열되는 절 또는 '-ㅡ/ㅣ'과 '-ㅅ'를 통해 나열되는 명사구 마지막에 'ㅅ'가 선행한 절 또는 명사구들을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표현으로서의 동사를 말한다.

(1) 能ㅣ矣 制伏ㅅㅗㅁ 無ㄹ 量ㅣ 無ㄹ 盡ㅇ 無ㄹ 大威力ㄷ 具ㅋㄹ {是}ㅣㄱ 佛境界ㅣㄹ 唯ㅎ 佛ㅃㅣ 能ㄷ 了ㅅㅁㅋㅈㄹㅅㅏㅣ <화소24:14-15>
(안대현(2013) 현대어역: 능히 制伏시킬 수 있는 것이 없고 한량없고 다함이 없고 大威力을 갖추었고 이는 佛境界이고 오직 부처이시어야 능히 아시는 것이고 하다)

(2) 三者 眞俗 勝智ㄷㅅㅁ 四者 見思煩惱ㄷ 是 如ㄷㅅㄱ 勝智ㅠ 能ㅁ 分別ㅅㅗ 斷ㅅㅁ 五者 {於}世間ㅌ 五明ㅌ{之} 法ㅗㅜ (皆 悉)ㅗ 通達ㅅㅁㅅㅇㅊㅏㄱㅣㅣ <금광04:01-03>
(이용(2013) 현대어역 : 셋째, 眞俗勝智를 하며 넷째, 見思煩惱를 이와 같은 勝智로 능히 분별하여 끊으며, 다섯째, 世間의 五明의 법에 대해서 모두 다 통달하며 하는 것이다)

(1), (2)는 아우름 동사의 예이다. (1)는 연결어미 '-ㄹ'에 의해서 동사구와 형용사구가 나열되었으며 마지막 동사구인 '了ㅅㅁㅋㅈㄹ' 다음에 아우름 동사 'ㅅ-'가 나타난다. (2)의 경우는 연결어미 '-ㅁ'에 의해 동사구가 이어지며 마지막 동사구 '通達ㅅㅁ' 다음에 아우름 동사 'ㅅ-'가 나타난다. 아우름 동사가 아우르는 동사구의 나열은 연결어미 '-ㄹ' 또는 '-ㅁ'로 이루어진다.

(3) 가. {我}ㅌ 等ㅅㄱㄱ 爲ㅇ 救護ㅅㄹ 利益ㅅㄹㅇㅇㅅㄷ 作ㅅㅗ 一切 障礙ㄷ 消除ㅅㅣㅁ <금광15:13>

(이용(2013) 현대어역: 우리는 (善男子 善女人을) 위하여 救護하고 이롭게 하고 하는 일을 지어 一切 障礙를 消除시키며)

나. 四 {於}般涅槃ㅋㅓ 心ㅋㅓ 恐怖ㄹ 懷ㅎ 瞋恚 與ㅌ 俱ㅅㅋ 其 心 怯弱ㅅㅎㅣㅇㅗㅌ 二 所治ㅌ 法ㅣㅎ <유가12:06-07>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넷째는 반열반에 대해 마음에 공포를 품고 성냄과 더불어 함께하여 그 마음이 겁약하고 하는 두 가지 대치해야 할 법[所治法]이며)

다. 又 {於}涅槃ㅋㅓ 勝功德ㄹ 見ㅅㅎㅣㅇㅗㅌ 此 五相ㄹ 由ㅋㅅㅇㅏㅅㅏㄹ 是ㄹ 名ㅜ 第三處ㅋㅓ 觀察ㅅㅇㅏㅈㅣㅇㅓㅣ <유가17:23-18:01>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또 열반에서 뛰어난 공덕을 보며 하는 이 다섯 상으로 말미암아 (관찰)하는 것을, 이를 일컬어 세 번째 처소에서 관찰하는 것이라 한다)

아우름 동사가 'ㅣㅡ'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3)의 경우와 동일한데, 아우름 동사가 명사구 보문 구성을 이룰 경우에는 (3)과 같이 아우름 동사에 선어말어미 '-오-'가 포함된 'ㅣㅡ'가 나타난다. (3가)는 의존명사 'ㄷ', (13나, 다)는 의존명사 '이'를 통한 보문구성을 보이고 있다.

아우름 동사는 위에서 살펴본 절 단위만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명사구 단위의 나열 또한 아우르기도 한다.

(4) 가. 一切 世間ㅋㅌ 諸ㄱ 天ㅇ 魔ㅇ 梵ㅇ 沙門ㅇ 婆羅門ㅇ 乾闥婆ㅇ 阿修羅ㅇㅅㅏ {等}ㅣㅅㄱㅣㅇ 及ㅌ 以ㅋ 一切 聲門ㅇ 緣覺ㅇㅣㅇㅗㄹ 動ㅏ 不能ㅣㅊㅣㅇㅏ 所ㅣㅊㅏㅎㅌㅣ <화엄08:17-18>

(김성주(2013) 현대어역: 一切 世間의 모든 天이니 魔니 梵天이니 沙門이니 婆羅門이니 乾闥婆니 阿修羅니 하는 등이니)

나. 量 無ㅌㄱ 菩薩ㅇ 比丘ㅇ 八部ㅇㅣㅇㅗㅌ 大衆ㅣ 有ㅏㅎㅏㄴㅜ <구인02:04>

(황선엽(2013) 현대어역: 한이 없는 보살이니 비구니 八部니 하는 大衆이 계셔서)

다. 及ㅌ 廣ㅣ 謂ㄱ 契經ㅡ 應頌ㅡ 記別ㅡ 諷頌ㅡ 自說ㅡ 緣起ㅡ 譬喩ㅡ 本事ㅡ 本生ㅡ 方廣ㅡ 希法ㅡ 及與ㅌ 論議ㅡㅇㅏㅈㅏㄹ 分別ㅅㅎㅅㄴㅏㅈㅣ

<유가03:03-05>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그리고 널리 이른바 계경이니 응송이니 기별이니 풍송이니 자설이니 연기니 비유니 본사니 본생이니 방광이니 희법이니 그리고 논의니 하는 것을 분별하고 하시는 것이다)

(4)에서 'ㅣ'와 'ㅡ'는 명사구 나열 시 사용되는 조사이고 그 끝에는 앞서 나열된 명사구를 아우르는 아우름 동사가 나타난다. (4가)에서는 '天, 魔, 梵, 沙門, 婆羅門, 乾闥婆, 阿修羅'가 조사 'ㅣ'를 통해 나열되고 마지막에 아우름 동사 'ㅅ-'가 나타난다. 현대어역을 한다면 '-이니 하-'정도로 옮길 수 있다. 이때 대동사는 대부분 명사구 보문 구성으로 이어지기에 (4가)의 '緣覺ㅣㅅ令ㄹ'나 (4나-다)처럼 선어말어미 '-ㄱ-'가 포함된 'ㅅ-'로 현토된다.

이때 명사구 나열의 조사 'ㅣ'와 'ㅡ'는 4.2에서 다룰 인용 조사와 그 형태가 같지만 그 기능은 다르다. 'ㅣ'와 'ㅡ'가 인용 조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4)와 같은 나열되는 아우름 동사 구문이 아니라 주로 명명구문이기 때문이다. 이는 4.2.1에서 상술하겠다.

(5) 是 如ㅎ 先下 說ㅅㄱ 所乙 如ㅎㅅㄱ 若 修處所ㅅ 若 修因緣ㅅ 若 修瑜伽ㅅ 若 修果ㅅㅅ 一切乙 摠ㅋ 說ㅋ {爲}修所成地ㅡㅅㅓㅣ <유가32:04-06>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이와 같이 먼저 말한 바와 같은 수처소와 수인연과 수유가와 수과와 하는 일체를 총괄하여 말하여, 수소성지라고 한다)

또한 (4)와 같이 명사구 나열조사 'ㅣ' 혹은 'ㅡ' 뿐만 아니라 (5)처럼 'ㅅ'를 통해 나열된 명사구에도 결합한다.

(6) 正法輪乙 轉ㄹ 寂滅ㅋㅓ 入ㅅㄹ 乃ㅣ 至ㅣ 舍利乙 廣ㅣ 分布ㅅㄹㅅㅁㅌㅎ <화엄14:20>

(김성주(2013) 현대어역: 바른 法輪을 굴리고 寂滅에 들고 내지 사리를 널리 분포하고 하며)

(6)에서는 (1), (2)와 같이 아우름 동사가 종결형으로 끝나지 않고 연결어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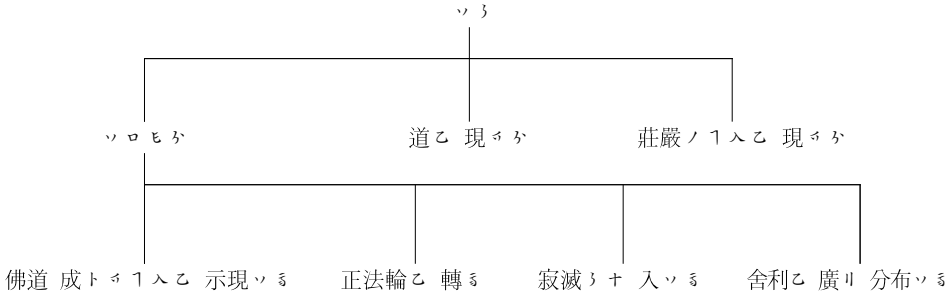
ㅎ'에 의한 활용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연결어미 '-ㄹ'와 '-ㅎ' 간에 모종의 위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보여준 (6)의 전체 문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7) {於}彼 十方 世界ㅌ 中ㅇㅓㅅ 念念ㅇㅓㅅㅓㅣ 佛道 成ㅏㅎㅓㄱㅅㄹㅇㅡ 示現ㅅㅡㄹ 正法輪ㅇㅡ 轉ㅡㄹ 寂滅ㅇㅓㅅ 入ㅅㅡㄹ 乃ㅇㅣ 至ㅣㄹ 舍利ㅇㅡ 廣ㅣㄹ 分布ㅅㅡㄹㅅㅗㅁㅌㅎ 或ㅅㅓㄱ 聲聞ㅇㅣ 獨覺ㅌ 道ㅇㅡ 現ㅎㅏㅎ 或ㅅㅓㄱ 成佛ㅅㅡㅇㅗㅎ 普ㅣㄹ 莊嚴ㅅㅓㄱㅅㄹㅇㅡ 現ㅎㅏㅎㅅㅡㅇ <화엄14:19-21>

(김성주(2013) 현대어역: 저 십방 세계의 가운데에 念念마다 불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고 바른 法輪을 굴리고 寂滅에 들고 내지 사리를 널리 분포하고 하며 혹은 聲聞이니 獨覺이니의 道를 나타내며 혹은 成佛해서 널리 莊嚴하는 것을 나타내며 하여

(7)은 (6)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문단이다. '-ㄹ'는 '-고'로 '-ㅎ'는 '-며'로 해석한 것을 고려하면 '-ㄹ'가 '-ㅎ'보다 낮은 위계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8)



먼저 '-ㄹ'로 연결된 동사구 '示現ㅅㅡㄹ', '轉ㅡㄹ', '入ㅅㅡㄹ', '分布ㅅㅡㄹ'가 'ㅅㅗㅁㅌㅎ'로 묶이고 다시 이것과 '道ㅇㅡ 現ㅎㅏㅎ', '莊嚴ㅅㅓㄱㅅㄹㅇㅡ 現ㅎㅏㅎ'가 연결되어 최종적으로 마지막 아우름 동사 'ㅅㅡㅇ'로 묶인다. 이와는 반대로 '-ㅎ'를 통한 동사구 연결에 대해서 '-ㄹ'의 활용형이 아우름 동사로 기능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다. 그러나 '－ㅎ'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먼저 '－ㅎ'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9) 가. 大王ㅜ 法輪ㅢㅣㅅㄱㅅㄱ{者} 法本如ㅢㅎ 重誦如ㅢㅎ 授記如ㅢㅎ 不誦偈如ㅢㅎ 無問而自說如ㅢㅎ 戒經如ㅢㅎ 譬喩如ㅢㅎ 法界如ㅢㅎ 本事如ㅢㅎ 方廣如ㅢㅎ 未曾有如ㅢㅎ 論議如ㅢㅎㅅㅏㅣ <구인15:22－25>

(황선엽(2013) 현대어역: 大王이시여, 法輪이라 하는 것은, 法本如이며, 重誦如이며, 授記如이며, 不誦偈如이며, 無問而自說如이며, 戒經如이며, 譬喩如이며, 法界如이며, 本事如이며, 方廣如이며, 未曾有如이며, 論議如이며 하다)

나. 一ㅓㄱ {於}无常ㅋㅓ 苦想ㄷ 修習ㅅㅎ 二 {於}衆苦ㅋㅓ 无我想ㄷ 修ㅅㅎ 三 {於}飮食ㅋㅓ 厭逆想ㄷ 修ㅅㅎ 四 {於}一切 世間ㅋㅓ 不可樂想ㄷ 修ㅅㅎㅅㅏㅊㅣ <유가09:08－11>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첫째는 무상에 대해 고상을 닦아 익히며 둘째는 뭇 괴로움에 대해 무아상을 닦으며 셋째는 음식에 대하여 염역상을 수습하는 것이며 넷째는 일체 세간에 대해 불가락상을 닦으며 하는 것이다)

다. 云何ㅅㄱㄷ 名ㅜ {爲}十種 過失ㅢㅣㅇㅇㅁ 謂ㄱ 所ㄱ 外ㅌ 諸 欲ㄷ 依ㅅㄱㄹㅓ 有ㅌㄱ 所ㅌ 愁歎 憂苦 種種 惱亂ㅢㄱ 苦苦 相應ㅅㄱ 過失ㅢㅎ … (중략) … 又 發起行雜染品ㅌ 過失 {有}ㅐㅎㅅㅏㅊㅣ <유가30:15－23>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어떤 것을 일컬어 열 가지 잘못이라고 하는가? 말하자면 밖의 여러 욕을 의지한 이에게 있는 바의 시름과 탄식, 근심과 괴로움, 갖가지 뇌란인 고고에 상응하는 잘못이며 … (중략) … 또 행잡염품을 일으키는 잘못을 지니며 하는 것이다)

(7)에서 살펴본 '－ㅎ'와 '－ㅎ'의 위계로 인하여 '－ㅎ'가 사용되기 위해 반드시 '－ㅎ'가 먼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9가－다)와 같이 동사구를 나열할 때 처음부터 '－ㅎ'를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4.2. 대동사

본 장에서는 ‘ㅅ$_2$’ 중 ①구문이 ‘인용 구문’, ‘의도·목적 구문’, ‘자·타동사 구문’에 해당하고 ②어근에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실현되며 ③기능적으로는 선행절에 등장하는 동사 또는 문맥적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동사를 대용하여 논항을 취하는 ‘ㅅ$_2$’를 대동사로 정의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4.2.1. 인용 구문[63]

석독구결자료에 나타나는 ‘ㅅ$_2$’의 대동사 용례 중에 가장 많은 용례를 보이는 것은 인용 구문의 경우이다.[64] ‘ㅅ$_2$’는 먼저 인용의 조사 ‘ㆍ[65]’, ‘ㅗ[66]’가 쓰인 경우와 쓰이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인용 조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앞에는 명사구 그리고 뒤에는 선어말어미 ‘-오-’를 포함한 ‘ㅣ-’가 결합하는 ‘-ㅗㅣ-’ 또는 ‘-ㆍㅣ-’의 구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대부분 명명 구문의 용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67]

(1) 가. {是}ㅢㄷ 名下 <u>內施ㆍㅣㅇㅓㄴㅣ</u> <화소11:05>

---

63) 본 항에서는 이현희(1986)에서 분류한 ‘직접인용구문, 간접인용구문, 화자의 의심·의념을 나타내는 간접 의문’에 해당하는 구문 이외에도 명명 구문(박진호 1998, 하귀녀 2006, 이승재 2010, 전기량 2017)까지도 다룬다. 이들은 모두 구문의 동사에 따라 구분이 되므로 모두 다른 성격의 구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각 구문을 구별할 수 있는 동사가 모두 대동사인 ‘ㅅ$_2$’로 나타나며 구문의 형식상으로는 ‘[[S] ㅅ$_2$-]’와 같이 동일하므로 이들을 포괄하는 항의 제목을 ‘인용 구문’으로 하되 그 안에서 각각의 구문은 구별하여 서술할 것이다. 물론 명명 구문의 경우에는 ‘[[NPㆍ/ㅗ] ㅅ$_2$-]’로 그 형식이 다른 것들과 차이가 있으나 ‘하2’ 앞에 문장이 오는지 단어가 오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해석은 동일하게 ‘-라(고) 하-’로 되기에 같은 형식으로 간주하여 본 항에서 다룬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는 다른 구문과 구별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64) 인용 동사를 대신하여 쓰이는 ‘하다’의 경우에는 앞서 2장에서 언급한 포괄동사로 다루는 경우도 있으나(이필영 1995, 채숙희 2010) 본고에서는 문법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대동사로 다룬다(이상복 1983, 신선경 1986, 안경화 1995).

65) 『화엄경소』 권35, 『화엄경』 권14, 『구역인왕경』 권상, 『자비도량참법』 권4에서 쓰인다.

66) 『합부금광명경』 권3, 『유가사지론』 권20에서 쓰인다.

67) 인용 조사가 사용될 때에는 주로 명명구문에서 나타나기에 박진호(1998: 188)에서는 이에 대해 ‘명명의 조사’로 언급하였다.

(안대현(2013) 현대어역: 이를 일컬어 內施라 하는 것이다)

나. {是}ㅣㄹ 名下 菩薩摩訶薩ㅣ 五ㅎ 第ㅌ 多聞藏ㅣㅅㅣㅎㅏㅣ <화소09:03-09:04>

(안대현(2013) 현대어역: 이를 일컬어 보살마하살의 다섯째 多聞藏이라 한다)

다. 是 如ㅊㅅㄱ 十種ㄹ 名下 內外ㄹ 依ㅅㄱ 生圓滿ㅭㅅㅣㅎㅣ <유가03:18-19>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이와 같은 열 가지를 일컬어 안팎을 의지한 생원만이라고 한다)

라. 若 正說法ㅭ 若 正聞法ㅭㅅㅇㅌ 二種ㄹ 揔ㅎ 名下 聞正法圓滿ㅭㅅㅣㅎㅣ <유가04:06-07>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말하자면 바르게 법을 설하는 것과 바르게 법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총괄하여 일컬어 문정법원만이라 한다)

(2) 가. 何等 {爲} 世閒ㅌ 法ㅣㅅㅇㅁ <화소02:09>

(안대현(2013) 현대어역: 어떤 것들을 世間法이라 할 수 있는가?)

나. 云何ㅌㅅㄱㄹ 知ㅣㅈㅅㅇㅁ <화소18:08-11>

(안대현(2013) 현대어역: 어떠한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1), (2)는 모두 명명 구문이며[68] 4.1에서 살펴본 아우름 동사에 선행하는 나열의 조사 'ㅣ/ㅭ'와는 형태는 갖지만 그 기능은 다르다. 이를 현대어역 하면 '-라고 하-' 정도로 옮길 수 있다. 또한 'ㅅ-' 뒤에는 동명사 어미와 의존명사가 나타나는 형식이 대부분이라 선어말어미 '-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의 'ㅅ-'는 선행하는 '名下'에 대하여 대동사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69] 같

68) 박진호(1998)과 전기량(2017)에서는 (1)과 같이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이름을 제시하는 방법을 명명 구문이라 하였고 반면에 (2)와 같이 용어를 먼저 제시한 다음 용어의 의미를 풀이하는 방식을 뜻풀이 구문(설명 구문, 전기량 2017)이라 하여 이 둘을 서로 구별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ㅅ$_2$'이 모두 동사 '名'에 대응하는 것에 주목하여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하귀녀(2006)과 같이 같은 명명 구문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69) 물론 (1)과 (2)의 'ㅅ$_2$'에 대해서 명명 구문에 속한다고 무조건 명명 동사에 대한 대동사로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박진호(1998:189)에서는 (1)과 같은 경우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ㅅ$_2$'가 명명 동사의 대동사라고 하였다. 그러나 (2)의 경우에는 명명 구문이 아닌 뜻풀이 구문으로 보았기에 (2)의 'ㅅ$_2$'는 어떤 동사에 대응하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승재(2010: 67)에서는 (2가)의 '爲'가 다분히 다의적인 동사이기에 정확히 어떤 동사에 대응하는지 단언할 수 없음을 언급하며 명명 구문을 '名'이 포함된 구문으로 한정하기도 하였다.

은 명명구문이더라도 (2)처럼 의문사가 나타나고 설명의문문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나)는 (1) 그리고 (2가)와 다른 구조를 보이는데 '知尸#丁(入+氵)ノ仝口'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 의존명사 'ᄃᆞ'와 인용조사 '여'가 결합한 '뎌'를 '丁'로 표기한것으로 볼 수 있다.

(3) 가. 我ㄱ 今ㅅㄱ 貪窶ㅅㅋ 衆ㄱ 苦ㅠ 逼迫ノㄱ刂口乙彳丨 惟ㅅ 願口尸入ㄱ 仁慈ㅅ示尸入ㅠ 特ㅎ 矜念ノ尸入乙 垂刂示下ㅅ {此}刂 王位乙 捨ㅅㅋㅎ 以ㅋ {於}我ㄹ十 贍刂口ㅅ示立 我ㄱ 當ㅅ 統領ㅅㅋㅅ 王ㄹ 福樂乙 受ㅌ彳ㅅ十口乙彳丨ㅅ十ㄱ丨十 <화소11:09-11>

(안대현(2013) 현대어역: "나는 지금 가난하여 많은 괴로움으로 핍박받습니다. 오직 원컨대 인자하심으로 특히 불쌍히 여기는 것을 드리우시어 이 王位를 버려서 써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반드시 統領하여 왕의 복락을 받고자 합니다." 하는 때에)

나. 佛子ㅋ 何彳 {等}丨ㅅㄱ乙 菩薩摩訶薩尸 慧藏氵ノ仝口{爲}ㅅナ彳尸入ㄱ <화소16:18-19>

(안대현(2013) 현대어역: 불자야, 어떠한 것들을 菩薩摩訶薩의 慧藏이라고 하는가 하면)

다. 天尊ㄱ 快ㅎ 十四 王ㄹㅋ乙 說口ㅅニㄱ {是}刂 故ㅠ 我ㄱ 今ㅅㄱ 略ㅎ 佛乙 歎ㅅ白口トㄱ丨ㅅヒハニ丨 <구인11:13>

(현대어역[70]: 天尊은 快히 十四王에 대한 것을 說하시니 이 까닭으로 나는 지금 "略히 佛을 歎하옵는 것이다."라고 한다)

라. 彼刂 正法乙 受用ㅅㅋㅎ 而ㅠ 轉ㅅトノㄱ入乙 知ㅋ 恐入ㄱ 資緣 乏ㅋㅎ 是 如ㅊㅅㄱ 所受ㅌ 正法乙 退失ㅅ十尸十ㅅナ尸入ㅠ <유가03:15-17>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그들은) 그가 정법을 수용하여서 전하는 줄을 알아, 두려워하는 바는(/두려워하기를) '자연이 모자라서 이와 같은 받은 바 정법을 잃을 것인가?' 하는 까닭으로)

인용 구문에서 'ㅅ$_2$'는 인용 조사를 통해 명사구 단위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3)과 같이 절 단위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인용 조사가 나타나지 않고

70) 황선엽(2013)의 현대어역에서 인용문에 '큰따옴표' 문장 부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아 필자가 인용문에 큰따옴표를 표시하였다.

종결 표현에 바로 결합한다. ‘ㅅ$_2$’는 (3가, 다)에서는 평서형 종결어미 ‘-ㅣ’에, (3나)는 설명의문문의 의문보조사 ‘-ㅁ’에, (3라)는 판정의문문의 의문보조사 ‘-ㅊ’에 결합하였는데 (3가-다)는 인용 구문이지만 (3라)는 사유 구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何ㆍ {於}此ㅋㅓㅅ 而ㅭ 慈忍ㄴ 生ㅣㄱㅎ 容ㅌㅅㅕㅈㅏㅁㅅㅌㅣㅅㅁㅏㅇㅣ <자비21:21>

(허인영(2019) 현대어역: “어찌 이들에게 자비와 인내를 베풀 수 있겠는가 한다.” 하셨다)

대개 절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3)과 같이 인용동사를 한번 사용하여 인용한다. 그러나 (4)의 경우는 인용동사를 두 번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문장이다. 마지막 서술부를 분석하면 처음에 의문보조사로 끝나는 ‘容ㅌㅅㅕㅈㅏㅁ’에 한번 인용동사가 사용되어 ‘ㅅㅌㅣ’가 결합하였고 이것에 다시 한 번 인용동사가 결합하여 ‘ㅅㅁㅏㅇㅣ’라는 표현이 덧붙었다.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는 인용 구문이 중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2.2. 의도·목적 구문

의도·목적 구문은 현대 한국어의 '-고자 하-'와 후기중세 한국어의 '-과뎌 ᄒᆞ-', '-고져 ᄒᆞ-'에 해당하는 구문으로서 이승재(1993: 337-340)에서 지적하였듯이 욕망형 어미 '-ㅅ'와 대동사 'ㅇ'로 구성된 구조로써 전기중세 한국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도·목적 구문에서는 '爲', '欲', '爲欲'에 구결자 'ㅅ'가 현토된 뒤에 대동사 'ㅇ$_2$'가 후행한다. 이 경우에는 의도·목적 구문의 '[-ㅅ ㅇ$_2$-]' 구성이 앞의 '爲', '欲', '爲欲'가 나타내는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爲', '欲', '爲欲'들은 부독자로 처리한다. 각 부독자에 해당하는 구문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먼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爲'에 의도·목적 구문이 나타나는 용례이다.

(1) 가. 彼ㄹㅓ <u>施ㅇ{爲}ㅅㅇㄱㅡㅁ</u> 故ㅊㅣ 而ㅁ 自ㄹㅁ {之}ㅢㄷ 食ㅇㅓㅎㅣ 其 味ㅣㅓ 貪ㄱ 不ㅇㅓㅎㅏ <화소09:16>

(한문 원문: <u>爲施彼故</u>而自食之不貪其味)

(안대현(2013) 현대어역: 저들에게 <u>보시하고자 하는 까닭으로</u> 그러므로 스스로 이것을 먹는 것이지 그 맛을 貪하지 않으며)

나. 三者 願ㅇㅣㅎ 神通ㄷ 得ㅣ 衆生ㄹ 善根ㄷ <u>成熟ㅅㅢ{爲}ㅅㅇㄱㅡㅁ</u> 故ㅇㅡㅇㅏ <금광03:19-20>

(한문 원문: 三者 願得神通 <u>爲成熟衆生善根故</u>)

(이용(2013) 현대어역: 셋째는 원하여서 신통을 얻어 중생의 선근을 성<u>숙하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며</u>)

다. 又 求願ㅇㅣㄹ 勝功德ㄷ 見ㄹㅇㅣㄱㅅㄷ 由ㅣ 彼ㄷ <u>求ㅇ{爲}ㅅㅇㄱㅡㅁ 故ㅇ</u> 勇猛 精進ㅇㅣ 策勵ㅇㅣㅎ 而ㅁ 住ㅇㅏ <유가15:12-14>

(한문 원문: 又由求願見勝功德 <u>爲求彼故</u> 勇猛精進策勵)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또 구원하고 뛰어난 공덕을 보고 하는 것에 말미암아 <u>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까닭으로</u> 용맹히 정진하여 책려하여서 머무르며)

(1)은 모두 '爲'에 의도·목적 구문이 나타난 경우이다. 그러나 (1)과 같은 구성이 정말로 후기중세 한국어 '-과뎌 ᄒᆞ-' 혹은 '-고져 ᄒᆞ-'에 대응하는 구문인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의미적으로는 구결자가 현토되는 한문의 의미로 확인할 수 있기에 통사적으로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전기중세 한국어에서의 연결어미 '-ㅅ' 구성과 대동사 'ㅇ$_2$'의 관계가 후기중세 한국어에서의 '-과뎌, -고져' 구성과 'ᄒᆞ-'의 관계가 통사적으로 유사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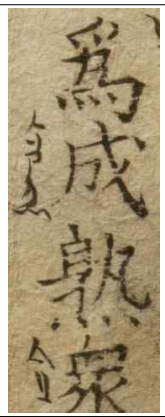
이미 후기중세 한국어의 경우는 김한결(2011)에서 통사적 특성을 밝힌 바가 있다. 김한결(2011: 42-57)에서는 후기중세 한국어 '-고져, -과뎌' 구성만으로는 그것이 내포인지 접속인지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한문 원문을 분석함으로써 '-{고져, 과뎌} ᄒᆞ-'의 내포적 구성을 논증하였다. 이와 같은 논증 방식을 참고하여 한문 원문을 살펴보면 (1가) '[爲[施[彼]]]', (1나) '[爲[成熟[衆生善根]]]', (1다) '[爲[求[彼]]]'와 같이 의도·목적 구문을 나타내는 '爲'가 후행절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구결문에서도 연결어미 '-ㅅ' 구성은 'ㅇ$_2$'에 내포된 구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71]

다음으로는 '欲'에 의도·목적 구문이 나타나는 용례이다.

(2) 가. 菩提心ㅌ 功德ㄹ 顯示ㅇ{欲}ㅅㅇㄴㅁㅡㅁ 故ㅈ 偈ㄹ 以ㅇ 賢首菩薩ㅁㅜㅌ 問ㅇ 曰ㄴㅁ <화엄08:21-22>

(한문 원문: 欲顯示菩提心功德故 以偈問賢首菩薩曰)

71) 구결자 현토 양상은 아래와 같다.

(1가)	(1나)	(1다)
		

(김성주(2013) 현대어역: 보리심의 공덕을 현시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게로써 현수보살께 물으시기를)

나. 若ヒ 一切 佛乙 供養ッ白{欲}ハッ太ㄱ丨十ㄱ {于}三昧ラ十 入ッラホ 神變乙 起ノ尸ム <화엄15:16>

(한문 원문: 若欲供養一切佛 入于三昧起神變)

(김성주(2013) 현대어역: 만약 일체의 부처님을 공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삼미에 들어가서)

다. 十六 大國王リ 意ラ十 國土乙 護ノ今ヒ 因緣乙 問白{欲}ハッニトラㄱハ乙火 知白ラロラㄱミッㄱ乃 <구인03:17-18>

(한문 원문: 知十六大國王意欲問護國土因緣)

(황선엽(2013) 현대어역: 십육 대국왕이 뜻에 국토를 수호하려는 인연을 묻고자 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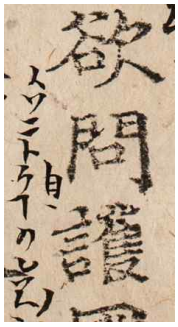
라. 初地ラ十 有相道乙 行ッ{欲}ハットㄱ乃 是ㄱ 無明リ分 <금광07:16>

(한문 원문: 初地欲行有相道是無明)

(이용(2013) 현대어역: 초지에서 유상도를 행하고자 하는 것도 이는 무명이며)

한문 원문 '欲'에 의도·목적 구문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爲'의 경우와 동일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2가) '[欲[顯示[菩提心功德]]]', (2나) '[若[欲[供養[一切佛]]]]', (3다) '[欲[問[護[國土]因緣]]]'과 같이 '의도·목적 구문을 나타내는 '欲'이 후행절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구결문에서도 연결어미 '-ハ' 구성은 'ッ$_2$'에 내포된 구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72]

72) 구결자 현토 양상은 아래와 같다.

(2가)	(2나)	(2다)	(2라)
			

마지막으로 ‘爲欲’에 의도·목적 구문이 나타나는 용례이다.

(3) 가. 諸ㄱ 仙ㅌ 行 {等}ㅣㅅㄱㄹㅋㅋ 悉ㅋ 餘ㅅㄱ 無ㅐㅅㅏㅎㅌㅣ 衆生ㄹ 利益ㅅ{爲欲}ㅅㅅㅇㅅㅡ{故}ㅣ <화엄18:19>

(한문 원문: 諸仙行等悉無餘 爲欲利益衆生故)

(김성주(2013) 현대어역: 모든 선인의 행 같은 것도 다 남음 없이 한다.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자하는 까닭으로)

나. 又 復 堅固 精進ㄹ 發起ㅅㅋ 證得ㅅ{爲欲}ㅅㅅㅇㅡ <유가22: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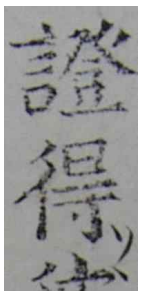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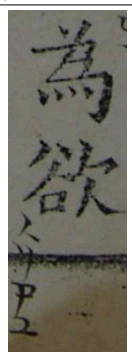
(한문 원문: 又復發起堅固精進 爲欲證得)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또 다시 견고한 정진을 일으켜 증득하고자 하는데)

‘爲欲’으로 구성된 의도·목적 구문은 앞서 살핀 ‘爲’, ‘欲’의 구문과 비교하였을 때 한문 원문이 가장 완성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3가) ‘[爲欲[利益[衆生]]]73)’, (3나) ‘[爲欲[證得]]’과 같이 ‘의도·목적 구문을 나타내는 ‘爲欲’이 후행절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구결문에서도 연결어미 ‘-ㅅ’ 구성은 ‘ㅅ$_2$’에 내포된 구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74)

73) 물론 한문 원문에서는 ‘爲’와 ‘欲’이 같은 통사적 범주로 묶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토 양상을 고려할 때 ‘爲’와 ‘欲’에 각각 구결자 ‘ㅅ’와 ‘ㅅ’가 현토된 것이 아니라 ‘爲欲’에 ‘ㅅㅅ’가 현토되었으므로 같은 범주로 묶어 분석하였다.

74) 구결자 현토 양상은 아래와 같다.

(3가)	(3나)
	 

(4) 가. 大王ㅜ {是}ㅐ 故ㅡ 佛佛ㅐ {於}世ㅓ 出現ㅅㅡㄴㅜ 衆生ㄹ 爲ㅅㅅㄴㅇㅏㅅㅡ 故ㅣ <구인14:04-05>

(한문 원문: 大王是故佛佛出現於世 爲衆生故)

(황선엽(2013) 현대어역: 대왕이시여 이런 까닭으로 부처들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중생을 위하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나. 若 說法師ㅐ 此 義ㄹ 爲ㅅㅡㅌㅅㅅㅇㅏㅅㅡ 故ㅣ 正法ㄹ 宣說ㅅㅏㄱㅣㄹ <유가05:21>

(한문 원문: 若 說法師 爲此義故 宣說正法)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만약 설법사가 이러한 의미를 위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정법을 펼쳐 말한다면(/펼쳐 말하는 것을))

다. 利養ㅡ 恭敬ㅡ 稱譽ㅡㅣㅇㅏㅇㄹ 爲ㅅㅡㅌㅅㅅㅇ 不ㅎㅅㅎㅅㅇㅏㅇㅊㅣ <유가04:19>

(한문 원문: 不爲利養恭敬稱譽)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이양이니 공경이니 칭찬이니 하는 것을 위하려고 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4)는 지금까지 살펴본 경우와 동일하게 의도·목적 구문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한문원문의 구성과 현토 양상에 차이가 있다. 먼저 '爲', '欲', '爲欲'의 의도·목적 구문에서는 해당 한자들이 모두 부독자로 처리된 반면 (4)의 '爲'는 부독자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전의 구문들은 모두 '爲', '欲', '爲欲'들이 후행하는 서술어를 지배하는 구조였지만 (4)는 후행하는 서술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爲'만 존재하므로 '爲'가 해당 문장의 서술어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4)에서 '爲'에 후행하는 요소는 'ㅅ$_1$'으로 '爲ㅅㅡ'를 형성하며 이에 선어말어미 'ㅡㅌㅡ[75]'과 연결어미 'ㅡㅅ'가 결합한 구조로 볼 수 있다. 이때 서술어 '爲ㅅㅡ'는 현대 한국어의 '위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한문 원문의 구조는 (4가) '[爲[衆生]]', (4나) '[爲[此義]]', (4다) '[爲[利養恭敬稱譽]]'로 분석할 수 있으며 해당 구결자을 현토할 때 '爲'에 대해 문장의 서술어인 '위하다'와 의도·목적 구

75) 선어말어미 'ㅡㅌㅡ'은 『유가사지론』에서 한문 원문의 '爲'가 '위하다'의 의미로 해석되면서 'NPㄹ 爲ㅅㅡㅌㅅㅅㅡ'와 같이 위하는 대상에 목적격조사 'ㄹ'이 붙는 경우에 두 번 사용 되었으며 정확한 의미기능은 미상이다(장경준 외 2015: 134, 각주 5).

문을 구성하는 요소으로 분석하였기에 구결자 'ㅅㅅ'를 함께 현토한 것으로 파악된다.[76]

(5) 가. 若ㅌ 王ㅋ 身ㅌ 手足ㅣ 血肉ㅣ 頭目ㅣ 骨髓ㅣㅇ今乙 得ㅋㅁ乙ㄱㄱ入ㄱ 我ㅋ{之} 身命ㄱ 必ㅂ 冀ㅁㄱ入ㄱ 存活ㅅㅌㄱㅅㅎㅁ乙ㄱㅣ <화소 10:19-20>

(안대현(2013) 현대어역: 만약 王의 몸의 손·발이니 피·살이니 머리·눈이니 골수·뇌니 하는 것을 얻으면 나의 身命은 반드시 바라건대 살아나고자 합니다)

나. 何ㅌㅅㄱ 事乙 作ㅅㅌㄱㅅㄷㅌㄱㅁㅋㅌㅁㅂㅂㄷㅎ <구인02:23>

(황선엽(2013) 현대어역: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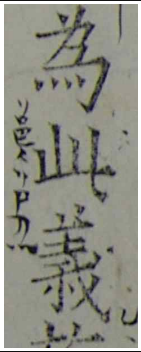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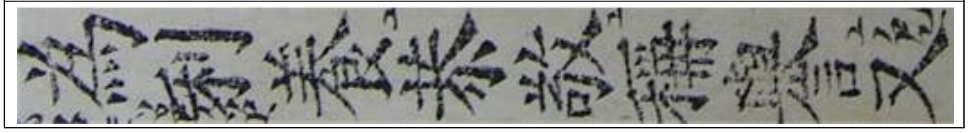
다. 世尊ㅋ 無邊身ㄱ 一 言字ㅓㄱ 說ㄱ 不多ㅅㄷㅁㄱㄴ 一切 弟子衆ㅋㅓ 法雨乙 飽滿ㅅㅁㅌㄱㅅㄱ入ㅡ 故ㅇㅅㄷㅁㄱㅎ <금광13:10-11>

(이용(2013) 현대어역: 世尊의 無邊身은 하나의 言字(만큼)도 說하지 않으시나, 모든 弟子들에게 法雨를 飽滿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하시며)

라. 乃ㅋ 至ㅁ 進修ㅅㅋㅎ 十地ㅌ 行乙 滿ㅅㄴ 金剛心ㅋㅓ 入ㅅㅋㅎ 等正覺成ㄴㅅㅋㅂ 還ㅊ 十方 一切 衆生乙 度ㅁㅌㄱㅅㅁㅌㅇㅎㅌㅣ <자비 19:07-11>

---

76) 구결자 현토 양상은 아래와 같다.

(4가)	(4나)
	
(4다)	
	

(허인영(2019) 현대어역: 내지 나아가 닦아서 십지(十地)의 행을 채우며 금강심에 들어서 등정각을 이루며 하여서 다시 시방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한문 원문에 '爲', '欲', '爲欲' 등이 없을 때에는 위의 (5)와 같이 의도의 연결어미 'ㅡㅌㅓ'가 나타난 후에 'ㅅ$_2$'가 나타나는 구성으로 문증되기도 한다.

4.2.3. 자·타동사 구문

지금까지 살펴본 '인용 구문'과 '의도·목적 구문'은 어느 정도 그 구성이 유형화가 되어 있기에 해당 대동사가 취하는 논항이 그리 유동적이지 못하며 해당 구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장에서 살펴볼 자·타동사 구문은 말 그대로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응하는 대동사 구문으로서 실현되는 논항들을 가장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이기에 대동사의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목적어를 논항으로 취하는 타동사 구문이 대다수이며 자동사 구문은 소수이다.

타동사 구문에서는 대동사가 논항으로 취하는 목적어가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여 문면에 나타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부터 살펴보겠다. 이는 현토되는 구결자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듯이 'ㅅ$_2$'가 대동사로 기능하되 선행하는 목적격 조사 '-乙'이 달린 대한 명사 혹은 명사구를 목적어로 지배하는 경우이다. 우선 4.2.1에서 언급했던 『화엄경소』 권35의 명명구문이 눈에 들어온다.

(1) 가. {是}刂乙 {爲}ㅅㅁ尸 菩薩摩訶薩尸 六亍 第七 施藏ㅣ丿彳ㄱ丨 <화소 16:17-18>

(안대현(2013) 현대어역: 이를 이름하여 보살마하살의 여섯 번째 施藏이라 하는 것이다)

나. {是}刂乙 {爲}ㅅㅁ尸 菩薩摩訶薩尸 七 第七 慧藏ㅣㅅㅁ乙亍彳ㄱㅣ <화소20:03-04>

(안대현(2013) 현대어역: 이를 이름하여 보살마하살의 일곱 번째 慧藏이라 하는 것이고)

다. {是}刂乙 {爲}ㅅㅁ尸 菩薩摩訶薩尸 十尸 第七 辯藏ㅣ丿彳ㄱ丨 <화소 26:03>

(안대현(2013) 현대어역: 이를 일컬어 보살마하살의 열째 辯藏이라 하는 것이다)

(2) 가. {是}刂乙 名下 菩薩摩訶薩尸 五亍 第七 多聞藏ㅣ丿彳ㄱ丨 <화소

09:03-04>

(안대현(2013) 현대어역: 이를 일컬어 보살마하살의 다섯째 多聞藏이라 한다)

나. {是}ㅢㄷ 名下 菩薩摩訶薩ㅁ 八 第ㅌ 念藏ㅅㅣㅈㅏㄴㅣ <화소 23:17-18>

(안대현(2013) 현대어역: 이를 일컬어 보살마하살의 여덟째 念藏이라 하는 것이다)

다. {是}ㅢㄷ 名下 菩薩摩訶薩ㅁ 九 第ㅌ 持藏ㅅㅣㅈㅏㄴㅣ <화소24:16>

(안대현(2013) 현대어역: 이를 일컬어 보살마하살의 아홉째 持藏이라 하는 것이다)

『화엄경소』 권 35는 十無盡藏品 가운데 후반부인 聞藏, 施藏, 慧藏, 念藏, 持藏, 辯藏이 실려 있다. 그중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1)의 문장이다. (1)는 앞서 기술된 각 藏에 대한 설명이 있고난 뒤에 마지막으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명명하는 문장들이다. 여기서 앞서 기술된 내용을 지시하는 '{是}ㅢㄷ' 다음에 이를 논항으로 취하는 동사 '{爲}ㅅㅁㅁ'가 나타난다. 이때 '{爲}ㅅ-'는 (2)의 나머지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藏에 대한 명명구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내용 체계 구성의 동일성을 고려한다면 '名下'에 대한 대동사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대동사가 지배하는 목적어가 명사로 문면에 들어나는 용례를 살펴보겠다.

(3) 가. 伏忍ㄷ 得ㅌㅏㅂㅣㅎ{者} 空ㅅ 無生ㅅㅣㅈㅏㅇㅌ 忍ㄷ 得ㅌㅏㅂㅣㅎ 乃ㅇ 至ㅂㅣ 一地ㅅ 十地ㅅㅣㅈㅏㅇㅌ 不可說ㅌ 德行ㄷㅅㅣㄱㅌㅏㅂㅣㅎㅣㄴㅣ <구인14:15-16>

(한문 원문: 得伏忍者 得空無生忍乃至一地十地不可說德行_

(현대어역[77]): 伏忍을 얻는 이도 있으며 空이니 無生이니 하는 忍을 얻는 이도 있으며 (내지) 一地니 十地니 하는 不可說의 덕행을 얻는 이도 있었다)

나. 圓智ㄱ 無相ㄷㅅㅣㄴㅌ 三界ㅌ 王ㅂㅣㅁ 三十生ㄷ 盡ㅇㅣㅁ 等ㅇ 大覺ㅅㅣㄴㅎ 大寂無爲ㅂㅣㄱ 金剛藏ㄷㅅㅣㄴㅎ 一切 報ㄷ 盡ㅇㅣㅁ 無極ㅅㄱㅌㅌ 悲ㄷㅅㅣㄴㅎ <구인11:03-4>

77) 본문의 논지에 맞게 필자가 황선엽(2013)의 현대어역을 수정하였다.

(황선엽(2013) 현대어역: 圓智는 無相을 하시어 三界의 王이라 三十生을 다하고 평등하게 大覺하시며 大寂無爲인 金剛藏을 하시며 一切 報를 다하고 無極한 慈悲를 하시며)

나′. 云何ㅌㅡㅣ 善ㅊ 念覺分ㅡ 擇法覺分 精進覺分 喜覺分 猗覺分 定覺分 捨覺分ㅡ 空ㅡ 無相ㅡ 無願ㅡㅅㅇㄹ 修習ㅅㅏ <화엄01:19-21>

(김성주(2013) 현대어역: 어떻게 (하여야) 잘 念覺分이니 擇法覺分이니 精進覺分이니 喜覺分이니 猗覺分이니 定覺分이니 捨覺分이니 空이니 **無相이니** 無願이니 하는 것을 修習하며)

다. 三生ㄹㅅㅁ 正位ㅇㅜㅏ 入ㅅㄱㅌㅋㅁㄹㅎ{者} 或ㅅㄱ 四生ㅡ 五生ㅡ 乃ㅣ 至ㅁ 十生ㅡㅅㄹㅅㅁ 得ㅎ 正位ㅇㅜㅏ 入ㅅㄱㅌㅋㅁㄹㅅㅏㅎ <구인11:17-18>

(황선엽(2013) 현대어역: 三生을 하고 正位에 들어간 자도 있고 或은 四生이니 五生이니 乃至 十生이니 하는 것을 하고 능히 正位에 들어간 자도 있고 하며)

라. 三者 眞俗 勝智ㄹㅅㅏ <금광04:01>

(이용(2013) 현대어역: 셋째, 眞俗 勝智를 하며)

라′. 是ㄱ 方便 勝智ㄹ 修行ㅅㅇㅁ <금광07:05>

(이용(2013) 현대어역: 이는 方便 勝智를 修行하되)

(3가)는 부처가 설법한 후 그 설법을 들은 대중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대동사 'ㅅ$_2$'의 선행절의 반복적인 구조에 주목할 수 있는데 모두 '-ㄹ 得-'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한문 원문의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得[伏忍]]者] [得[[空無生忍][乃至][一地十地不可說德行]]]이므로 이에 따라 마지막에 나타나는 '不可說ㅌ 德行ㄹ'를 지배하는 동사도 선행절의 구조에 따라 '得'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기에 '不可說ㅌ 德行ㄹ'를 지배하는 'ㅅ$_2$'는 '得'에 대한 대동사로 볼 수 있다.

(3나)는 총 3개의 대동사가 나타난다. 그 중 첫 번째 대동사 'ㅅ$_2$'는 '無相ㄹ'을 목적어로 지배하고 있다. 동일한 문헌은 아니지만『화엄경』권14의 용례인 (3나′)에서 '無相'을 지배하는 동사로 '修習ㅅ-'가 나타나는데 이는 智首菩薩이 文殊師利菩薩에게 물어보는 맥락의 부분이다.[78] 이와 마찬가지로 (3나)의 대동

78) 爾ㅡㅌㅅㄱ 時ㅜ 智首菩薩ㄱ 文殊師利菩薩ㅇㅜ 問ㅈ 言ㅎㅇ <화엄01:04>
(김성주(2013) 현대어역: 그때 智首菩薩이 文殊師利菩薩께 물으시기를)

사 ‘ㅅ$_2$’의 주체는 菩薩이므로 맥락 상 ‘無相ㄷ’을 논항으로 취하는 ‘ㅅ$_2$’는 (3나′)의 ‘修習ㅅㅡ’에 대한 대동사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대동사의 목적어인 ‘金剛藏’은 등각(等覺)의 경지에 이른 보살의 수행과 깨달음에 대해 설한 부처의 가르침이고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ㅡㅅㅡ’가 대동사에 결합한 것으로 보아 행위의 주체는 계속 첫 번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金剛藏ㄷ’을 논항으로 취하고 있는 두 번째 ‘ㅅ$_2$’는 ‘설법하다’ 정도에 대한 대동사로 볼 수 있으며 뒤이어 나타나는 ‘無極ㅅㄱㅌㅌ 悲ㄷ’를 목적어로 지배하는 세 번째 대동사 역시 주체 동일하며 ‘가지다(具)’ 정도에 대한 대동사로 볼 수 있다.

이어서 (3다)는 두 개의 대동사가 나타나는데 각각 목적어로 ‘三生ㄷ’과 ‘ 生ㅅ 五生ㅅ 乃ㅈ 至ㅂ 十生ㅅㅇㄷ’을 취하고 있다. 목적어는 다르지만 (3다)의 대동사는 모두 같은 동사에 대응한다고 생각되는데 모두 ‘生’이고 선행하는 수 관형사만 달라지며 그 후에 정위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3나)에서 부처가 서른 생을 다하고 정각에 든 내용을 참고하면 (3다)의 주체는 부처가 아니라 부처의 설법을 들은 중생이지만 자신의 생을 마친 후에 혹은 다한 후에 정위에 들어간다는 맥락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3다)의 ‘ㅅ$_2$’는 (3나)를 참고하여 ‘盡’에 대응한다고 판단된다.

(3라)는 菩薩摩訶薩이 般若波羅蜜을 성취하는 다섯 가지 법에 대한 佛의 설법 중 세 번째 법에 대한 설명이다. 대동사의 목적어로 나타나는 ‘勝智’는 ‘모든 분별을 떠난 지혜’ 또는 ‘방편에 뛰어난 지혜’인데[79] 동일한 문헌에서 이 승지를 지배하는 동사로 (3라′)의 ‘修行ㅅㅡ’가 나타나고 맥락상 (3라)에도 그 의미가 통한다. 따라서 (3라)의 ‘勝智ㄷ’을 목적어로 지배하는 대동사 ‘ㅅ$_2$’는 ‘修行ㅅㅡ’에 대응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목적어로 명사구가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4) 가. 猶ㅅㄱ 大海ㅇㅌ 一ㄱ 滴ㅋㅌ 水 如ㅈㅅㄱㄷㅅㅁㄷㅎㅋㅌㅣ <화엄 09:03>

(현대어역: 비유하면 大海의 한 방울 물 같은 것을 말하겠습니다)

나. 譬ㅅㄱ 鳥足ㅠ 履ㅎㄱ 所ㅌ 空 如ㅈㅅㄱㄷㅅㅎ 亦ㅅㄱ 大地ㅇㅌ 一ㄱ 微

79)『시공불교사전』

塵 如ᄉᆞᄀᆞᆯᄋᆞᄆᆞᆯᄀᆞᄒᆞᄉᆡ <화엄09:09>

(현대어역[80]: 비유하면 새발로 밟는 하늘과 같은 것을 말하며 또한 大地의 한 微塵과 같은 것을 말하겠습니다)

다. 是ㅣ 方便勝智ᄅᆞ 修行ᄒᆞᄋᆞᆷ 自在ᄒᆞᄋᆞᄉᆞㅣ 難ᄒᆞ 得ᄒᆞᄀᆞᆫᄅᆞᄋᆞᄒᆞㅣㅅᆞᆫ {故}ᄒᆞ 見思煩惱ㅣ 伏ᄒᆞᄒᆞ可ᄋᆞㅣ 不ᄉᆞᆫᄅᆞᄋᆞᄒᆞㅣㅅᆞᆫ 故ᄒᆞ <금광07:05-06>

(이용(2013) 현대어역: 이는 方便 勝智를 修行하되 自在롭게 함은 어렵게야 얻는 것을 하는 까닭이며, 見·思 煩惱가 조복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까닭으로)

(4가, 나)는 賢首菩薩이 文殊師利菩薩에게 부처의 功德에 대해 말하는 장면인데 그 중 일부분 내용에 대하여 비유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문장이다. 다시 말해 그 일부분은 '대해의 한 방울 물', '새발로 밟는 하늘', '대지의 한 작은 먼지'로 비유할 수 있다는 문장으로 볼 수 있기에 (4가, 나)의 'ᄋᆞ$_2$'는 '說(니르-)-'에 대응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다)는 보살이 수행과정에서 거치는 열 가지 단계 중 다섯 번째 단계인 난승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 때 두 번의 대동사가 나타나는데 각각 '得ᄒᆞᄀᆞᆫᄅᆞ'와 '伏ᄒᆞᄒᆞ可ᄋᆞㅣ 不ᄉᆞᆫᄅᆞ'를 목적어로 지배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대동사가 포함된 절의 선행절의 연결어미이다. 연결어미는 '-ㅎᆞᄆᆞ'로 해당절을 후행하는 절의 전제와 같은 내용으로 의미를 제한한다. 따라서 이럴 경우 후행절에 나타나는 대동사는 대부분 선행절의 서술어, 즉 연결어미 '-ㅎᆞᄆᆞ'와 결합하는 용언에 대응하기에 '修行ᄋᆞ-'에 대한 대동사로 볼 수 있다.[81] 이와 관련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상술하도록 하겠다.

명사구를 목적어로 취하는 대동사 구문 중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 구문이 모든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ㄹ ᄋᆞ-'에 대응되는 대동사 구문은 대부분 같은 문장에 나타나는 동사나 다른 문장 또는 맥락적으로 대응되는 동사가 존재한다.

---

80) (4가, 나) 문장은 모두 주어가 1인칭이며 종결부에 선어말어미 '-ㅁㅅ-'가 포함되어 있기에 '의지'를 넣어 필자가 '-하겠-'으로 현대어역을 옮겼다. 박진호(1998: 165)에서는 선어말어미 '-ㅁㅅ-'에 대해서 '의무, 당위, 가능성, 능력'의 서법요소를 담아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81) 이용(2013: 186 각주82, 83)에서는 각각 '得'과 '伏'의 대동사로 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ㅣㅁㅅㄷㅅ-'의 경우 그 자체가 '-이/가 되-'의 의미를 갖는다.

(5) 가. 信ㄱ 垢濁 無ㅋㅎ 心ㅎ 淸淨ㅅㅣㄴㅐㅎㅎ 憍慢ㄷ 滅除ㅅㅁ 恭敬ㅇㅇㅌ 本ㅣㅁㅅㄷㅅㄴㄱㅣㅎ 亦ㅅㄱ 法藏ㅋㅌ 第一財ㅣㅁ{爲}ㅅㄷㅅㅎ 淸淨手ㅣㅁ{爲}ㅅㄷㅅㅋㅎ 衆ㄱ 行ㄷ 受ㅣㄴㅐㅎㅎ <화엄09:22-23>

(김성주(2013) 현대어역: 信은 더러움 없어서 마음을 淸淨하게 할 것이며 憍慢을 없애고 공경함의 근본이 될 것이며 또한 法藏의 第一의 財物이 되며 淸淨한 手이 되어서 많은 行을 받게 할 것이며)

나. 善男子ㅋ {是}ㅣ 月光王ㄱ 已ㅈ {於}過去ㅌ 十千劫ㅌ 中ㅋㅌ 龍光王佛法ㅌ 中ㅋㅌㅅㅋ 四住ㅌ 開士ㅣㅁ{爲}ㅅㄷㅅㅣㄴㄱㄷ <구인11:20-22>

(황선엽(2013) 현대어역: 善男子야 이 月光王은 이미 過去의 十千劫의 中에 있는 龍光王佛法의 中에서 四住의 開士가 되었거늘)

다. 思擇力ㅠ 攝ㅇㅁ 不淨想ㅌ 中ㅋㅌ 當ㅅ 知ㅎㅣ 五法ㅣ 所對治ㅣㅁ{爲}ㅅㄷㅅㅐㅣㄱㅜ <유가09:20-21>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사택력으로 거두는 부정상의 가운데에, 반드시 알아야 한다, 다섯 법이 대치해야 할 것[所對治]이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라. 此ㄱ {於}寂靜ㅎㅎ 正思惟ㅅㅇㅌ 時ㅡㅌ 能ㅎ 障导ㅣㅁ{爲}ㅅㄷㅅㅁㅊㅎ <유가12:09-10>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이는 고요히 올바로 사유하는 때에 능히 장애가 되는 것이며)

(5)에서는 'ㅣㅁㅅㄷㅅ-'의 구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를 분석하면 [ㅣ(계사) + ㅁ(관형사형 어미) # ㅅ(의존명사) + ㄷ(대격조사) # ㅅ(대동사)]로 분석할 수 있다. 문법적인 구조만을 살펴보면 명사구인 'ㅣㅁㅅ'에 대격조사 '-ㄷ'이 결합하고 이를 목적어로 취하는 대동사 'ㅅ'가 후행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일 것을 하-'로 되지 않으며 '-이/가 되-'의 구성으로 나타난다.[82]

82) 박진호(1998: 199)에서는 '되다'의 의미를 갖는 한문 원문의 '爲'자에 대해서 항상 '잃 둘 ᄒᆞ-'와 같은 방식으로 구결이 달리는 것을 언급하였으며 다만 해당 구성이 중세 국어의 'ᄃᆞᄫᅵ-' 구성으로 대체된 경위는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최성규(2016: 33)에서는 해당 구성에서 NP에 결합하는 'ㅣ'에 대해 애초에 해당 용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보어도 존재할 수 없음을 언급하며 이 때 'ㅣ'를 보격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

이에 따라 '되다'와 그 보충어들을 대응시켜보면 (5가)에서 '恭敬ノ仝ヒ 本'와 '第一財' 그리고 '淸淨手'가 되는 것은 '信'이며 (5나)에서 '四住ヒ 開士'가 되는 것은 '月光王'이다. (5다)에서는 '所對治'가 되는 것은 '五法'이고 (5라)에서 '障导'가 되는 것은 선행절의 '五 卽ㄱ 是 如ㅊㅅㄱ 方便作意乙 依ㅋ {於}法ㅋㅜ 精勤ㅅㅋㅎ 論議 決擇ㅅㄹ {於}立破門ㅋㅜ 多ㅂ 言論乙 生ㅂㅋ 相續 不捨ㅅㄹㅇ ㅇㅅ<유가12:07-09>(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다섯째는 곧 이와 같은 방편 작의를 의지하여 법에 대해 정근하여서 논의를 결택하고 입론하거나 논파하는 문에 대해 많이 언론을 내어 이어서 버리지 않고 하는 것)'이다. 이들은 결론적으로는 '되다'로 해석되어 자동사 구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구결문의 통사적 구조에서 목적격 조사와 대응하는 대동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타동사 구문에서 살펴본다.

(5)에서 살펴본 '-이/가 되-'에 대응하는 '-ㅂㅇㅅ乙 ㅅ-' 대동사 구문은 아래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로 화엄경 계통에 나타나는 '-ㅂㅇㅅ乙 作ㅅ-' 구문에 대응한다.[83] 이에 따르면 (5)의 대동사 'ㅅ$_2$'는 (6)의 '作ㅅ-'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作ㅅ-'에 대해서도 '되다'로 해석할 수 있다.[84] 용례는 아래와 같다.

(6) 가. 或 國王ㅣ 及ㅌ 大臣ㅂㅇ{爲}ㅅ乙ㅅㅎ 或ㅅㅜ 良醫ㅂㅇㅅ乙 作ㅅㅋㅎ 衆ㅜ 論乙 善ㅊㅅㅎ <화엄19:09>

(김성주(2013) 현대어역: 혹은 國王이니 및 大臣이 되며 혹은 良醫가 되어서 많은 논의를 잘 하며)

나. 或ㅅㅜ {於}曠野ㅋㅜ 大樹ㅂㅇㅅ乙 作ㅅㅎ 或ㅅㅜ 良藥ㅣ 衆ㅜ 寶藏ㅣ ㅇㅊㅇ{爲}ㅅ乙ㅅㅎ <화엄19:10>

(김성주(2013) 현대어역: 혹은 曠野에서 큰 나무가 되며 혹은 良藥이니 많은 보배 창고가 되며)

다.

83) (5)의 '-ㅂㅇㅅ乙 ㅅ-'와 (6)의 '-ㅂㅇㅅ乙 作ㅅ-' 사이의 관련성은 김성주(2005: 46)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84) 물론 전후 문맥으로 고려한 것이기에 『화엄경』에 한하여 '作ㅅ-'에 대응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다른 문헌에서는 (6)과 같이 '-ㅂㅇㅅ乙 作ㅅ-'이 아니라 '-ㅂㅇㅅ乙 ㅅ-'만이 문증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해당 구문이 대동사 구문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ㅂㅇㅅ乙 ㅅ-' 구성이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或ッ丨 壞衣乙 著ッうホ 火乙 奉事ッかッう {是}リ {等}丨ッ丨乙 化ッ {爲}ス 導師リアス乙 作ッナか <화엄19:23>

(김성주(2013) 현대어역: 혹은 헤어진 옷을 입어서 불을 신봉하며 하여 이와 같은 것을 교화하고자 導師가 되며)

라. 或ッ丨 復カ 杵う十 臥ッうホ 出離ノアス乙 求ッかノアム 而ㅡ {於}彼衆ラ十 師首リアス乙 作ッナ方セ丨 <화엄20:03>

(김성주(2013) 현대어역: 혹은 또 공이에 누어서 벗어나는 것을 구하며 하되 저 衆生에게 스승이 된다)

다음으로는 주로 존재동사에 대응하는 자동사 구문이다.

(7) 가. 前ラ 已ミ {我}チ 等ッ丨 大衆ラ {爲}ミ方 二十九年う十ッニ下 摩訶般若波羅蜜ミ 金剛般若波羅蜜ミ 天王問般若波羅蜜ミ 光讚般若波羅蜜ミノ乙 說うハニラ丨<구인02:20-23>

(황선엽(2013) 현대어역: 전에 이미 우리 같은 大衆을 위하여 二十九年에(동안에) 하시어 摩訶般若波羅蜜이니 金剛般若波羅蜜이니 天王問般若波羅蜜이니 光讚般若波羅蜜이니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다)

가′. 四無所畏リる 十八不共法リる 五眼リる 法身リるッニ丨 大覺 世尊丨 <구인02:19-20>

(황선엽(2013) 현대어역: 四無所畏이며 十八不共法이며 五眼이며 法身이신 大覺世尊은)

나. 是 時十 大自在梵王丨 {於}大會セ 中うナッナハニ丨亠 座乙 從セ 而ㅡ 起ニ下 <금광13:18>

(이용(2013) 현대어역: 이 때 大自在梵王은 大會 가운데에 계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다. {於}此 正法うナッ丨 補特伽羅丨 三摩地乙 得うテ 已 善 宣說ッる 已 善 開示ッるットリ丨 <유가15:08-09>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이 정법에 있는 모든 보특가라는 삼마지를 얻어서는 이미 잘 펼쳐 말하고, 이미 잘 열어 보이고 하는 것이다)

라. 又 善說法亠ノ今セ 中うナッ丨 諸 出家者ラ 受ノ丨 所セ 尸羅丨 略ヲ 二事乙 捨ノ丨ス亠{之} 顯現ッ丨 所リ丨 <유가17:05-06>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또 선설법이니 비나야니 하는 가운데 있는 여러 출

가자가 받은 바의 시라는 간략히 두 가지 일을 버린 까닭으로 나타난 것이다)

마. 又 愛ㅅ 慢ㅅ 見ㅅ 无明ㅅ 疑惑ㅅㅌ 種種 定ㅌ 中ㅋㅓㅅㄱ 諸 隨煩惱ㄹ 復ㅂ 現行ㅅㅏ 不ㅎㅅㅋㅎ 善ㅎ 念住ㄹ 守ㅅㅎ <유가19:06-07>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또 애와 만과 견과 무명과 의혹과의 갖가지 정의 가운데 있는 여러 수번뇌를 다시 현행하지 않아서(/않도록 하여서), 잘 염죽를 지키며(/염주를 잘 지키며))

마′. 眞實ㅎ 能ㅎ 心ㄹ 闇昧ㅅ{令}ㅣㅏㅅㄱ{者} 謂ㄱ 方便ㅠ 止觀品ㄹ 修ㅅㅎㅌ 時ㅓㅌ {於}諸 法 中ㅋㅓ 有ㅌㄱ 所ㅌ 忘念ㅣㅎ <유가11:08-09>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진실로 능히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방편으로 지관품을 닦을 때에 여러 법 가운데 있는 바 망념이며)

(7)은 ‘ㅅ$_2$’가 ‘있다’ 또는 ‘계시다’ 등의 존재동사에 대응하는 경우이다. (7가)는 같은 문장인 (7가′)를 보면 (7가)의 주어가 ‘世尊’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ㅡㅡ-’가 결합하였다. (7나)도 마찬가지로 주어는 ‘大自在梵王’이며 대동사 ‘ㅅ$_2$’에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ㅡㅡ-’가 결합하였다. 또한 (7다-마)는 동일한 문헌의 동일한 구문인 (7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모두 대동사가 ‘정법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정도로 해석된다.

‘有’에 대응하는 구문이 대부분이지만 아래 (7)과 같이 ‘在’에 대응하는 자동사 구문도 존재한다.

(8) 當ㅂ 知ㅎㅣ 此 淸淨ㄱ 唯ㅂ 正法ㅋㅓㅅ 在ㅅㅁ 諸 外道ㅋㅓㄱㅅㅌ 非ㅊㅣㄱㅜ <유가20:01-02>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청정은 오직 정법에만 있고 모든 외도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다)

(8)은 처격조사 ‘-ㅋㅓ’에 보조사 ‘-ㄱ’이 결합한 뒤 대동사가 후행하는 구문이다. 이때 대동사 ‘ㅅ-’는 선행절 ‘在ㅅ-’에 대응하며 이에 따라 ‘외도에는 있는 것이 아니다’로 해석할 수 있다.

(9) 彼ㄱ {於}戲論界ㅋㅓ 易ㅎ 安住ㅅㅎ可ㅌㅅㄱㅡ 謂ㄱ {於}世間ㅌ 一切種 淸

淨ㄱㅏㅅㅇㅏㅊㅏ {於}無戲論界ㄱㅏㄱ 難ㅎ 安住ㅅㅎ可ㅌㅅㄱㅗ 謂ㄱ {於}出世間 一切種 淸淨ㄱㅏㅅㅇㅏㅣ <유가20:13-16>

(현대어역[85]: 그는 희론계에서 쉽게 안주할 수 있으니, 말하자면 세간의 모든 청정에 대해 하는 것이며 무희론계에서는 어렵게야 안주할 수 있으니, 말하자면 출세간의 모든 종류의 청정에 대해 하는 것이다)

또한 (9)의 경우도 지금까지 살펴본 존재동사와 의미적으로 가까운 자동사에 대한 대동사 구문이다. 두 번의 대동사가 나타나며 전자의 대동사는 '(易ㅎ) 安住ㅅ-'에, 후자의 대동사는 '(難ㅎ) 安住ㅅ-'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타동사와 자동사 구문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앞서 언급한 연결어미 '-ㅎㅏㅁ[86]'와 대동사 구문간의 연관성에 대해

85) 장경준 외(2015)에서는 역경원의 현대어역과 동일하게 해당 예문의 대동사가 '말하다'에 대응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결문에서는 이미 '謂ㄱ(말하자면)'로 나타났으며 '戲論界'와 '無戲論界'가 대조되는 구문에 각각 따로 대동사 'ㅅ$_2$'를 구결문에 기입하였으므로 이때의 대동사도 마찬가지로 각각 해당 구문 안에서 대조되는 동사에 대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동사는 각각 '(易ㅎ) 安住ㅅ-'와 '(難ㅎ) 安住ㅅ-'에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대어역을 수정하였다. 해당 문장의 대동사를 파악하는 데에는 박진호 선생님의 가르침에 힘입었다.

86) 자토석독구결에서 'ㅎㅏㅁ'와 'ㅎㄱㅁ' 사이에 명확한 의미 차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ㅎㅏㅁ'가 'ㅎㄱㅁ'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문증되는 점(황선엽 2002: 195)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편의상 '-ㅎㅏㅁ'로 통일하여 적는다. 물론 이 두 어미를 하나의 어미처럼 다루어 수치화 하는 것은 분명 오류로 지적될 부분이다. 이 두 어미가 이후 통합되어 15세기의 어미 '-오되'에 이르렀는지도 역시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그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발달경로를 잠정적으로 설정하여 해당 어미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르도록 한다.

그러나 이용(2003: 181-187)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에 대한 위험성과 비약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어미 '-ㄱ'과 '-ㅏ'사이에 시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ㅎㅏㅁ'에만 화법동사가 결합하고 'ㅎㄱㅁ'에는 결합하지 않으며 이와 동궤로 15세기 화법동사가 '-오되'에 주로 결합하는 점을 토대로 'ㅎㅏㅁ'와 'ㅎㄱㅁ'가 '-오되'로 통합되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의 잘못을 지적하며 'ㅎㅏㅁ'가 15세기의 '-오되'에 가까웠을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최소영(2008)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5세기 '-오되'의 가장 많은 용례는 바로 화법동사와 그 대동사가 등장하는 인용구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통시적인 연구를 함에 있어 그 변화를 천착할 때에 매우 치밀하게 논증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하지만 필자는 아래와 같은 작은 의문들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해당 견해를 반영하지 않는다.

첫째로 자토석독구결과 15세기 문헌 간의 문법 양상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ㅎㅏㅁ'와 'ㅎㄱㅁ'를 다르게 판단한 부분, 다시 말해 15세기 문헌의 '-오되' 구문은 다수가 인용구문이며 화법동사와 결합하지만 석독구결에서는 오로지 'ㅎㅏㅁ'와만 화법동사가 결합한다는 것은 자토석독구결 6종에 모두 'ㅎㅏㅁ'와 'ㅎㄱㅁ'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은 분포를 보일 때 수용가능하다고 판단된다. 'ㅎㅏㅁ'는 6종에 모두 나타나지만 'ㅎㄱㅁ'의 경

확인하겠다.

(10) 가. 塔ㄹ 遶ㅇㅏㅁ 三帀ㄹㅅㅗㄱㅣㅜㄱ 當 願 衆生 勤ㅎ 佛道ㄹ 求ㅇㅏㅁ 心ㅇㅜ 懈歇ㅏ 無ㅂㅗㅣ <화엄08:10>

(김성주(2013) 현대어역: 塔을 오른쪽으로 돌되 세 번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부지런히 佛道를 구하되 마음에 쉬거나 게으름 없으소서)

나. 則 相ㄹㅡ 莊嚴ㅇㅏㅁ 三十二ㄹㅅㅂㅈㅎㅇ <화엄12:21>

(김성주(2013) 현대어역: 곧 相으로 莊嚴하되 三十二相을 (莊嚴)할 것이며)

다. 口ㅇㅜ 常ㅣ 說法ㅅㅂㅇㅏㅁ 無義ㅅㅜㅅㄹㅅㅅㅏ 非ㅁㅅㅣㅎ 心智 寂滅ㅅㅣㅜ 緣 無ㅎㅣ 照ㅅㅣㅁㄹㅎ <구인11:10>

(황선엽(2013) 현대어역: 입에 항상 說法하오되 無義한 것을 하지 아니하시며 心智가 寂滅하시어 緣 없이 照하시며)

(11) 가. {是}ㅣ 如ㅈ 三乘ㅎ 敎ㄹ 開闡ㅅㅇㅎ 廣ㅣ 衆生ㄹ 度ㅣㅇㅏㅁ 量ㅣ 無ㄱ 劫ㅇㅜㅅㅁㅂㅎ <화엄14:22>

(김성주(2013) 현대어역: 이와 같이 三乘의 가르침을 열어 밝혀서 널리 衆生을 건네되 한량 없는 劫에서 하며)

나. 法王ㄱ 上 無ㅎㅇ 人 中ㅇㅎ 樹ㅣㅣㅣ 大衆ㄹ 覆蓋ㅅㅂㅇㅏㅁ 量 無ㅎㄱ 光ㅡㅅㅣㅎ <구인11:09>

(현대어역[87]: 法王은 위가 없어 人中의 樹이시어 大衆을 覆蓋하되 한량 없는 빛으로 하시며)

우는 주로 화엄경 계열의 문헌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가사지론에는 문증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부터 이미 'ㅇㅏㅁ'와 'ㅇㄱㅁ'가 구분이 되지 않았으며 유가사지론에서는 이미 'ㅇㅏㅁ'로 통합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어말어미 '-ㄱ'과 '-ㅏ'의 시상차이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통합체, 즉 어미인 'ㅇㅏㅁ'와 'ㅇㄱㅁ'에서는 같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그러한 시상차이를 전혀 볼 수 없다(이승재 1995: 236, 최소영 2008: 58).

大光明ㄹ 放ㅇㄱㅁ 邊ㅏ 無ㅣㅅㅎ{有} 衆生ㄹ 度脫ㅇㅏㅁ 亦ㅅㄱ 限ㅋ 無ㅣㅅㅎ <화엄15:04>

셋째로 15세기 한글문헌에서 '-오되'가 화법동사와 결합하여 주로 인용구문에 등장하는 것은 분명 의미적인 측면도 관여하겠지만 무엇보다 대부분 문헌이 간경도감에서 발행되었고 불교 경전이라는 15세기 문헌의 전형적인 문형에 이끌린 결과라 할 수 있겠다.

87) 본문의 논지에 맞게 필자가 황선엽(2013)의 현대어역을 수정하였다.

(10), (11)는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이 연결어미 '－ㄱㄱㅁ'로 연결되어 있고 후행절에 대동사가 나타나는 구문이며 (10)은 목적어가 나타나는 타동사 구문, (11)은 목적어가 생략된 타동사 구문이다. 이때 후행절의 대동사 'ㅅ$_2$'는 모두 선행절의 서술어, 즉 연결어미 '－ㄱㄱㅁ'의 용언 어간에 대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면 상 'V$_1$－{ㄱㄱㅁ, ㄱㄱㅁ} # V$_{2(대동사)}$'에 해당하는 모든 용례를 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이 V$_2$가 대동사일 때 해당 대동사는 V$_1$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아래와 같이 후행절의 V$_2$에 부사가 선행하는 용례까지 확장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2) '無ㅌㅣ # ㅅ2'

가. 念ㄱ 已ㅈㅅㅁㅅㄱ {之}ㅣㄹ 施ㅅㄱㅁ 心ㅎㅓ 悔ㅅㄱ 所ㅎ 無ㅌㅣㅅㅓㄱㅅㅏㄹ {是}ㅣㄹ 名下 內施ㅈㅅㅇㅓㅣ <화소11:04－05>

(안대현(2013) 현대어역: 생각하고 나서는 이를 보시하되 마음에 후회하는 바 없이 하는 것을 이를 일컬어 內施라 하는 것이다)

나. {是}ㅣ 念ㄹ 作ㅅㄱ 已ㅈㅅㅁㅂㅅㄱ 卽ㅊ 便ㅣ {之}ㅣㄹ 施ㅅㄱㅁ 而ㅭ 悔ㅅㄱ 所ㅎ 無ㅌㅣㅅㅓㄱㅅㅏㄹ {是}ㅣㄹ 名下 外施ㅈㅅㅇㅓㅣ <화소11:14－15>

(안대현(2013) 현대어역: 이 생각을 하고 나서는 곧 이를 보시하되 후회하는 바 없이 하는 것을 이를 일컬어 外施라 하는 것이다)

(13) '如ㅊ # ㅅ2'

가. 若 妙福端嚴身ㄹ 獲ㅌㄱㅅㅏㄱ 則 身ㅣ 晃耀ㅅㄱㅁ 金山 如ㅊㅅㅌㅇㅎ <화엄12:20>

(현대어역[88]: 만약 妙한 福스런 단정하고 엄숙한 몸을 얻으면 곧 몸이 빛나되 金山과 같이 빛날 것이며)

나. 分別 無ㅎ{有} 功用 無ㅎㅅㅏㄱㅈ {於}一ㄱ 念ㅌ 頃ㅌㅎㅓ 十方ㅎㅓ {徧}ㅌㅣㅅㄱㅁ[89] 月光影 如ㅊㅅㅎㅎ <화엄14:17－18>

---

88) 본문의 논지에 맞게 필자가 김성주(2013)의 현대어역을 수정하였다.

89) 박진호(1998: 194)에서는 중세 국어에서 '마다'는 처격조사 뒤에 오는 일이 없는 데에 비해, 고대 국어에서는 '마다'가 처격조사 뒤에 오는 일이 많음을 지적하고 '마다'는 본래 조

(현대어역[90]: 分別 없고 功用 없고 하니 한 念의 사이에 十方에 두루하되 달빛 그림자와 같이 두루하여서)

(14) '隨ノ # ㆍ$_2$'

三者 一切 衆生ㅣ 生死ㅇㅓ 往還ノㅇㅁ 其 因緣ㄹ 隨ノㅅㅏㅣㄱㅅㄹ 是 如ㅊ 見知ㅅㅇ <금광04:22-23>

(이용(2013) 현대어역: 셋째, 一切 衆生이 生死에 往還하되 그 인연에 따라 하는 것을 이와 같이 見知하며

(15) '故ノ # ㆍ$_2$'

五者 理ㄹ (如) 種ㅅㅣ{爲}ㅅㅅㅎ 熟ㅅㅣ{爲}ㅅㅅㅎ 脫ㅅㅣ{爲}ㅅㅅㅎㅅㅇㅇ 是 如ㅊ 說法ノㅇㅁ 智力ㅠ 故ノㅅㅇㅊㅓㄱㅣㅣ <금광04:23-24>

(이용(2013) 현대어역: 다섯째, 理致대로 심게 하고자 하고 成熟하게 하고자 하고 벗어나게 하고자 하고 하여 이와 같이 說法하되 智力 때문에 하는 것이다)

(16) '無ㅎ # ㆍ$_2$'

生死ㅣㅣ 涅槃ㅣㅣㅅㅇㅅㄱ 皆 是ㄱ 妄見ㅣㄱㄹ 能ㅎ 度ノㅇㅁ 餘ㅂ 無ㅎㅅㅇㅊ 是 波羅蜜義ㅣㅎ <금광05:18-19>

(이용(2013) 현대어역: 生死이다 涅槃이다 하는 것은 모두 이는 妄見이거늘 능히 濟度하되 남김없이 하는 것, 이것이 波羅蜜의 뜻이며)

(17) '愜ㅎ # ㆍ$_2$'

應ㅌㅅㄱ 隨ㅎ 普 現ㅎㄱㅁ 其 心ㅇㅓ 愜ㅎㅅㅇ 色ㄹ 樂ㅎㅅㅅㅌ 者ㅎㄹ 皆ㅌ 道ㅇㅓ 從ㅌ 俾ㅣㅌㅎ <화엄18:05>

(김성주(2013) 현대어역: 마땅함을 좇아 널리 나타내되 그 마음에 쾌히 하여 色을 즐기는 사람을 다 道로부터 따르게 하며)

본 연구에서 'ㆍ$_1$'과 'ㆍ$_2$'를 구분하기 가장 어려웠던 부류가 바로 1음절 부사에 'ㆍ'가 후행하는 경우였다. 부사에 후행하는 'ㆍ'를 이미 부사 어근에 'ㆍ$_1$'이 결

사가 아니며 '마다'와 'ㅎ-'가 결합되어 합성 용언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며 이에 맞추어 '두루하다'로 현대어역을 옮겼다.

90) 본문의 논지에 맞게 필자가 김성주(2013)의 현대어역을 수정하였다.

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였는지 혹은 '부사어 # ㅅ$_2$'과 같이 부사어와 동사 사이에 단어 경계가 존재하여 대동사 구문으로 파악할지가 난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V_1-{ㅎㅏㅁ, ㅎㅣㅁ} # $V_{2(대동사)}$'을 'V_1-{ㅎㅏㅁ, ㅎㅣㅁ} # 부사어 # $V_{2(대동사)}$'로 까지 확장시켜본다면 해당 구문에 한하여 이 같은 문제는 단연 '부사어 # ㅅ$_2$'의 구성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미 이현희(1994: 84)에서 후기중세 한국어의 용례를 통해 지적한 바가 있다.

(18) 이현희(1994: 84)

가. 뎌 久遠을 보샤ᄃᆡ 오ᄂᆞᆯᄀᆞ티 ᄒᆞ시니 <월석 14:10>

나. 三業을 니ᅀᆞᄃᆡ 大悲로 ᄒᆞ샤ᄆᆞᆫ(繼三業以大悲) <법화 5:5>

다. 智ᄅᆞᆯ 도보ᄃᆡ 慈로 ᄒᆞ며 <월석 11:24>

라. 長者ㅣ 말ᄊᆞᄆᆞᆯ 호ᄃᆡ 샹녜 우ᅀᅥ ᄒᆞ야 <월석 23:72>

마. 四面에 各各 靑幡 닐굽곰 ᄃᆞ로ᄃᆡ 기릐 ᄒᆞᆫ 丈이에 ᄒᆞ고 <월석 10:119>

이현희(1994: 84)에서는 '부사어 # ᄒᆞ-'의 구조는 그 앞에 동명사 구성의 목적어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연결어미 '-오ᄃᆡ'에 통합된 선행문을 요구하기도 함을 언급하며 이때 요구되는 '-오ᄃᆡ'는 [전제] 표현을 담고있다고 하였다. 또한 (18)과 같이 '-오ᄃᆡ'에 통합되는 서술어는 동사에 한정되며 (18)의 'ᄒᆞ-'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ᄃᆡ'에 통합되어 있는 동사의 대동사임을 지적하였다.[91]

---

91) 이와 관련하여 이현희(1994: 83-92)에서는 'V_1-오ᄃᆡ … V_2'의 구조가 'V_1-{오ᄆᆞᆯ, 오매} … V_2'로도, 혹은 'V_1-{오미, 오매} … V_2'로도 고쳐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고 더 나아가 'V_1-오ᄃᆡ # 부사어 # $V_{2대동사}$'의 구조에서 '-오ᄃᆡ'가 '-오ᄆᆞᆯ'로도, '-오매'로도 심지어 '-오미'로도 대치될 수 있는 사실은 지적하며 이것을 대치의 원리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부사어 # $V_{2대동사}$' 구조가 선행절로 'V_1-오ᄃᆡ'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오ᄆᆞᆯ', '-오매', '-오미' 따위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중세 한국어에서는 본 항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사어 # 대동사' 구조는 선행요소로 대부분 'V-ㅎㅣㅁ'를 요구하며 후기중세 한국어와 같이 다양한 요소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후대로 갈수록 '부사어 # 대동사' 구성이 더욱 긴밀해졌기 때문에 선행요소로 '-오ᄃᆡ' 구조뿐만 아니라 '-오매, -오ᄆᆞᆯ, -오미'와 같은 명사 상당구성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연결어미 '-ㅎㅏㅁ'의 의미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해당 문법 현상에 대하여 어느 한 쪽, 한 부분만이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기중세 한국어에서는 오로지 'V_1-ㅎㅏㅁ # 부사어 # $V_{2대동사}$' 구조로 나타나는 것이 후기중세 한국어에서는 'V_1-오ᄃᆡ # 부사어 # $V_{2대동사}$' 뿐만 아니라 '-오ᄃᆡ'의

(19) 가. 其 說法ㅅㅏㅇㅗㅣ 時ㅣㅅㅓㄱ 廣長舌ㄹ 以ㅇㅡ 妙音聲ㄹ 出ㅇㅜㄱㅁ 十方ㅣ 一切 世界ㅇㅡㅅ 充滿ㅎㅅㅏㅇㅡ <화소25:16-17>

(안대현(2013) 현대어역: 그 설법할 때에는 광장설을 써 묘음성을 내되 시방의 일체 세계에 충만히 하여)

나. 三者 大慈大悲ㅠ 入出ㅇㅏㅁ 自在ㅎㅅㅇㅏ <금광04:07-08>

(이용(2013) 현대어역: 셋째 大慈大悲로 入出하되 自在히 하며)

다. {於}花池所ㅇㅡㅅ 自ㅋ 身ㅣ 遊戱快樂ㅇㅏㅁ 淸淨 淸凉 無比ㅎㅅㅗㄴㅇㅜㄱㅅㄹ 菩薩ㅓ 悉ㅇㅡ 見ㅅㅏㅎㅣㅣ <금광06:11-12>

(이용(2013) 현대어역: 花池所에서 自身이 遊戱快樂하되 淸淨 淸凉 無比하게 하는 것을 菩薩은 다 본다)

(19)는 모두 2음절 부사어에 대동사 'ㅅ2'가 후행한 용례이다. 마찬가지로 (19)의 대동사 'ㅅ$_2$'는 선행절 '-ㅇㅏㅁ'의 용언 어간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20) {此}ㅣ 藏ㄹ 成就ㅅㅓㄴㅅㅠ 一切 法ㄹ 攝ㅇㅗㅣ 陀羅尼門ㄹ 得ㅇㅡㅂ 現在前ㅇㅜㄱㅁ 百ㅓ 萬ㅇ 阿僧祇ㅣ 陀羅尼ㄹ 以ㅇㅡㅂ 眷屬 {爲}[ㅌ]ㅓㄹㅅㅇㅏ <화소25:12-14>

(현대어역[92]: 이 장을 성취한 까닭에, 일체 법을 다스리는 다라니문을 얻어서 現在前하되 백만 아승기의 다라니를 써서 권속 삼은 이에게 現在前하며)

더 나아가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과 같이 기존에 대동사가

자리에 '-오매, -오물, -오미' 등도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은 연결어미 '-ㅇㅏㅁ'가 통시적으로 '-오디'까지 오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현희(1994)에서 언급한 대치의 원리가 가능한 것은 '부사어 # 대동사'의 구조뿐만 아니라 연결어미 '-오디'의 통시적인 요인 또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동사 구문에 선행하는 요소가 전기중세 한국어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대다수가 '-ㅇㅏㅁ' 구문인 것에 비하여 후기중세 한국어, 나아가 근대 한국어에까지 이르게 되면 대동사 구문에 선행하는 요소가 '-오디'와 대치되는 다양한 명사 상당구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결어미 또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연결어미 '-ㅇㅏㅁ'가 '-오디'로 오면서 상당한 의미 축소가 일어났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강혁(2019)를 참고할 수 있다.

92) 최성규(2016: 152-158)에서는 크게 화법동사의 대화상대로, 이동동사의 목적지로, '依하다'의 논항으로 '-ㄹ'이 사용된 경우 대격조사가 여처격처럼 쓰인 경우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물론 해당 예문의 '現在前ㅅ-'는 화법동사도, 이동동사도, '依하다'도 아니지만 논항으로 여격을 취하면 해석이 보다 자연스러워 진다. 따라서 대동사가 '現在前ㅅ-'에 대응한다는 가정 하에 대동사의 논항을 여격으로 옮겨 안대현(2013)의 현대어역을 수정하였다.

정확히 어떤 동사에 대응하는지 파악하기 난해한 용례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V_1-{ㅋㅏㅁ, ㅋㄱㅁ} # $V_{2(대동사)}$'일 때 'V_1=V_2(대동사)'인 것을 고려하면 (20)의 대동사가 선행절의 '現在前ㅅ-'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대동사 구문에 대하여 휘갑하기 전에 본 항에서 대동사 구문에 대해 유형별로 검토한바, 다소 많은 대동사 구문이 연결어미 '-ㅋㅏㅁ' 구성의 절에 후행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지면 상 '-ㅋㅏㅁ' 구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지만 '-ㅋㅏㅁ' 구문 중에 대동사가 포함된 구문은 전체 158개 중 약 70개, 절반 가까이 되는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본 항에서 살펴본 대동사 구문은 자토석독구결에 총 90여개이며 이 중 약 70개가 '-ㅋㅏㅁ' 구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전체 대동사 구문 중 80% 가까이가 선행절의 연결어미로 '-ㅋㅏㅁ'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반대로 전체 '-ㅋㅏㅁ' 구문 중에 절반 가까이가 대동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상의 결과는 연결어미 '-ㅋㅏㅁ'와 '대동사'라는 두 문법 요소 간에 의미적으로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연결어미 '-ㅋㅏㅁ'의 후행절에 대한 의미제약에 귀결되는 문제로만 간략히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4.3. 보조동사

전기중세 한국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조동사 구성 ‘ㅭㅅ’는 해당 용례도 적거니와 오로지 동사어간에만 결합한다. 그러나 단순하게 ‘ㅭㅅ’의 구성이라고 전부 보조용언의 구성은 아니다. 2.3.3에서 확인하였듯이 본동사에 연결어미 ‘ㅭ’가 결합한 뒤에 보조동사 ‘ㅅ’가 결합한 구성이어야 한다. 전기중세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ㅭㅅ’의 구성을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1) 가. 菩薩ㅣ 三昧ㅔ 中ㅭㅏ 住在ㅅㅭㅅㄱ 種種ㅔ 自在ㅟ 衆生ㄷ 攝ㅅㅏㅇㆍ <화엄17:04>

(김성주(2013) 현대어역: 菩薩이 三昧에서 머무르니 갖가지 自在로 衆生을 攝受하는구나)

나. 或 夜分ㅭㅏ 居ㅅㅭㅍ 而ㅟ 睡眠ㄷ 樂着ㅅㅏ <유가26:09-10>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혹 밤에 있어서는 잠을 즐겨 집착하며)

먼저 (1가)의 ‘住在ㅅㅭㅅㄱ’에서 ‘ㅭㅅ’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1나)의 ‘居ㅅㅭㅍ’과 같은 구조라 볼 수 있다. 이는 ‘계기+한정’ 혹은 ‘계기+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구조체로서 ‘-ㅅㅭㅍ’은 ‘-ㅅㅭㅎㄱ’으로도 나타나는데 이때 보조사 ‘-ㅎ’의 ‘ㄱ’이 약화되어 ‘ㅎ’으로 실현된 것을 반영한 표기라 할 수 있으며 보조사 ‘ㅎ’은 후기중세 한국어로 갈수록 점차 사용되지 않으며 보조사 ‘-ㄱ’에 해당하는 ‘-ㄴ’만 나타나게 된다(황선엽 2003: 126-129). 따라서 (1가)의 ‘ㅭㅅㄱ’는 ‘-ㅭ(연결어미)+-ㅅ(<ㅎ, 보조사)+-ㄱ(보조사)’의 구성이므로 본 장의 검토대상인 보조용언이 아니다.

(2) 가. 彼ㅋ{之} 功德ㄱ 邊際 無ㅁㅏㄱ 稱量ㅅㅭㅎㅎ可ㅌㅅㄱ 不矣ㅏ 與ㅌㅅㅭ ㅎ 等ㅭㅅㅭㅇ 無ㅌㅏㅣ <화엄09:05>

(김성주(2013) 현대어역: 저의 功德은 邊際 없으니 稱量할 수 없으며 함께 하여서 대적할 이 없다)

가′. 圓智ㄱ 無相ㄷㅅㄴㅜ 三界ㅌ 王ㅣㅁ 三十生ㄷ 盡ㅭㅁ 等ㅭ 大覺ㅅㄴㅏ <구인11:03>

(황선엽(2013) 현대어역: 圓智는 無相을 하시어 三界의 王이라 三十生을 다하고 평등하게 大覺하시며)

나. 云何ㅡㅎㄱㅅㅣㄱ 彼ㅡ 正ㅌ 修行ㅅㅣㅎㅎ 轉ㅅ{令}ㅢㅣㄴㅇㅣㅎㅌㅗㅅㅡㄴㄱㅅㅣㅂㄴㅣ <유가06:05>

(장경준 외(2015) 현대어역: "어떻게 하면 그로 (하여금) 바로 수행하여서 전(轉)하게 할 것인가?" 하시는 까닭으로)

(2가)의 '等ㅎㅅㅣㅎㅎ'도 역시 'ㅎㅅㅣ' 구조를 갖고 있으나 (2가′)에서 '等ㅎ'이 서술어 '大覺ㅅㅡ'를 수식하는 부사어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때 'ㅎ'는 선행하는 어근인 '等'에 대한 파생접미사 혹은 말음첨기로 볼 수 있다. (2나)의 경우는 '轉ㅅ{令}ㅢㅣㄴㅇㅣㅎㅌㅗㅅㅡㄴㄱㅅㅣㅂㄴㅣ'에서 'ㅎㅇㅣ'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ㅇㅣ'는 그 독음이 '호'인지 아니면 '오'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 문법적으로도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본 장의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검토한 (1)과 (2)는 모두 보조동사가 아닌 보조사나 말음첨기 혹은 부사파생접미사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제 남은 '연결어미+보조동사' 구성인 'ㅎㅅㅣ'에 해당하는 용례를 살펴보겠다. 먼저 동사 '以'에 결합하는 경우이다.

(3) 가. 或ㅅㅣㄱ 如來ㄹ 供養ㅅㅣㅁㅎㅗㅌ 門ㄹ 以ㅎㅅㅣㅇㅏㅁㅅㅣㅎ 或ㅅㅣㄱ 難思ㅌ 布施門ㄹ 以ㅎㅅㅣㅇㅏㅁㅅㅣㅎ <화엄17:06>

(현대어역[93]: 혹은 如來를 供養하는 門을 써보기도 하며 혹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布施門을 써보기도 하며

나. 則 功德 法性身ㄹ 獲ㅎㅅㅏ 法ㅌ 威力ㄹ 以ㅎ 世間ㅎㅓㅂ 現ㅌㅐㅎㅎ <화엄13:20>

(현대어역[94]: 곧 功德의 法性身을 얻어서 法의 威力을 써 世間에 나타날 것이며

(3가)는 목적어로 '門'을 취하는 동사 '以'에 연결어미 'ㅡㅎ'가 결합하고 보조동사 'ㅅ$_2$'가 결합한 경우이며 'ㅡ을 써보기도 하며' 정도로 옮길 수 있다. 이때 보조 동사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도'와 같은 양태적인 의미는 (3나)와의

93) 본문의 논지에 맞게 필자가 김성주(2013)의 현대어역을 수정하였다.
94) 본문의 논지에 맞게 필자가 김성주(2013)의 현대어역을 수정하였다.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법의 위력을 써 세간에서 나타낼 것이며'로 옮겨지는 문장에서 확실히 (3가)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동사 '由'에 결합하는 경우이다.

(4)[95] 가. 四 通ㅌ 隱ㅅㅎ 顯ㅅㄱㄹㅓ 處ㅅㅈ 串習力ㄹ 由ㅈㅅㅎ <유가 09:22-23>

(현대어역: 넷째는 두루 은밀하며 드러난 곳에 처하여 관습력을 의지하여 보며)

가′. 此 因緣ㄹ 由ㅈ 初ㅌ 世間一切種淸淨ㄹ 依ㅈ <유가15:07-08>

(현대어역: 이 인연을 의지하여 첫 세간일체종청정을 의지하여)

(4)의 경우는 본동사 '由'에 연결어미 '-ㅈ'가 결합한 뒤 보조동사 'ㅅ$_2$'가 나타난 경우이다. 이들은 각각 '串習力, 五相, 七相'을 목적어로 지배하고 (3)과 마찬가지로 '-어 보-'에 대응하며 '시도' 혹은 '의지'의 양태를 담아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차이는 (4가′)에 단순하게 '由ㅈ'만 쓰인 용례와의 의미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쉽게 분석해 낼 수 있다.

(5)[96] 가. 又 自ㄹ 增上生事ㅅ 及ㅌ 決定勝事ㅅㄹ 依ㅈㅣㅇㅁ 謂ㄱ 己ㄹ 身ㅡ 財寶ㅡㅣㅇㅅ 所證ㅅㅌ 盛事ㅈㅓ 作意思惟ㅅㅈㅎ 歡喜ㄹ 發生ㅅㅎ <유가28:13-15>

(현대어역: 또 자기의 증상생사와 결정승사와를 의지하여 보되, 말하자면 자기의 몸이니 재보이니 하는 것과 증득한 바의 성사에 대해 작의하고 사유하여서 환희를 일으키며)

가′. 數ㅂ 入ㅅㄹ 數ㅂ 出ㅅㄹㅅㅈ 速疾 通慧ㄹ 證得ㅅ{爲欲}ㅅ 定圓滿ㄹ 依ㅈ 樂ㅇ 正法ㄹ 聞ㅏㅇㅅㅡ 故ㅣ {於}時時ㅌ 中ㅈㅓ 慇懃 請問ㅅㅎ <유가15:22-16:01>

(현대어역: 자주 들고 자주 나고 ㅎㅏ여 빠른 신통과 지혜를 증득하고자 정의 원만을 의지하여 즐겨 정법을 듣는 까닭으로 때때의 가운데 간절하게 청문하며)

---

95) 해당 예문은 모두 본문의 논지에 맞게 필자가 장경준 외(2015)의 현대어역을 수정하였다.
96) 해당 예문은 모두 본문의 논지에 맞게 필자가 장경준 외(2015)의 현대어역을 수정하였다.

(5)의 경우는 본동사 '依'에 결합하였으며 보조동사 'ㅅ'에 연결어미 'ㅡㄱㅏㅁ'가 결합한 구조이다. 이는 각각 목적어로 명사구인 '增上生事ㅅ 及ㅌ 決定勝事ㅅ', '无嫉ㅣㅏㅅ', '知恩ㅣㅏㅅ'를 취하며 '붙어 보되' 혹은 '의지하여 보되' 정도로 옮길 수 있다. 이러한 양태적 의미는 마찬가지로 (5가′)의 '依ㅎ'와의 차이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5. 결론

전기중세 한국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으며 그 중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가 가장 많은 당시의 언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전기중세 한국어 시기의 'ㅇ'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검토를 시도하였다. 우선 중심이 되는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한계를 그나마 극복하고자 'ㅇ'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ㅇ$_1$'와 문장 형성에 참여하는 'ㅇ$_2$'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ㅇ$_1$'과 관련하여 어근 결합 여부와 임시어 형성소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ㅇ$_2$'와 관련하여서는 '아우름 동사', '대동사', '보조 동사'로 나누어 각각의 설정 기준 또한 제시하였다. 이러한 2장에서 'ㅇ'와 관련된 기본적 논의를 바탕으로 각각 3장에서는 'ㅇ$_1$'에 대하여, 4장에서는 'ㅇ$_2$'에 대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3장에서는 'ㅇ1'에 대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생성문법적인 관점에서 임시어 형성소로서의 문법적 지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당시 형성된 임시어가 공인화를 거쳐 어휘부에 등재된 후 실제어까지 도달하는 단어 형성 과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어휘적 강도를 등재의 기준으로 삼았다. 다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어휘적 강도를 보이는 부류를 '등재'류로 분류하였으며, '등재'류에 비해 현저히 어휘적 강도가 낮은 부류를 '미등재'류로 분류하였고 그리고 '등재'류와 '미등재'류 비교군 사이에 놓인 부류에 대해서 '공인화'류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는 구조문법적인 관점에서 결합하는 어근을 한자어 어근과 고유어 어근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자어 어근과의 결합 양상을 어근의 음절수 별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에는 'ㅇ1'과 음독구결의 'ㅇ', 더 나아가 한글구결의 'ㅎ'까지의 통시적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고유어 어근의 경우는 그 용례가 한자어 어근에 비하여 매우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유어 어근 용례를 검토

하였다.

4장에서는 앞서 설정한 기준들에 따라 ‘아우름 동사’, ‘대동사’, ‘보조 동사’ 순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아우름 동사’는 연결어미 ‘-ᄀᆞᆫ’나 ‘-ᄒᆞ’를 통해 나열되는 절 혹은 조사 ‘-ㅅ/ㅣ’나 ‘-ㅅ’를 통해 나열되는 명사구의 마지막에 등장하여 선행하는 요소들을 아우르는 기능을 가진 동사이다. 다음으로 ‘대동사’는 기존의 연구사적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되 자료의 특성에 맞게 해당 구문을 분류하여 ‘인용 구문’, ‘의도·목적 구문’, ‘자·타동사 구문’으로 나누어 구문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특히 구문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동사에 대응하는 ‘자·타동사 구문’에 방점을 찍어 살펴보았다. 또한 더 나아가 연결어미 ‘-ㄱㅏㅁ’와 대동사 구문 간에 모종의 문법적 관련성을 짚고 넘어가 보았다. 마지막으로 ‘보조 동사’의 경우 해당 구문이 갖고 있는 의미 기능에 ‘시도’ 혹은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기중세 한국어 ‘ㅺ’에 대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미흡하게 다루고야 말았다. 또한 중심 자료의 한계와 필자의 부족으로 인해 연구사적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본 연구의 내용은 그저 걸음마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과연 모든 ‘ㅺ’를 본 연구의 분류체계로 포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추후 좀 더 발전된 연구로 그 자리를 채우고자 한다.

참고문헌

고영근(1974),『국어접미사의 연구』, 백합출판사.

고영근(1989),『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고영근(1992), 형태소란 도대체 무엇인가,『남사 이근수박사 환력기념논총』.

고영근(1993),『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고영근(2015), 한자어 형성에 있어서의 구성소와 형성소-언어 유형론 노트(6),『한글』308, 한글학회.

고재설(1999), 동사 '하-'와 형용사 '하-',『국어학』33. 국어학회.

곽철환(2003),『시공불교사전』, 시공사.

구본관(1998),『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권재일(1985), 중세 한국어 접속문 연구, 김한방 선생 회갑기념논문집『역사언어학』, 전예원.

기주현(1994),『근대국어 조어론 연구(Ⅰ)』, 태학사.

김선효(2009), 의사관형구조 '에의'의 형성 과정과 요인,『국어학』55, 국어학회.

김성규(1987), 語彙素 設定과 音韻現象,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주(2005), '爲'에 현토되는 구결자와 기능,『구결연구』15, 구결학회.

김성주(2013), 주본화엄경 권제14의 현대역에 대하여,『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김성주(2016), 우리말 불교용어와『한국한자어사전』의 불교용어 증보 방향에 대하여 -향가, 이두, 구결을 중심으로-,『동양학』6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김영만(2002), 구결자 如(丨·支·直·八·印)의 해독법 연구,『한민족어문학』40, 한민족어문학회.

김영희(1984), 하다 : 그 대동사 설의 허실,『배달말』9-1, 배달말학회.

김완진(1973), 국어 어휘 마멸의 연구,『진단학보』35, 진단학회.

김정남(2007). 'X-대(臺)' 형 합성어의 몇 가지 유형에 대하여,『형태론』9-1. 박이정.

김지오(2012), 釋讀口訣에 나타난 '-은여/을여'에 대하여,『동악어문학』58, 동악어문학회.

김지오(2016), 석독구결 '如'구문의 의미와 논항 구조,『국어학』79, 국어학회.

김창섭(1997), '하다' 동사 형성의 몇 문제,『관악어문연구』2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한결(2011), '{-고져, -과뎌} ᄒᆞ-' 구성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경란(2016),『한글 창제 전후의 입겻 연구』, 경인문화사.

남권희·남경란(2016), 13세기 高麗 釋讀口訣本 『慈悲道場懺法』 卷4 殘片의 구결 소개,『국어사연구』22, 국어사학회.

남풍현(1993), 고려본 유가사지론의 석독구결에 대하여,『동방학지』8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남풍현(1996),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ㅣ/ㄹ'에 대한 고찰,『구결연구』1, 구결학회 .

남풍현(1998), 유가사지론 (권20)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구결연구』3, 구결학회.

남풍현(1999),『유가사지론 석독구결의 연구』, 태학사.

남풍현(2007), 자토석독구결에 나타난 부독자에 대한 고찰,『구결연구』18, 구결학회.

노명희(1990), 한자어의 어휘형태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명희(2005),『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노명희(2009), 외래어 단어형성,『국어국문학』153, 국어국문학회.

노명희(2018), 임시어의 특성과 유형,『국어학』85, 국어학회.

문현수(2011), 석독구결 용언 부정사의 의미기능연구: 한문 부정소와의 대응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현수(2017), 구결자 'ᄇᆞ'에 대하여,『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문현수·허인영(2018), 시상 형태 '-ㄴ-'의 쟁점과 전망,『2018 여름 국어사학

회 발표논문집』, 국어사학회.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진호(1997), 차자표기 자료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새국어생활』7, 국립국어원.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국어의 시대별 변천연구 3-고대국어』, 국립국어원.
박진호(2003), 중세국어의 부사 파생 접미사 '-뎌/려/다/라'에 대하여,『형태론』5-1, 형태론.
박진호(2008), 자리채우미,『KLing』2,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백두현(1993), 고려본 화엄경의 구결자 ᄎᆞ와 ᄉᆞ- 그 독법과 문법기능,『어문논총』27, 경북어문학회.
서정수(1975),『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서정수(1991), 기능동사 "하-"에 대한 재론,『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15-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서정수(2006), 수정삼판『국어문법』, 한세본.
손세모돌(1994), 보조 용언의 의미에 관한 연구,『한글』223, 한글학회.
송 민(2013), 한자어에 대한 어휘사적 조명,『국어학』66, 국어학회.
송병학(1974), '하'에 관한 연구: 통사론적, 의미론적 구조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원용(1998), 활용형의 단어 형성 참여 방식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송원용(2005),『국어 어휘부와 단어 형성』, 태학사.
송철의(1992),『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태학사.
시정곤(2001), 국어의 어휘부 사전에 대한 연구,『언어연구』17-1, 한국현대언어학회.
신기상(2005), 한자어의 국어화에 대한 연구,『어문연구』33-1, 어문연구회
신선경(1986). 인용문의 구조와 유형분류,『국어연구』73, 국어연구회.
심재기(1982),『국어 어휘론』, 집문당.
안경화(1995), 한국어 인용구문의 연구-유형과 융합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대현(2013),『華嚴經疏』卷35 석독구결의 현대어역,『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안병희(1959), 십오세기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병희(1962), 중세국어 동사 ‘ᄒᆞ-’의 어간교체에 대하여,『문호』2, 건국대 국문학회.
안병희(1967), 한국어 발달사(중): 문법사,『한국문화사대계Ⅴ』,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안병희·이광호(1990),『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연구, 한국문화사.
안희제(2002), 현대국어 단음절 한자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양명희(1990), 현대국어 동사 ‘하-’의 의미와 기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정호(1991), 중세국어 파생접미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규환(2013), 단어 형성 과정으로서의 어휘화,『국어학』68, 국어학회.
원대성(1985), 명사의 상적 특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용선(2003),『15세기 언해자료와 구결문』, 역락.
이강혁(2018), ‘손ᄋᆞ’류와 ‘親히’류 구문 비교에 대한 소고,『국어학논집』8, 역락.
이강혁(2019), 연결어미 ‘-ㅎㅏㅁ’의 의미 변화 : 대동사 구문을 중심으로,『구결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구결학회.
이관규(1992),『국어 대등구성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이광호(1985), 동사어간 ‘하-’의 음운현상,『어문학논총』4,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이광호(1997), 외래어 요소가 포함된 단어 형성 연구,『관악어문연구』22.
이광호(2009), 국어 파생 접사의 생산성과 저지에 대한 계량적 연구, 태학사.
이광호(2017), 추측확인법과 확인추측법의 의미와 기원,『어문학』137, 한국어문학회.
이기문(1972)『개정 국어사 개설』, 민중서관.

이기문(1998/2001),『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이병기(2014), 구결 자료의 어휘,『구결연구』33. 구결학회.
이상복(1983), 한국어의 인용문 연구,『국어의 통사·의미론』, 탑출판사.
이선웅(1995), 현대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승재(1993), 고려본 화엄경의 구결자에 대하여,『국어학』23, 국어학회.
이승재(1995), 동명사 어미의 역사적 변화, 소곡남풍현선생 회갑기념논총『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이승재(2005), 고려시대 불경 교육과 구결,『한국사 시민강좌』37, 일조각.
이승재(2010), 한국어 명명구문의 통시적 변화,『관악어문연구』3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 용(2003).『연결어미 형성에 관한 연구』, 역락.
이 용(2013),『합부금광명경』권3 석독구결의 현대어역,『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이은규(1997), 석독 입겿 무리의 분포,『어문학』60, 한국어문학회.
이은규(2013), 석독 입겿 {ㅅㅇ}의 기능 연구,『민족문화논총』5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이익섭(1975),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동양학』5,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이전경(2012), '爲'자에 현토된 석독표기자와 그 해독,『구결연구』28, 구결학회.
이창덕(1984), 동사 '하-'의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필영(1995),『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이현희(1985), 'ᄒᆞ다' 어사의 성격에 대하여: '누러ᄒᆞ다'류와 '엇더ᄒᆞ다'류를 중심으로,『한신논문집』2, 한신대학교.
이현희(1986), 중세 국어 내적화법의 성격,『한신논문집』3, 한신대학교.
이현희(1991), 중세국어의 합성어와 음운론적 정보,『석정 이숭욱 선생 회갑 논집』.
이현희(1992), 국어 어휘사 연구의 흐름,『국어학 연구 100년사』, 일조각.
이현희(1994),『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이현희(2005), 중세국어의 형태론적 두 현안,『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이현희(2009), ‘조초’의 문법사,『진단학보』107, 진단학회.
장경준(1998), ‘-어 하(ᄒᆞ)-’의 통합 현상에 관한 연구: 현대 국어와 15세기 국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경준(2002), ‘-어 ᄒᆞ(>하)-’ 통합 현상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형태론』4-2, 박이정.
장경준 외(2015),『『유가사지론』권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장윤희(2001), 중세국어 ‘-암/엄 직ᄒᆞ-’의 문법사,『형태론』3-1, 형태론.
장윤희(2006), 고대국어의 파생 접미사 연구,『국어학』47, 국어학회.
장회견(2013), 용언의 단음절 한자 어근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정례(2000), ‘-온ᄃᆡ/-올ᄃᆡ > -오ᄃᆡ’ 연구,『한말연구』6, 한말연구학회.
전기량(2017), 자토석독구결 ‘-ㅣ/ㅡ’ 구문에 대하여,『국어사연구』24, 국어사학회.
정연주(2017),『구문의 자리채우미 ‘하다’ 연구』, 태학사.
정은균(2009),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번역 문체적 특징,『배달말』45, 배달말학회
정재영(1995), ‘ㅅ’형 부사와 ‘ㅌ’형 부사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정한데로(2009), 국어 복합어의 등재와 어휘화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한데로(2011), 임시어의 형성과 등재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화를 중심으로,『한국어학』52, 한국어학회.
정한데로(2013), 임시어의 실재성 확립을 위하여,『어문연구』41-1. 어문연구회.
정한데로(2015), 단어 형성 과정의 개념화와 언어화 -19세기말~20세기 초 자료의 의의,『언어와 정보사회 24,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채숙희(2010), 인용동사로 쓰이는 ‘이러다’, ‘그러다’ 연구,『국어학』58, 국어학회.
채현식(1995), 국어 어휘부의 등재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채현식(2003),『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태학사.
채현식(2007), 어휘부의 자기조직화,『한국언어문학』63, 한국언어문학회.

최성규(2016), 차자표기 자료의 격조사 연구-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성규(2017), 명사형 어미 '-ㅁ'의 형성 과정 탐색,『국어학』83, 국어학회.
최소영(2008), 연결어미 '-오ᄃᆡ'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현배(1937),『우리말본』, 정음사.
최형용(2013), 어휘부와 형태론,『국어학』66, 국어학회.
하귀녀(2006), 구결과 이두의 명명구문에 대하여,『제32회 구결학회·국어사학회 공동 전국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황국정(2001ㄱ), 석독구결의 동사 구문(1),『한국어학』14, 한국어학회.
황국정(2001ㄴ), 석독구결의 'ㅋㅓ+ㅅ'구문에 대하여,『어문논집』44-1, 안암어문학회.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선엽(2003), 구결자 'ㅎ'의 해독에 대하여,『구결연구』10, 구결학회.
황선엽·이전경·하귀녀 외(2009),『석독구결사전』, 박문사.
황선엽(2013), 《舊譯仁王經(上)》의 역주에 대하여,『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황화상(2001),『국어 형태 단위의 의미와 단어 형성』, 월인.
Bauer, Lauire(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Bybee, Joan L.(1985), Morph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Lipka, Leonhard(1990), An Outline of English Lexicology: Lexical Structure, Word Semantics, and Word-Formation, Walter de Gruyter.

<ABSTRACT>

A Study on Early Middle Korean '(-)ᄒᆞ-'

: Focusing on the letter-attached Seokdokkugyol

Lee, Kanghyuk

In Early Middle Korean, 'ㅇ(ᄒᆞ)' is a factor that can detect many grammatical phenome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grammatical status of Early Middle Korean '(-)ᄒᆞ-' and to examine its aspects. Discussions are divided into 'ㅇ$_1$' that participates in the formation of words and 'ㅇ$_2$' participating in the formation of sentences. As a rule, we conduct a complete enumeration survey because we have limited letter-attached Seokdokkugyol to deal with centrally.

In chapter 2, After We check if the roots are bounded, bounded things classify as 'ㅇ$_1$'. And unbounded ones are classified as 'ㅇ'. Based on principle applied for selecting affix and formatives in this chapter, I would like to examine 'ㅇ$_1$' and 'ㅇ$_2$'.

In chapter 3, above all, I would like to establish a grammatical status as a nonce word-formative in the perspective of generative grammar. The temporary words formed at that time are registered in the lexicon after being institutionalized and then added to the lexicon, and the word formation process is established that reaches the actual words. Next, I divided the roots into Native Korean roots and Sino-Korean roots in perspective of structure grammar. At the end, it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a diachronic change form ㅇ$_1$ to hanguel kugyol 'ᄒᆞ'.

In chapter 4, according to principle applied for selecting verb, I would like to exame 'aurum verbs', 'proverbs' and 'auxiliary verbs'. In advance, The

aurum verb embrace a clause connected through conjunctive endings ‘－ㅎ, ㅎ’ or a noun phrase connected through a conjunctive particles ‘－ㅅ/ㅣ, －ㅅ’. The definition of a proverb does not deviate from the existing research history. Depending on this definition, I would like to examine sentence sturcture divided into quotations, intentions·purposes, intransitive·transitive verbs. Among them, the focus was on intransitive·transitive verb sentence structures that responded to various verbs regardless of the type of syntax. I also went on to examine some grammatical associations between a conjunctive ending ‘－ㅇㅏㅁ’ and proverb sentence structures. Lastly, in case of auxiliary verbs, It was confirmed that the meaning function of the phrase has a ‘attempt’ or ‘will’.

Key Words: Seokdokkugyol, nonce word, formatives, affix, proverb, auxiliary verbs, Early middle Korean

Student Number: 2017－25074